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news.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1월 27일 수요일(주간) 제397호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홈페이지 : www.sanchon.com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화해·용서의 천도재

최근 사회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천도재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검찰의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의 지휘선상에 있던 정현태 전 서울지검 3차장 검사가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서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와 함께 숨진 피의자를 위해 천도재를 지냈다고 한다. 또 지난 21일에는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SBS 드라마 야인시대의 실제 모델인 김두한 씨의 30주기를 맞아 천도재가 봉행됐으며, 실종 11년 만에 대구 와룡산 세방골에서 유골로 발견된 개구리소년들과 그 가족을 위무하기 위한 영가 천도재는 대구 동화사에서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천도재(薦度齋)는 영가를 극락으로 보내기 위한 의식이다. 그 어느 종교에도 이같은 천도재는 없다. 보통의 가정에서 조상들의 기일에 지내는 유교식 제사와도 엄연히 다르다. 혹여 이승의 삶을 잊지 못해, 떠돌기라도 할까봐 일부러 마음을 내어 영가를 부처님 도량에 초청하고, 죽은 자와 산자가 마음을 나누며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 바로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때문이다.

천도재에 대해 기복적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 본래적 의미는 죽은 자에 대한 극진한 사랑의 표시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신과 증오만으로 가득한 우리 사회를 화해와 용서로 이끌어 내는 힘이 된다.

사회적 의례로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소통으로서, 궁극적으로 화해와 용서의 방편으로 그 반경을 확대해 가고 있는 천도재. 그동안 절에서 지내는 천도재를 무심히 바라보았다면, 앞으로는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내 마음도 보태자.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 전체의 해탈을 위한 일일 것이다.

이은자(취재2부 차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후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66 전주 전북: 063)255-2274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9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참여 저조…직장신행 크게 위축

'법회 참석 25명 미만' 49%, '지도법사 부재' 28%

조계종 포교원, 직장 단체 지도자 설문조사

운영·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등 여건조성 시급

직장불교단체들이 회원들의 참여부족으로 활동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 자체 회원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단체도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불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조계종 포교원이 7월 6~7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전국 직장직능단체 임원 및 지도자 수련회에 참가한 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평균 법회 참석인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63명 중 87명(49.2%)이 25명 미만, 50명(28.2%)이 25~50명이라고 응답한 반면, 10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13명(7.3%)에 불과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108명(61%)이 회원들의 참여부족을 꼽았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2~3년 새 직장단체가 수적으로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대조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세태와 불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된 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경전공부(25명), 봉사활동(19명), 수행(5명)이라는 응답은 27.6%에 불과한 반면 응답자의 72.4%가 법회활동을 꼽아, 직장단체 불자들의 신행이 법회활동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불자들의 다양한 신행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자체 회원교육 프로그램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8.2%에 달하는 103명이 '없다'고 답했으며, 회원들의 신행활동을 지도할 법사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도 49명(27.7%)이나 됐다. 특히 지도법사가 없다고 답한 직장인불자들의 절반 가량인 44.2%가, 지도법사가 없는 이유를 '팔아줄 지도법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혀 직장단체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도청불교단체협의회 정찬연 사무국장은 "종단차원에서 교육교재 배포, 합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도법사 추천 등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신행수기 보내주세요 제8회 공모

불교계의 정령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8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교인연 이야기,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수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 마감: 2002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2003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buddmaster@buddhapia.com

12월 17일까지 편집국 당당자 앞

시상내역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 현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상금,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스님·신부, '새만금간척' 항의 삼보일배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가 18일 제8차 람사협약(습지보전국제협약) 총회가 열린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3보1배 기도정진을 하며 새만금 간척을 중단할 것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또 이날 람사협약총회에서는 총회에 앞서 15~16일 열린 '세계 NGO 습지대회'에서 채택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NGO 결의문'을 공식 발표하는 한편, 새 한국 대통령에게 보낼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촉구 호소문을 채택했다. 사진 제공=불교환경연대

동국대학교 제15대 총장 후보

홍기삼·조희영·정병조 교수 추천

동국대 제15대 총장후보로 홍기삼(국문학과) 조희영(경영학과) 정병조(윤리문화학과) 교수가 이사회에 추천됐다.

동국대 교수회와 교직원 노조는 20일 중강당과 노조사무실에서 제15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교수회의 1차 투표결과 모두 제적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71표로 최저 득표한 홍치유 교수를 제외한 뒤 실시한 2차 투표에서는 홍기삼 250표, 조희영 125표, 정병조 교수 114표순 이었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1, 2위를 차지한 홍기삼, 조희영 교수를 이사회에 추천했다.

또 교수회와 별도로 진행된 교직원 노조의 투표에서는 조희영 교수가 142표, 정병조 교수가 87표, 홍기삼 교수가 55표, 홍치유 교수가 16표를 얻어 조희영, 정병조 교수가 이사회에 추천됐다.

동국학원 이사회가 후보추천을 수용할 경우, 교수회와 교직원 노조에서 선출된 홍기삼, 조희영, 정병조 등 3명의 교수 중 1명이 차기총장으로 낙점된다.

한편 이번 교수회 투표율이 88.91%(총 유권자 550명중 489명 투표)로 높았고, 교직원 노조 투표율도 79.7%(총유권자 379명중 302명 투표)에 달해 차기 총장 선출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했다. 김원우 기자

교육부, 금강대 개교인가

수시·정시로 신입생 모집

천태종립 4년제 대학인 금강대학교(총장 박봉식)가 지난 16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금강대는 이에 따라 내년 3월 2일에 개교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불교문화학부(불교학 전공), 통역학부(영어 일어 중어학 전공), 사회과학부(사회복지학 전공) 등 인문사회계열 3개 학부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신입생 모집은 수시와 정시로 나눠 실시하며, 원서접수는 수시 26일, 정시 12월 13일까지. (041)731-3050 김철우 기자

도제양성연구위 본격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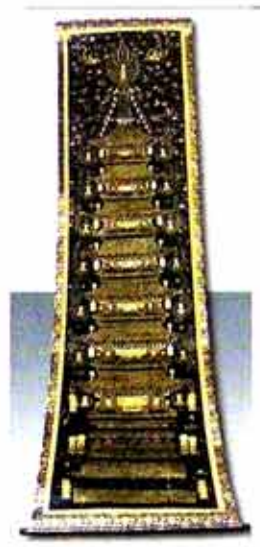
진각종, 교육제도·프로그램 개발 진행

진각종이 도제양성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종단 교육체계 확립에 나선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종단 차원의 체계적인 스승(진각종 승려의 통칭)양성을 위해 도제양성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의 인선을 마무리 짓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진각종은 지난 9월 열린 제207회 원의회(종행정 기관 간부회의)에서 교육원 예정 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연구위는 통리원, 교육원, 진각대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도제양성교육을 연구위로 통합하는 한편, 스승 재교육 및 도제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구위는 이달 말 1차 실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묘법연화경 서사보탑도'

묘법연화경 서사보탑도

전승공예전 '대상'

한국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이사장 정춘모)가 주최한 '제27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불화작가 김종우(38·씨)가 '묘법연화경 서사보탑도'로 대상을 받았다. 탑 형상으로, 모두 2만5천여자가 금으로 사경돼 있다. 심사위원단은 "고려불화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사경 분위기를 낸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금상 고려장(이성준) △은상 누갑전침당초문 이층농(이광웅) 한지수의(윤순희) △동상 백자 달항아리(서광수), 노리개(김희수), 철릭(김영숙). 김주일 기자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 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6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 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원선요지』와 『능관개시』 (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 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 (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사 설

직장직능 불교단체에 관심을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직장 직능 불교단체들의 활동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지도법사가 없는 단체도 많고 법회에 참석하는 인원도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직장직능 불교단체 중에서 110개 단체를 표본으로 시행되었다. 충격적인 것은 응답자의 50% 이상이 회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하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법회를 개설하여 동참하고 있지만 체계도 없이 단순한 신심에 의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 직장직능 불교회는 종파를 초월해 구성돼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수많은 종단들이 있지만 직장직능 불교회에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지도법사 부족은 각 종단의 후원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회 참석 인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한국불교계가 시대적 조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포교에 소극적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절대자의 힘에 의지하여 구복과 안심입명을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종교현상이지만, 더하여 가치 실현과 자아 확립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의 수준이 과거보다 높고,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각 종교 포교 전략도 수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불교종단협의회에 이러한 일들을 전담하는 부서나 기구를 만드는 것도 불교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불교계의 지도자들도 씨 뿌리지 않고 열매만 따 먹으려는 공짜 심리를 하루 빨리 버려야만 한다. 출가자들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포교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금강경 결제'의 의의

23일부터 실상사에서 '금강경결제'에 돌입했다. 전국의 선원이 결제에 들어간 가운데,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의 사찰이자 구산선문의 하나였던 도량에서 '화두'가 아닌 경전으로 결제를 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관심을 넘는 주목을 요한다.

우선 '간경결제'라는 한국불교사상 초유의 시도에 대한 배경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 금강경이 조계종의 소의경전, 즉 믿음의 바탕을 이루는 경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생명줄과 같은 경전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현실은 지극히 비금강경적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비금강경적인가. 금강경의 사상이 철저히 '상(相)'을 타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불교는 선(禪)을 절대화하고 선의 벽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것이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는 말은 금강경의 핵심이다. 육조 혜능 스님도 이 구절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가르침에 소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결제 대중의 일치된 견해다.

금강경의 불교사적 의미는 아주 크다 공문(空門) 즉 교문(敎門)에서 선문(禪門)으로 들어서는 입구이자,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경전이다. 바로 이러한 금강경의 가르침에 투철하자는 것이 금강경 결제의 근본 목적일 것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또한 금강경 결제는 최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간화선과 승가의 수행풍토 쇄신에 대한 교계 안팎에서 비등하고 있는 요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이번 결제에 거는 기대의 일단이 거기에 있다.

선종의 발전이 교학(敎學)의 지리멸렬에 있었다는 점을 명심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l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외국인불교학교 내달 7일 개교

대구 영남불교대 | 매주 토, 예법·교리·참선 등 영어로 강의 기초·고급 과정, 태권도등 문화강좌도

외국인 포교를 위한 불교학교가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설된다.

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은 외국인이 직접 참여하여 한국의 불교문화를 배울 수 있는 외국인 불교학교를 내달 7일 개원한다.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인불교학교는 매주 토요일 3시 30분부터 90분간 4회에 걸쳐 불교기초예법, 참선, 정근을 비롯 한국문화상식, 불교란 무엇인가 등의 강의가 펼쳐진다.

강의는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춰,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복식호흡을 통한 참선법,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주의할 점 등 실용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불교다도 시연 및 정식 불자로서의 입문을 알리는 수계의식도 가진다.

또한 강좌를 수료한 외국인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영남불교대학에서 진행 중인 사찰순례, 불교다도, 템플스테이 등 각종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영남불교대학은 불교학교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기초과정 뿐만 아니라 불교경전을 공부하는 고급과정과 함께 태권도, 한글교실, 사물놀이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강좌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지역에서 외국인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월드컵 기간 중 실시되었던 템플스테이가 전부였다. 때문에 불교를 알고 싶어도 그 방법이 전무한 실정을 감안, 이번 외국인 불교학교 개설은 대구에 거주하는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포교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실제로 미군장교 빌 튜더(31 대위)씨는 "사찰을 방문하더라도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 단순히 사진 한 장 찍고 오는 관광 이상의 경험은 할 수 없었다"며 "영남불교대에서 외국인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한데 대해 기쁘고,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영남불교대학은 첫 강좌에 약 20여명의 외국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월 2,4주 토요일 2시 외국인 대상 사찰개방 및 관람안내를 실시하고, 주한 미국인 대상 방송인 AFKN에도 광고를 낼 계획이다.

영남불교대학장 우학스님은 "한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필연적이라는 생각에 우선 국내 외국인의 포교를 위해 불교학교를 열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미군부대 군무원 가족이나 학원강사, 대학교수, 외국노동자 등 지역의 많은 외국인들이 부처님의 정법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조계종 새해예산 162억 확정

지혜·혜정·덕진 스님 원로의원 추천

제155회 중앙종회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예산이 162억1천5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6일 열린 제155회 정기종회에서 일반회계 162억1천5백만원, 특별회계 236억3천2백만원 등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무원이 편성했던 164억4천여만원에서 2억2천7백여만원이 삭감됐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삭감 내역은 △총무원 수계산림 세입 예산 1억7백만원 △교육원 행자교육 세입 1억2천만원 △총무원 기획실 종무프로그램 예산 7천만원 △신계사 석탑 복원사업비 5천만원 등이다.

한편 이날 폐회된 중앙종회는 지혜, 혜정, 덕진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추천하는 한편, 호계원장에 월서스님을 재선출했다. 또 법규위원회 위원에는 현봉스님(송광사 주지), 재심호계위원에 일면스님(봉선사 주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경성스님(해인사),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에 성월 장주 광조 학담 정안 원택 선광 영담 원행 지만 도진 정념 의연 스님, 종회사무처장에 상운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한명우 기자

태고종 종무기관 일부 인사 단행

법규위원장 대운스님
중앙선관위장 학현스님
중앙교육원장 수암스님


◇대운스님


◇학현스님


◇수암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최근 법규위원장에 대운스님(前 신촌 봉원사 주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 학현스님(前 교무부장), 중앙교육원장에 수암스님(前 제주 종무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중앙교육원 부원장에 성오스님(안성 성은사), 포교연구실장에 혜준스님(서울 법륜사), 연구위원장에 법련스님(서울 혜승사), 연구위원에 주명철 교수(동국대), 김월단 교임(서울 덕화사) 등이 임명됐다.

김철우 기자

"법적용 공정…종단 화합에 최선"

인터뷰 조계종 제3대 호계원장 월서스님



"부족한 것이 많은데 다시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주어진 만큼 종단 안정과 화합에 최우선을 둔 종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16일 조계종 제 155회 중앙정기종회에서 제3대 호계원장에 선출된 월서스님(사진)은 엄정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종단의 기강과 안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월서스님은 2대 호계원장에 이어 연임하게 됐다.

일반 사회법으로 볼 때 대법원에 해당하는 호계원의 위상이 위축돼 있다는 지적을 인식한 듯 월서스님은 "호계원은 보이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계율이 해이해지는 풍토가 바로 잡혀야만 호계원이나 종단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승속을 막론하고 지계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신념을 피력했다. 지난 4년의 활동에 대해서는 "멸빈자들 중 사제도 있고 도반들도 있지만 법적용에 있어서는 한 치의 사심도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으로 일해왔다"며 "이런 원칙이 종단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호계원장은 조계종 사법기관의 수장인 만큼 어떤 행위든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월서스님은 "그러나 호계원 법도 부분적으로는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더 연구해서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종도들이 계율을 철저히 지킨다면 호계원이 필요없게 된다"며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도록 모든 종도들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깨끗한 선거" 호소문 발표

불교등 7대종교 지도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7대 종교지도자들은 20일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 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지도자들은 호소문에서 "21세기 민족화합과 번영을 위해 이번 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각 당 후보들은 정정당당한 경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종교인들스스로 깨끗한 선거 실현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본사사령

임연태 命 편집부장 겸 뉴미디어부장
양은숙 命 편집국 편집부

2002년11월25일부

'현대' 만평

김 영 민



한국불교, "G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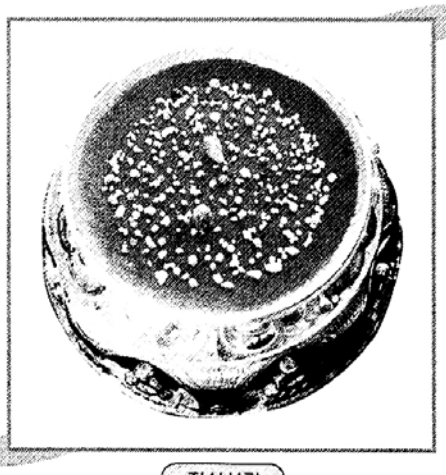
봉 국내 최다 진신사리 친견 축

모시는 말씀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제는 한번쯤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진솔(眞率)하게 참회하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종족, 사상, 이념, 종교, 문화, 환경, 빈부, 귀천을 초월하여 지구촌 전인류가 세계화로, 아니 한 가족이 되어 국경, 여권, VISA가 없이 오대양, 육대주를 마음대로 순유(巡遊) 할수있는 용화세계(龍華世界)가 한강이 기적을 이루고 월드컵 경기때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소리치던 붉은 악마로 변한 우리 국민의 그 무서운 잠재력이 다시 분출되어 학연, 혈연, 지연을 초탈(超脫)한 머슴이 뽑히고 용화세계의 발상지가 되고 역사와 후손에게 떳떳한 조상임을 보여줄 참다운 진아(眞我)를 찾는데 평생의 결정체인 진신사리(眞身舍利)를 친견하시고 소원성취(所願成就) 이루시기를 합장하여 비옵니다.

불기 2002년 11월 동명사 사문 합장


사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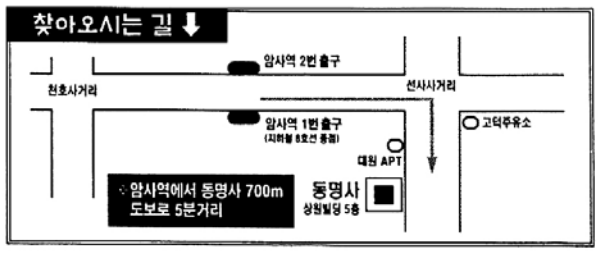

진신사리


사리함

◎ 진신사리 친견 : 불기 2546년 11월 30일 부터~
◎ 동 참 문 의 : 02-442-0962
02-442-9358

※ 사문(沙門)과 인류(人類)를 위하여 대작 불사(大作佛事)를 함께 하실 신심이 돈독하고 능력이 있으신 회장님을 찾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동 명 사

서울 강동구 암사 1동 460-15호 상원빌딩 5층

"늦어도 납월 팔일까지는 一大事 해결하소"

임오년 동안거 결제 법어

법어전문 www.buddhanews.com

등에진 무거운 짐 내려 버리면
본래 아무 일 없이 허공과 같을 것

월하스님 (영축총림 방장)



見金仙(어종심외멱금선)

飢寒喫飯倦來眼(기한끽반권래안)
只此修行玄更玄(지차수행현갱현)
說與世人諒不信(설여세인흔불신)
御從心外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나니 다만 이 수행만이 묘하고 심오한데 아무리 말해주어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고 모두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고 있도다. (중략)

時會大衆(시회대중)은 다시 한 번 잘 들어라.

見之求之(멱지구지)하면 難可得(난가득)이라. 千擔萬負(천담만부)를 都放下(도방하)하면 本來無事(본래무사)하여 如虛空(여허공)이라.

찾아보고 구하면 얻기 어려움이라. 등에 진 무거운 짐을 내려 버리면 본래 아무 일 없이 허공과 같을 것이다.

四方天地虛豁豁(사방천지허활활)
十方世界更何遺(시방세계갱하유)
虛空拍手唱唱哩(허공박수라라리)
石獅子樂舞不休(석사자낙무불휴)

사방천지가 텅 비어 트였거니 시방세계가 또 어디 남았는가. 허공이 손뼉 치며 라라라 노래하매 돌사자가 즐겁게 쉬지 않고 춤을 추도다.

머리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고
머리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보성스님 (조계총림 방장)



여러분이 세간의 모든 의무를 다 버리고 출가한 것은 오직 견성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 때문인 줄 아는데 과연 서원을 성취한 이가 얼마나 있는지 성취 못했더라도 廢寢忘餐(폐침망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납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참으로 궁금하오. (중략)

春雨餘(춘우여)와 浙江潮(절강조)가 同耶 不同耶(동야 부동야)아

擧頭望明月(거두망명월)하고 垂頭想故鄕(수두상고향)이로다

춘우여와 절강조가 같은가 같지 않은가.

머리를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고 머리를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금일 결제대중은 늦어도 금년 臘月(납월) 팔일까지는 일대사를 해 마치겠다고 굳게 맹서하고 열심히 공부하소. 공부해서 견처가 생기거든 선지식을 찾아 呈機請益(정기청익)하거나 조사어록을 살펴서 철저히 점검해야하오.

古人(고인)의 말씀에 威音王佛(위음왕불) 이후에 無師自悟者(무사자오자)는 天然外道(천연외도)라고 했으니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그르치지 않기를 바라오.

조계종 종회, '봉은사특위' 구성 감사

특 위 "3년8개월간 기도접수금 등 66억 누락"
봉은사 "행정착오에 따른 의혹…해명자료 갖춰"

사찰 재정 수입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봉은사에 대해 조계종 종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사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폐회된 조계종 제155회 정기중앙종회는 총무, 재정분과위 등 종회 7개 분과위 위원장 등 9인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특위는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봉은사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종회에서 종광, 법안, 장적 스님은 종책질의를 통해 "총무원 기획실 감사와 종회 재정분과위 감사를 종합해 볼 때 불사금과 불전금 등의 재정수입 가운데 상당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봉은사 특위 소위원회 위원장 법안스님은 원혜스님이 주지로 재임한 3년8개월 동안 △각종 축원기도 등의 접수금 4억원 △기채 사용금 4억7천만원 △응향각(불교용품 판매점) 10억원 △보우당 불사 약 20억원 △초파일 연등 약 12억원 △불전금 약 16억원 등 모두 66억7천만원의 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를 제시했다.

그러나 봉은사는 20일 종회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봉은사는 기도 접수금은 행정착오로 인한 의혹일 뿐 의혹을 해명할만한 자료가 준비돼 있으며, 기채 사용금이나 응향각 수입 역시 누락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우당 불사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용역회사인 화영건축에 의뢰해 공사비에 대한 감리를 받아 총무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연등과 불전금이 누락됐다는 의혹은 명확한 근거없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은 "장부처리 등에 있어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재정수입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유용한 일은 결코 없다"며 "종회 특위 감사에서 충분히 밝혀져 봉은사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3급 승가고시 내년부터 강화

조계종, 입교시험 통과해야 고시산림 자격

행자교육원 예산 지원

내년부터 조계종 승가고시가 강화되고 4·5급 승가고시와 행자교육원의 모든 예산을 종단이 부담한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는 15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통과할 수 있었던 산림 형태의 3급 승가고시를 입교시험과 고시산림 두 차례의 과정을 거쳐야만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는 스님들은 교육, 포교, 종무행정, 계율, 복지, 성보관리 등을 교과목으로 한 입교시험(객관식 필기시험)에 합격해야만 승가고시산림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시위원회는 또 구족계 수계산림과 함께 실시하던 4급 승가고시도 내년부터 분리 시행해, 교육과 평가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고시위원회는 이같은 개선시행안의 세부요건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공고할 방침이다.

한편 조계종 제155회 중앙정기종회는 20년 넘게 교육자들이 부담해 온 행자교육원 및 4·5급 승가고시 입교비를 전액 종단에서 부담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3급 승가고시의 경우는 자격시험 성격이 짙다는 의견에 따라 제외됐다. 김철우 기자

불법 시끄럽고 절 짓기 좋아하니 청정한 견해가 산산이 부서지도다

원담스님 (덕숭총림 방장)



夜月有輝澄巨浸 (야월유휘징거침)
半夜琴傳萬壑泉 (반야금전만학천)
坦然心地元無物 (탄연심지원무물)

一片身心水月間 (일편신심수월간)

밤 달은 광채가 있어 깊은 못 밝아지고 밤중의 거문고는 모든 골의 개울소리를 전하니, 평탄한 마음자리엔 원래 아무것도 없고 한 조각 身心(신심)은 물가에 어린 달 같네.

이것이 무슨 도리인고!

이 것은 달 밝은 소식 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대중들 각자의 마음을 밝히는 소식이니라. (중략)

釋迦老子(석가노자)와 帝釋天王(제석천왕)이 안 뜰에서 다투니 불법이 정히 시끄럽고, 절 짓기를 좋아한다하니 청정한 견해가 산산이 부서지도다.

萬里平田無寸草 (만리평전무촌초)
淸風那更借休憊 (청풍나갱차휴폐)
一片之地建草庵 (일편지지건초암)
是速敗速敗之地 (시속전속패지지)

만리 평지에 한 치의 풀도 없어 맑은 바람 어찌 다시 쉬어가리 한 조각 땅 위에 초암을 세우니 이에 속전속패의 땅이네.

미루지도 망설이지도 말고 올 결제안에 保任에 들기를

지허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선원장)



千山萬里奚本是動無風 (천산만리풍본시동무근)
板齒透中天此物僅靈眞 (판치투중천차물성령진)

무수한 산에 무수한 바람은 본래 움직이는 근원이 없거니 관자이가 하늘을 뚫은 것은 이 물건이 참으로 밝고 신령스럽기 때문이네. (중략)

장구만 탓하면 다행입니다. 장구에 따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져 탓만 합니다.

말로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탓하는 사람의 탓이 모여 諸佛現前(제불조사를 욕되게 합니다.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결제와 해제를 정해둔 것은 다만 공부하는 마음을 다시 추스르자는 것뿐이지요.

동녘에 해가 뜨면 아침이요.

서녘에 해가 지면 저녁인 것은 하늘땅 열린 이래로 다름이 없는 하루임에 똑 같습니다.

천황도오선사가 심요를 가르쳐 주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지만 이를 보지 못하고 깨치지 못한 것은 용담의 눈이요 수행입니다.

지금도 천황도오선사의 심요가 바늘 꽂을 틈도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루지도 망설이지도 말고 올 결제 안에 꼭 이 심요를 보시고 용담숭신선사처럼 保任(보임)에 들기 바랍니다.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광고방편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이웃돕기 성금

1.불자님은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낼 계획입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2.내신다면 얼마정도를 계획하고 있는지?
①1만원 ②2만원 ③3만원 ④3만원 이상

설문 참여: 11월 28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8호 A판 8면에 싣습니다.

봉

탄·허·불·교·문·화·재·단

普光明寺 旧 자광사 주지 취임식 및 불사 회향 법회

축

귀의 삼보하옵고

본 사찰에서는 천불전과 적광전 및 대웅전 불사회향 법회 및 청아스님 주지 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시 : 2002년 12월 1일(일요일) 오전 11:00
◆장 소 : 본 사찰 대웅전
◆문 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49
전화 : 042)822-9219(代)
팩스 : 042)822-8304

행 사 안 내

◆ 제 1부 (08:00) : 점안식
◆ 제 2부 (11:00) : 취임식 및 불사회향 법회
-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사찰연혁소개
- 불사경과 보고
- 내빈소개
- 취임사
- 환영사 및 축사
- 청법가
- 법 어
- 음성공양
- 사홍서원

◆ 제 3부 (12:30) : 점심공양 및 대중화합토론회
- 주제 1 : 불교대학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장소 : 적광전(3층)
  - 주관 : 불교대학 졸업생 총 동문회
- 주제 2 : 탄허스님 조사전 및 성보관 어떻게 불사할 것인가?
  - 장소 : 다경실(종각)
  - 주관 : 한암·탄허 문도회
- 주제 3 : 탄허스님 유훈 어떻게 계승 발전할 것인가?
  - 장소 : 대웅전(2층)
  - 주관 : 본 사찰 신도회

한암·탄허 문도회 회주 인허/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전창열 / 오대산 월정사 주지 현해
탄허 장학회 회장 혜거 / 普光明寺 旧 자광사 사부대중 일동

합장

학부최초 茶문화복지과 개설

부산여대 노인·아동·사회복지연계 프로그램 개발

졸업후 다도사범 1급·복지사 2급 자격

'다촌치료법' 정서장애아 치료 큰 효과

학부에 최초로 차(茶)문화복지과가 개설됐다.

부산여자대학(이사장 정상구, 한국다도협회 회장)이 2003년부터 차문화복지과를 개설, 전통문화인 차문화를 복지 실현의 매개로 삼는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차문화복지과는 차 마시는 행위를 '좋은 관계 맺기'의 매개로 삼아 현대인들의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정신이 근간이 된 복지프로그램으로 개발, 우리나라 정서에 부합하는 토착적 복지프로그램을 복지현장에 정착시키는 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문화복지과는 다문화와 복지 특성화 학교인 부산여대가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이루어낸 결실. 차문화복지과는 복지계열의 노인복지, 아동복지, 사회복지과와 연계해 과학적이고 토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이끌게 된다.

차문화복지과의 교과내용은 사회복지정책론, 지역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을 비롯 예절, 헝다실기, 다문화학, 차의 성분과 효능, 한국다시감상, 복식문화, 꽃예술학, 동양철학 등이 망라돼 있다.

졸업 후에는 다도사범 1급, 사회복지사 2급, 다도전문지도사, 예절전문지도사, 꽃꽂이 준사범증 등 다양한 자격증이 주어지며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교육원, 사회복지관 등에서 차문화 보급과 복지의 양 분야에서 활동한다.

대학부설 차문화복지연구회는 차를 통한 치료법인 '다촌치료법'을 개발, 정서 장애아, 비행청소년, 노인 등에 적용해 뛰어난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12월에는 보호감찰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교계 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차와 복지와의 만남을 본격화한다.

정영호 차문화복지과 학과장은 "불가의 선방에서 명맥을 유지해 온 가장 한국적이며 동양적인 차문화를 복지현장에 적용하고 나아가 가장 세계적인 복지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차문화복지과 신설의 취지를 밝혔다.

1954년 설립된 부산여대는 다촌 정상구 이사장의 뜻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전교생이 다문화 교양강좌를 이수 정도로 다문화 특성화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전국 최고의 복지실습실을 갖추고 있으며 차문화복지연구회와 다문화연구실을 두고 차와 복지를 접목시키는 연구를 계속해왔다. 특히 교내에 다문화관, 다촌관, 다박물관 등을 건립, 다문화 발전과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통도사 인근 1만3천평에 달하는 산림이 초산유원지 공사로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초산유원지공사…산림 1만3천평 훼손

인근 통도사 자연·수행환경 파괴

경남 양산 통도사로 들어가기 위해 통도사IC를 빠져 나오다 마주치는 맞은편 산이 민둥산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 민간업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초산유원지 공사로 인해 1만 3천평의 산이 파헤쳐지자 인근의 통도사(주지 현문)가 자연훼손과 수행환경 파괴를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초산유원지는 양산시의 허가를 받아 통도개발이라는 민간건설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28만평 규모의 대형 유원지로 골프연습장, 호텔, 콘도, 방갈로, 여관 등의 유희시설과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처럼 통도사 산문에서 2km도 떨어지지 않는 인접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사가 계속되자 19일 통도사 영축산 환경위원회 집행위원장 산용 스님은 "국보와 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 부근에 산을 마구 파헤치면서 호텔이나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를 허가당사자인 양산시에 요청했다.

양산시 도로과 관계자는 "통도사 인근이긴 하지만 수행환경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공사중지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산=천미희 기자

동산반야회, 재가불교운동 '박차'

무진장장학재단 · 동산학술연구소 발족

창립 20주년을 맞은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가 무진장장학재단과 동산학술연구소를 설립, 재가불교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16일 동산반야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천태학의 심도 있는 연구와 불교 연구자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산학술연구소와 무진장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산반야회는 무진장스님의 학술연구와 불교대중화의 뜻을 기리기 위한 출판사업도 준비 중이다. 특히 출판 사업 중에는 순수 재가불자의 힘으로 불교 잡지 창간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동산반야회는 무진장장학재단과 동산학술연구소의 후원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동산반야회는 엄상호, 김동한, 안동일, 김흥국, 김기병, 이처환, 이환경, 윤정임, 김영희 등 108명을 '동산을 빛낸 108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강유신 기자

군·일반사찰 1년간 63%결연

본사단위 법회지원·군승수급지원 필요

자매결연사업 결과발표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가 1년간 '군법당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398개의 군사찰 중 252곳(63.3%)을 일반 사찰과 자매결연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군불교위원회가 올해를 '군포교 진흥의 해'로 선포하고 연1회 이상 지원할 의사가 있는 사찰과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결연사업을 한 것을 종합한 결과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사찰 225곳 가운데 사찰지원이 225곳, 포교사단 등 단체 지원이 83곳, 개별지원이 21곳이며, 2곳 이상 군법당을 지원하는 사찰은 28곳, 가장 손길이 필요한 신병교육대 군법당을 지원하는 사찰은 12곳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00여개의 전방 군법당에 법문지원, 합장주, 책자, 다과지원 등이 부족해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145곳의 군법당은 전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매결연 사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군승법사 없이 운영되는 280여 곳 법회 지원을 위해 각 지역의 본사 단위로 법회지원체계를 마련하고, 10년 미만 스님의 의무복무 등 군승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 개신교측의 군포교 지원이 한 해 90억에 이르는 가운데 불교는 2~3억원에 불과해 주요 종단들의 군 포교 지원금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결과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군 법사들이 법회를 열 때 기본적인 포교물품 조달을 위해 한 사찰이 하나의 군법당만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열린종단' 총지종?

김 철 우 (취재1부 기자)

총지종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강남 총지사에서 연 '승단 대토론회'는 신임 법공 통리원장이 정체된 종단 분위기를 바꾸고, 승단 전 구성원의 종단발전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토론장이었다.

특히 총지종은 승단 대토론회를 공개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보여 '열린 종단'으로 거듭나려는 모습을 교계에 내비쳤다. '무상(無相)불교'라는 종풍의 총지종이 불상을 따로 봉안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안건으로 다루기로 해 교계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하지만 불상봉안 문제가 교계 안팎에 알려지면서, 총지종은 당초 입장을 바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상 봉안과 관련한 토론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종단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였다.

비공개 사유에 대해 총지종 한 관계자는 "종령(종정 격) 록정 종사께서 '불상봉안 문제는 언급할 수도, 언급해서도 안 될 중대 사안이니, 이번 승단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교시를 내렸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토론 내용을 교계에 브리핑하겠다던 총지종은 이에 대해 내용을 일절 밝히지 않았다. 총지종 통리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간부들이 대거 참여해 종단발전에 대한 토론회까지 열었는데, 굳이 그 결과를 감출 이유가 있을까.

이번 총지종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는 '열린 종단'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법공 통리원장의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그동안 총지종은 시대를 선도하는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늘 강조해왔다.

총지종의 발전은 곧 전불교계의 발전과 직결된다. 총지종은 이런 의미에서 하루빨리 열린 종단 운영의 기틀을 확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재청 승격 · 남북폐사지 복원등

대선공약 내걸고 지지호소

불교언론계 주최

후보초청 토론회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후보는 11~14일 불교방송 등 불교계 언론사 주최로 열린 16대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불교문화재 관리 불교계 참여, 문화재청 차관급 승격, 남북 폐사지 복원,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을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회창 후보는 11일 고위공직자와 군종장교 배분 등에 종교적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청을 차관급 문화유산처로 승격시키고 불교문화재 관리에 불교계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인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노무현 후보는 "문화재청을 차관급으로 승격하고 문화재위원의 50% 이상을 불교계 추천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련 예산 가운데 불교계 지원예산을 3%선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정몽준 후보는 13일 "정책에 종교적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남북 폐사지 복원이 이뤄져야 하며, 달라이 라마의 방한도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권영길 후보는 14일 "종교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의 달라이 라마 방한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미타사 수행환경 침해논란 일단락

시공사 · 조합측 대체법당 건립등 수용

고층건물로 인한 사찰수행환경 침해로 논란이 된 서울 보문동 미타사(주지 자원) 문제가 시공사 및 조합측이 대체법당 건립 등을 수용함으로써 일단락됐다.

15일 보문제1구역 주택조합사무실에서 열린 협상에서 시공사(현대산업개발) 황진하 상무, 정지원 조합장, 주지 자원 스님, 조계종 총무원 최영 직할사찰담당 등은 현 법당 우측 위에 있는 삼성각을 허물고, 30평 규모의 목조와즙 팔작지붕 다포형태의 대체법당을 짓는 것 등을 합의했다. 또 부출입구를 미타사정문에서 15m 이동하고 법당앞 벽면문양을 사찰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허허!
내 손주들을 먹이고있소이다.

11월 28일——
"소중한 우리천사들을 위한 선물이 찾아갑니다"

자랑스러운 우리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사진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 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 (주)수신오가피 대표
성 광 수氏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 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저희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 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문의및 농장견학신청 (02) 455-7555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 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동안거 결제

화두와 씨름하며 '참나 찾기'

밖에서 매서운 추위가 몰아칠수록 전국 산사 선원과 재가자 선방의 수행 꽃 향기는 점점 진해져 온 세상을 맑게 한다. 19일부터 시작된 '동안거'를 맞이 한 철 공부를 시작한 수행납자들은, 세세생생을 뛰어넘는 본래 면목을 만나기 위한 정진에 시공을 잊고 화두와 씨름 하고 있다.

매일 15시간씩 15개월동안의 가행정진에 들어간 태백산 각화사 태백선원, 큰 스님들의 수행처였던 의정부 망월사 천중선원 등 전국 90여 선원 2천여 스님들과 범어사 보살선원, 서울 수선회 등 50여 재가선방의 불자들이 일제히 치열한 정진에 들어갔다.



◇유서깊은 선방 망월사 천중선원의 수행납자들.

지게진 납자들 하나 둘 눈덮인 망월사 계곡올라

○…동안거 결제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 도봉산 망월사 천중선원(天中禪院). 천중선원은 용성스님이, 임본의 영향으로 한국불교의 계율이 파괴되고, 선이 몰락한 것을 우려하여 1925년 '만일선회결사'를 실시했던 유서 깊은 선방이다. 이곳에는 근·현대의 대표적 고승들인 만공 한암 성월 학명 석우 고송 운봉 설봉 동산 경운 고암 금오 춘성 전강 다현 서옹 스님이 수행했다. 이런 역사성을 증명하듯 1981년 조계종립 특별수도원으로 지정됐었다.

망월사로 올라오는 원도봉 계곡은 예년보다 일찍 온 겨울을 알리려는 듯 한눈으로 소복하게 덮여있었다. 망월사로 오르는 산길은 겨울철 내내 빙판으로 덮여 있다고 한다.

오후가 되자 납자들이 하나둘 지게를 짊어지고 올라왔다. 지게에는 스님들의 걸망과 함께 겨울을 날 부식거리들이 들어있는 박스가 실려있다.

지게로 짐 옮기는 일은 망월사 천중선원에 방부들이기 위해 스님들이 가장 먼저 치러야할 일로, 이제는 전통처럼 되어버렸다.



◇천중선원에 방부들이는 스님들이 가장먼저 하는일은 지게로 안거 동안 쓸 부식을 옮기는 일이다.

망월사는 워낙 고지대에 위치한데다 바람을 바로 받는 곳이라 겨울 내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싸워야 한다. 또 3개월 정진기간동안 지게에 부식을 실어 왕복 두 시간 거리의 암벽 빙판길을 10번이상은 오르내려야 하는 고된 올력도 감수해야 한다.

땀을 흘리며 지게를 지고 올라온 수좌들은 하나같이 "내가 먹을 음식을 직접 지어 나르며 춥고 힘들게 정진하는 것이 천중선원의 수좌들"이라 말하며 웃음을 지었다.

오후 5시가 되자 세면을 깨끗하게 마친 납자들이 선방을 청소한다.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는 동작에서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저 자리에서 철통같은 무명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는 청소가 끝날 무렵 공양간에서 '땡' 하는 종소리가 산중을 울린다.

스님들은 여법하게 발우공양을 한 뒤 곧바로 큰방에서 대중공사에 들어갔다. 대중들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 '첫 의식'이다. 본사와 법명을 밝히는 것으로 인사를 나눈 스님들은 동안거 3개월 대중생활의 원만한 살림을 위해 입승 철안스님이 일어나 공양주(음식), 선덕(참선지도), 다각(차 화대(난방) 종두(타종) 간병(간호)등 각 소임을 발표했다. 참선정진하며 소임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소임이 쓰여져 있는 용상방(龍象榜)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새벽 3시, 입지법어는 없이 천중선원의 선방문이 굳게 닫혔다. 따-따- 딱. 죽비소리와 함께 곧바로 참선이 시작됐다.

납자들은 3개월의 안거기간동안 아침예불(03시), 방선 및 대참회(05시) 조공(06시) 입선(08시) 방선 사시마지(10시) 오공(11시) 입선(13시) 방선 소임시간(16시) 약석(17시) 입선 저녁예불(19시) 방선 취침(22시)을 반복하며 일대사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정진한다.

○…지금은 없어진 '해인당'이라는 선방을 시작으로 11년째 재가선방의 전통을 지켜온 부산 범어사 보살 선방. 20일 오전., 미세한 움직임마저 소음이 되어버리게 하는 '고요의 철정'만이 선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19일 동안거 결제에 들어간 범어사 보살 선방 입방자는 52명. 최고령 박보광화(80) 보살부터 25세 최연소 입방자까지 나이를 떠난 화두 참구가 시작됐다.

결제 첫날이었던 19일에는 출가자 선방과 마찬가지로 입방자들이 모여 청중 보살(참선 대중들의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해주는 소임으로 입승이나 열중에 해당되는 소임) 소임자를 뽑았다. 새벽 2시 40분에 기상하여 3시에 입선에 들게 되는 보살들은 밤 9시 방선에 들기까지 하루 9시간 이상을 철저하게 화두를 참구하며 보낸다. 입선, 방선을 가리지 않고 화두를 챙기는 철저함은 '방선에 든다'고 표현하는 것에서 쉬이 짐작할 수 있다.



◇11년 전통의 범어사 보살선방에는 52명의 재가불자들이 동안거에 입재했다. 화두삼매에 든 불자들.

범어사 보살선방 최고령 80세 보살까지 52명 입방

10분의 짧은 방선. 김공덕행(76) 보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입선 때의 살벌하리만치 고요했던 모습과는 달리 해맑은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장보살을 부르는 이놈이 뭐꼬? 화두를 내면에서 항상 챙기고 있지요. 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께 화두를 받아 벌써 11년째 참구중이라오."

공덕행 보살처럼 범어사 보살선방에는 공부를 시작해 10여년을 넘긴 사람도 20명에 이른다. 스님들의 만행처럼, 전국의 시민선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범어사에서 지속적으로 결제와 산철결제를 보내는 이들도 많다. 재가자지만 출가수행승 못지않게 결제와 해제가 없는 쉼없는 정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제 3개월 동안 출가자와 똑같은 정진으로 생사심을 끊고 부처가 되고자 큰 욕심을 일으킨 보살들. 몸의 고달픔도 자식걱정, 집안 걱정도 모두 '이뭣꼬?' 화두에 흔적조차 없이 녹아 버리는듯 싶다.

마음의 일을 끊어버린 이들의 철저하고 사무치는 정진은 음력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입주일 철야용맹정진으로 여일하게 이어진다.

글=김원우 천미희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90 선원 2천여 스님 치열한 수행정진

수선회등 50개 재가선방 불자들도



◇15개월 가행정진에 들어간 태백선원. 선방앞 서 있는 스님이 선원장 고우스님.

99년부터 안거기간에 4시간만 자면서 하루 15시간씩 가행정진(加行精進, 보통 참선수행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박차를

태백선원, 15개월간 가행정진

화림원 출·재가자 50명 교계 첫 금강경 결제

가해 정진 하는 것)을 해온 태백산 각화사 태백선원이 이번 동안거에는 '15개월 가행정진'에 입재했다.

각화사는 10년을 목표로 하루 3시간만 자고 15시간씩 정진하는 가행정진에 들어갔다. 태백선원 가행정진은 새벽 1시에 일어나 점심공양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전과 오후, 저녁시간등 선(禪) 참구에만 매달리게 된다. 해제는 2004년 음력 1월 보름. 이번에 입재한 수좌는 큰방 26명 동암 5명 등 총 31명에 달한다.

선원장 고우(古愚)스님은 "큰방에서 수행하는 수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수행 염심히 하여 종단과 불교발전의 기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상사 화림원(원감 재연)도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주 교재로 한 경전결제에 들어갔다. 20여명의 스님과 재가불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증명법사 통광스님(방계사 승가대학 학장)의 기조논문을 시작으로 2월 8일까지 진행된다.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실시되는 이번 금강경 결제는 각묵 스님이 논주가 되어 직접 번역하고 해설한 〈금강경역해〉를 주 교재로 제방의 선지식과 강사, 대중이 참여하여 현존하는 산스크리트 본과 다양한 번역, 한문주석서의 교학적 이해와 선종의 입장을 살피는 열띤 논강으로 진행된다.

원감 재연스님은 "소의 경전인 금강경의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수행이라야 말로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제대로 잇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일주문



'자랑스런 나라…' 가두캠페인
월주 자랑스런나라만들기운동본부는 22일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자랑스런 나라 만들기 30만명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무량사 지장전 준공식 참석
혜성 서울 도선사 회주는 24일 하와이 무량사에서 열리는 지장전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진각복지재단 회향의 밤
효암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는 12월 12일 오후 5시 고려대 교우회관 지하 1층 연회장에서 '회향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13대 통리원장 취임법회
법공 총지종 제13대 통리원장은 14일 서울 총지사에서 전국 스승 및 신도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불교TV 법당 건립 법회
지성 대구 동화사 주지는 17일 통일대불전에서 '천일기도 입재 및 불교TV 법당 건립을 위한 법회'를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했다.



겨울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
운광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은 12월 7일 오후 3시 서울 불광사에서 제30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부산교구 종무원장 취임
효담 부산 대성사 주지는 23일 부산 금수사에서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 종무원장으로 취임했다.



부산경남포교사단 지도법사
오심 통도사 포교국장은 부산경남포교사단 지도법사로 위촉돼 부산경남포교사단 분과 모임 및 행사에서 법문한다.



보광명사 주지 진산식
청아 대전 보광명사 주지는 12월 1일 오전 11시 보광명사 대웅전에서 주지 진산식 및 불사 회향법회를 갖는다.



장상문 거사 10주기 추모법회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21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장상문 초대 불교방송 사장 10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추계 불교학술발표대회
권기종 한국불교학회장(동국대 교수)은 30일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제37회 추계 전국불교학술발표대회를 연다. (02)2260-8507



'고구려악기·의복' 논문 발표
김상현 동국대 교수는 23일 고구려연구회 정기 학술발표회에서 '일본에 전해진 고구려 악기와 의복'에 대해 발표했다.



인도석학초청 특별강연회
이봉춘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은 20일 인도 달마람 대학의 오구스틴 뚜따까라 교수를 초청,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한국박물관회 9대 회장에
유상욱 (주)코리아나 화장품 회장은 최근 열린 (사)한국박물관회 임시총회에서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02)398-5193



창립 37주년 법회 개최
남두희 대구 정법회 거사림 회장은 19일 대구 거사림 법당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7주년 법회를 가졌다.



대불청 서울지구회장에
인성호 조계종 봉축위원회 계장은 12일 열린 대불청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제12대 서울지구 회장에 선출됐다.



시집 '세상은 자연' 발간
권대자 대구경북포교사단장은 최근 자연을 관조하며 적어둔 단상을 모은 환경시집 〈세상은 자연〉을 발간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생후 2개월동안 큰수술 두번 선욱이

"소중한 생명 구할 수 있게 도움을"



◇2차 뇌수술이 끝난 후 선욱이를 아버지 정기덕 씨와 어머니 현명숙 씨가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모 부대 관사에서 직업군인인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정금자(58) 씨. 정 씨는 손자인 선욱이가 태어난 지난 9월 25일 이후부터, 하루하루 사는 게 살얼음 위를 걷듯 불안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손자 선욱이가 기형아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선욱이가 앓는 병은 '신경관 결손증'. '신경관 결손증'은 척추 신경의 일부가 몸 밖으로 자라고 뇌가 성장하지 않는, 흔히 '무뇌증'으로 알려진 병이다.

선욱이는 태어난 지 3일만에 척추를 뚫고 나온 신경을 몸 안으로 집어넣는 수술을 받아야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뇌 속에 수포가 자꾸 커져서, 물을 빼내는 관을 머리 속에 심는 대수술도 받았다. 그래서 정 씨는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손자를 볼 때마다 절로 눈물이 흐른다.

선욱이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앞으로 몇 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할지 모른다. 뇌가 성장하지 않으면 무뇌아로 평생 밝은 빛을 보고 살 수 없고, 뇌가 정상적으로 발육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보다 당장 더 큰 걱정이 앞선다. 치료라도 제대로 받게 해 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숨이 절로 나요. 애비 월급으로는 도저히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으니…." 두 달 동안 병원비가 이미 4백만원을 넘겨버렸다. 아들의 넉달 월급보다 더 많다. 장애아로 태어난 것만도 불쌍한데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이곳 저곳에서 빚을 얻어 수술비를 감당했지만 그런 사이 빚이 1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렸다.

"부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인데 어떻게라도 건져야지요." 정 씨는 요새 더욱 간절하게 인근의 호국미타사를 찾는다. 부처님께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제가 지은 업은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발 생명 하나만 구해주세요, 부처님." 병 때문에 똥·오줌마저 제대로 못 보는 선욱이가 하루 빨리 차도를 보였으면 하는 것이 정 할머니의 오직 하나 소망이다.

후원계좌: 우체국 300111-02-105685(예금주 정기덕)
연락처:(033)747-1862

원주=강유신 기자

"내달 대규모 위령재 봉행"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골봉환위원장 진성스님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골과 위패를 모셔오는 것은 해묵은 과거사를 청산하고, 한국이 21세기 동북아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단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사찰에 보관돼 있는 유골을 직접 수습해 함에 담는 작업 및 2~3차례에 걸친 봉환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는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골 한국 봉환위원장 진성(북한산 선봉사 주지, 사진)스님은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촉구했다.

16일 세계미술교류협회(회장 이백암) 주도로 모셔온 태평양희생자 유골 50기와 위패 357기를 파주 보광사에 봉안한 스님은 "12월 10일 예정된 3차 봉환 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대규모 위령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3만7천명이 한꺼번에 몰살된 오사카 탄광촌에 추모비를 세우고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 5년간 일본에 있는 40만기에 이르는 한국인 유골과 위패를 모셔오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일이 끝나면 중국과 동남아에 방치된 한인 유골과 위패 70만기도 봉환해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스님은 한국-캄보디아교류회 한국회장으로 올해 1월 캄보디아 NGO단체에 쌀 600톤을 제공하고, 무료병원을 세워 기증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미술교류협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유골봉환작업에 적극 나서게 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중훈 한진그룹회장 별세

월정·망월사 중창 등 지원



조중훈(사진) 한진그룹 창업주 겸 회장이 17일 인하대 부속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한진그룹을 재계 5위의 종합 기업으로 일궈낸 고인은 탄허 스님과의 인연으로 불교에 귀의한 독실한 불자이다.

특히 6·25 전쟁으로 파괴된 오대산 월정사와 남한산성 망월사 등 여러 절의 중창 불사를 적극 지원 했다.

또 고인은 1천억원 규모의 개인 재산을 학교법인 인하학원 등 3개 공익법인에 기증해 관심을 모았다.



한국조동종, 중앙종회 개원
한국조동종(총무원장 학봉)은 15일 서울 용산 원효사에서 중앙종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1대 종회의장에 수경스님(서산 지장사 주지)을 선출하고, 사정원장에 달제스님(양평 금강사), 포교원장에 정민스님(부산 폭포사) 등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포교사단 전·의경법회
조계종 포교사단은 17일 서울경찰기동단 회의실에서 제1기동대 전 의경 법회를 열었다. 경찰포교팀의 주도로 열린 법회에는 포교사 20여명과 전 의경 8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포교팀은 이번 법회를 계기로 2, 3, 4기동대로 확대, 전 의경 포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불교인권위 창립 13돌 기념식
불교인권위원회는 20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창립 13주년 및 제8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을 열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 등 2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한상범 대표는 "불교인권위원회가 앞으로 그 의미대로 더욱 유익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고 말했다.

당 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몸집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시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의사(천의사) 박놀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부종,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케미칼라이프 Co.
C.W.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입주금 친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성라실버타운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맹지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

불교의식(범음·범패), 기타
학 인 모 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 육 과 정
1. 의식과정(속성과정) : 기본과정, 중급과정
2. 작 법(속성과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 단 작법과정은 의식과정의 기본과정을 수료내지, 동등자격자
3. 사물(12개월) : 태평소(호적)
■ 모 집 인 원 : 각 반 20명(선착순)
■ 원 서 접 수 : 수시모집
■ 제 출 서 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 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일승불교대학

문화예술대학원
예술치료학과
(야간)
모집학과·전공 및 모집인원

과 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	00명
연구			안간영
문화예술지도자			00명

응시자격
•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 국내 외에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정규교육을 수료한 자
-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자격이 있다고 판정된 자
※이술 심리학 사회복지 유아교육 특수아동교육 등 관련학과 출신자에게는 서류전형시 우대할 수 있음
• 문화예술지도자과정
- 유치원장, 유아원장, 특수학교 종사자
- 사회복지 간호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서교부 및 접수 2002.12.4(수) ~ 12.10(화), 본 대학원 교학부
전형일시 및 장소 2002.12.13(금) 14:00, 본 대학원 교학부에 게시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교과과정 ◆
미술치료 개론 / 그림해석을 위한 진단 / 미술치료 임상지도 / 정신병리학 / 아동과 청소년 미술치료 실기 / 미술치료 사례 세미나 / 창의적 미술치료 / 성인과 노인 미술치료 실기 / 집단 미술치료 이론 / 아동상담 이론과 실제 / 장애아동 미술치료 / 통합적 미술치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또는 본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바람
☎(02)2260-3606~7
http://www.dongguk.edu/sogea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불자회 버팀목 역할 '일등 포교사 5인'

"직장불교 활성화 원력 세웠어요"

정부부처 등 공불련 창립 숨은 주역

60명 회원 5년후 500여명으로 늘려

행사 기획·준비·뒤처리 등 도맡아


◇안홍부


◇강인준


◇박영홍


◇이순형


◇김종관

"공무원불자를 찾는 데는 '귀신'입니다. 일일이 찾아가 불자회에 가입 시킬 때 고생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일이 좋다는 사람은 아마도 그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공불련 안홍부 사무국장(56·감사원 4국 1과)을 두고 하는 감사원 불자들의 표현이다. 감사원 불자회와 공불련 창립을 주도한 안 국장. 2000년에는 정부부처와 경찰불교회가 참여한 공불련 창립을 이끈 1등 공신으로 사무국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았다. 출장이 잦은 직업특성을 살려 출장기관에서 불자들을 찾아 협박(?)까지 해가면서 불자회 결성을 유도했다.

이런 안 국장의 활동은 대학시절 불교학생회에서 쌓은 불심과 졸업후에도 계속된 지도 경험에서 비롯됐다. 또 10년 넘게 법회를 지원해 온 정심여자정보학교(옛 안양소년원) 봉사활동은 몸으로 실천하는 불자로서 손색이 없다.

안 국장의 경우처럼 직장단체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면서도 모임 활성화를 위해 온 몸으로 뛰어드는 불자들이 있다. 전법을 최고의 원력으로 삼고, 모임 결성에서부터 행사 기획·준비·뒤처리까지 도맡는 이들의 활동은 직장불교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이들의 전법활동이 있기에 직장인불자들의 신행활동은 빛을 발하고 있다.

안 국장과 함께 정심여자정보학교 청소년법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련회 강인준(50·감사담당관실) 총무. 강 총무는 보련회 뿐만 아니라 법무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과천정부청사내 정부부처 불자회 창립을 지원해 온 숨은 일꾼이다. 최근에는 과천청사공무원불자연합회 결성에 참여, 모든 실무를 도맡고 있다. 말 수가 적은 강 총무의 말없는 실천은 다른 불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대구시청 유마회의 대들보 박영홍 총무(49·총무과)는 활동중단 위기를 맞았던 유마회를 활성화시킨 장본인이다. 5년째 총무직을 맡아 60여명에 불과했던 회원을 500여명으로 늘렸고 대구시 산하 8개 구·군청 불자회 창립을 지원, 유마회의 위상을 높였다. 직장동료나 상사로부터 곱지 않은 눈총을 받을 때도 있지만, 자신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모든 직원에게 먼저 인사할 만큼 하심을 생활화하고 있는 박 총무는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파일을 만들어 특징을 메모해 회원관리에 특별한 정성을 쏟는다. 회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필수.

한전본사 반야회 이순형 구도부장(54·원자력건설처)은 반야회 창립 때부터 모든 관련업무를 맡아온 실무통이다. 전력인불자연합회 사무국장을 지내고도 구도부장을 맡아 회원교육과 신심 길러주기에 여념이 없다. 이 부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선물하기를 좋아해 그 인연으로 반야회에 가입한 회원도 상당수에 이른다.

입사 때부터 줄곧 인트라넷에 부처님 말씀을 올려온 소비자보호원 법우회 김종관(36·소비자안전국) 총무는 회사내 모든 직원이 알고 있을 만큼 열성을 가진 포교사다. 지난 4월, 오랜 숙원이던 불자회 창립을 주도하고, 조계사청년회와 동산불교대학 경험을 살려 초심자들의 신행을 지도한다.

이 밖에도 직장단체에는 회원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신행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불자들이 많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로 인해 직장불교회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는 직장내 불교신행모임의 결성을 서원한 직원 108명의 발기로, 91년 5월 양재동 구룡사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출발하였습니다. 지하철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가족들도 함께 참여했지요.

창립 이후 1년이 넘도록 인근 사찰에서 법회를 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우회는 활발한 활동으로 지하철공사내 모범 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92년 10월 2호선 사당역에 작지만 우리만의 법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93년 3월에는 지난 8월 지하철포교단체인 풍경소리와 '자비의 말씀' 게시판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철 1~4호선 115개 역사내 460개의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공사 구간에서 시작된 '자비의 말씀' 게시판은 지금은 모든 지하철과 철도역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기폭제가 되었지요.

한번은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하던 승객이 자비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행동을 참회하는 편지와 현금 8만원을 보내와 모든 직원들의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원과 가족이 지도법사 화암스님으로 부터 연비를 받고 있다.

'자비의 말씀' 지하철역 곳곳에 게시

자체법당 마련·회원 가족들 수계도

하철공사의 배려에 힘입어 2호선 종합운동장역으로 확장 이전, 회원과 가족 뿐만 아니라 지하철공사 불자들의 기도 신행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우회는 현재 278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두차례 법회와 년 2회 성지순례, 야외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과 올해 9월에는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와 공동으로 생명과 환경살리기 걷기대회를 열어 환경보전에 대한 철도불자들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도 했지요. 또한 정기적으로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의 음지를 찾아 자비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는 포부로 99년 8월 지하철포교단체인 풍경소리와 '자비의 말씀' 게시판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철 1~4호선 115개 역사내 460개의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공사 구간에서 시작된 '자비의 말씀' 게시판은 지금은 모든 지하철과 철도역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기폭제가 되었지요.

한번은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하던 승객이 자비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행동을 참회하는 편지와 현금 8만원을 보내와 모든 직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기도 했었어요.

법우회는 회원들이 보다 수월하게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당을 증축해 회원들의 기도신행처로서 손색이 없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고, 회원과 가족들에게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수계의식도 열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원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료집 제작에 들어갔지요.

회원들은 자신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불자가 되기 위해, 또 시민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 포교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자비의 말씀을 보거든 법우회를 한번 떠올려 주세요.

※심재창 총무(설비공사팀)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는 19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임시총회 및 송년법회를 열었다.

"청소년·군인 등 젊은불자 포교"

불교산악인련, 임시총회·송년법회

과천 정부청사내 불자들

12월 7일 합동수계법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김정길)는 19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임시총회 및 송년법회를 열고, 2003년에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장정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산악인불자들의 원력을 모았다. 또 청소년·군 등 젊은 불자 저변확대를 위한 포교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년 2회 전방부대 위문행사와 초·중·고 대학생 합동성지순례 및 산행법회를 추진한다. 종립학교는 물론 일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행법회는 수도권 중부 전라 경남 경북 제주 등 6개 권역별로 불교를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지순례와 병행해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길 총재, 단위산악회장, 지부 임원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 불자들이 12월 7일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합동수계법회를 열고 진실한 불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한다.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을 증명으로 구룡사 주지 정우스님이 계사로 나선다.

창립 2주년을 맞은 건설교통부 불자회(회장 송도근)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수계법회에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불자들이 참여한다.

금융단불교련 화합산행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이탁수)는 16일 서울 법련사에서 합동법회와 북한산 산행을 통해 화합을 다졌다.

한국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불자회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인불자들의 화합을 다지는 한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 10여명의 고아를 보육하고 있는 수원 행복한집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탁수(우리은행) 회장은 "믿음을 사회에 회향하는 금융인 불자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면서 "수련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는 데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체장 동정



전력인불자연합회장에

이인규 한국전력 본사 반야회장은 17일 영광 불갑사에서 열린 대의원수련회에서 전력인불자연합회장으로 선출됐다.



등명낙가사·상원사 순례

김종환 국회정각회불교직원신도회장은 16~17일 강릉 등명낙가사와 오대산 상원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보조진심직설' 강좌 열어

정종철 KBS불교연구회장은 28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인오법사를 초빙, 〈보조진심직설〉 강좌를 연다.



수덕사·정혜사 등 참배

노옥섭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24일 충남 예산 수덕사, 정혜사, 견성암에서 순례법회를 열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2002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과 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 별 전 형 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5매	· 각종단 승려·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승려학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4년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4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 3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중국어과 개설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남경효장대학(사범대) 분교 체결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합격
2002. 11 종립삼화불교대로 확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등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 개호복지사 2급 자격 취득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한의대) 본과 입학 가능
· 중국 남경효장대학(사범대학) 3년 편입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12월 31일까지
·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우편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TEL 02)511-2026~8 FAX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TEL 047)376-1321,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총명공고중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학원 종립 삼화불교대

한의과대학

1. 남경중의약대학
■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 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영문) ◇ 대학 졸업자 (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4년대학 학사과정 졸업자)	

2. 학교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12월 31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화 : 025-6798167 · 팩 스 : 025-6798168
▸ 한국 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 전화 : 02-511-2026~7 · 팩 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목어

'단순함'



김 징 자
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함 입니다'

요즘의 광고카피에 이처럼 '단순함' 이란 단어가 나타났다. 'Simplicity' 라 영어로도 적고 있다. 단순함이 인생을 복잡하지 않고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든가, 인생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복잡한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등의 문구가 뒤 따른다.

영어 Simplicity는 평이, 간단, 꾸밈없음, 천진난만 등으로 쓰인다. 무엇으로 쓰든 여유로움이 배어 나오는 단어다.

광고카피에 나오는 '단순함' 이란, 과학문명으로 하여금 브다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봉사케 하겠다는 다짐일 것이다. 끝없이 편리함을 추구해 가는 인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Simplicity는 앞으로 상품개발에 있어 제일의 키워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랬다. 복잡했던 기계조작들이 버튼 몇 개 눌러 해결하는 것으로 발전했다가 이젠 버튼 하나만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 알아서 해주는 식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가사의한 것은 우리생활이 단순해지기는 커녕 더욱 복잡해져만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학문명이 추구하는 '단순함' 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과학문명이 가져오는 '단순함' 은 우리 삶의 '단순함' 과 다른 것일까.

지금 우리 생활주변에는 예전에 없던 수많은 이기(利器)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수많은 이기들이 모두 단순화를 지향해 왔다고는 하나 늘어나는 이기의 숫자만큼 우리 생활은 더욱 복잡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모순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Simplicity의 삶이란 문명의 이기들이 아무리 Simplicity를 추구해 왔다 해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 그 이기의 숫자를 줄이는 것일 터이다. 광고에 미안하지만 '인생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불필요 한 것' 이란 그 카피처럼 말이다.

불자의 생각

대선불교 공약



대다수 불자들은 현재 대선 주자들의 대 불교계 공약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0명이 동참한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조사 결과 42명(52.5%)이 잘 모른다, 15명(18.8)%이 전혀 모른다 고 응답했다. 잘 알고 있는 의견은 9명(11.2%), 대강 알고 있다는 14명(17.5%)에 불과했다. 모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38명(53.6%)이 홍보하는 곳이 없어서, 21명(29.6%)이 관심이 없어서, 12명(17%)이 기타 라고 응답했다.

불자들 대선 공약 몰라 71.3%

김두식 기자

불자 세상보기



윤원철
서울대 교수
종교학과

진리 몸소 보여주니 진정한 스승

어느새 몇 차례 얼음이 얼고 눈도 내렸다. 지난봄과 여름의 푸르른 기억들은(올해는 빨간색으로 기억하는 이들도 많을 게다) 몇 번의 때 이른 스산한 바람과 함께 아득히 멀어진 지 오래고, 유난히 짧았던 가을풍경도 나 같이 마음 바쁜 이들은 눈길 한번 줄 사이도 없이 스러져 버렸다.

그러면 어떠랴.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또 겨울대로, 계절마다 새록새록 마련되는 즐거움이 있다. 마침 여기저기서 스키장이 개장하는 참에 눈치 빠르게 휘날려주는 눈발은 얼마나 기특한가. 골프 장갑을 스키 장갑으로 갈아끼고 몰려든 인파의 환호는 그야말로 살 맛 나서 못 견디겠다고 진저리를 치는 듯 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맘때면 언제나 떨어지는 나뭇잎들보다 몇 걸음 앞서 지레 마음이 졸아들고 앙상해지는 나뭇가지들보다 먼저 추위를 뼛속에 담으며 시린 어깨를 한없이 웅크리는 이들이 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벌다른 의미가 없게 된 김장이니 연탄이니 월동준비니 하는 말이 아직도 천근만근의 무게로 가슴을 눌러대는 그런 이들 말이다.

자신의 즐거운 인생에 푹 빠져서, 또는 고달픈 살림살이에 전념하느라 곁눈질할 새 없이 바쁜 것이 우리네 대부분의 모습이다. 그러나 자기의 옵타리를 넘어 늘 남의 사정을 살피면서, 남의 어깨 시린 형편을 보면 같이 시려 하는 이들도 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그런 부부를 소개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훈훈해진 적이 있다. 환경미화원 남편과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부인의 이야기이다. 직업만 들어도 그들의 살림살이가 결코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리라는 것을 누구나 단박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 15년 동안 매년 이맘때면 그해에 저축한 돈을 털어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해왔다. 올해는 지난여름에 태풍 피해를 극심하게 입은 강원도 사람들에게도 김치를 보낸다고 한다.

남을 돕기보다는 도움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남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을 쓰는 또 한 예를 보았다. 연골이 생기지 않아 뼈가 제대로 발육하지 않는 연골무형성증이라고, 흔히 하는 말로는 난쟁이인 아버지와 그 병을 물려받은 두 딸, 그리고 생모도 아니고 난쟁이도 아니면서 스스로 그 집에 들어와 딸들을 살뜰하게 키운 어머니, 이렇게 네 식구의 이야기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곡예단에서 일하다가 곡예단이 퇴조하면서 직장을 잃고 갖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장애인이 겪는 고초야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될 것이다.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곡예를 보여주고 호박엿을 팔며 길 위에서 사는 그이들이, 짬짬이 집에 돌아와 쉴 때면 동네 노인들을 모아 음식 대접하고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주곤 한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이들이 우리의 큰 스승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식 높은 고담준론으로 가르침을 주어야만 스승인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더욱이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니 큰 스승이다. 그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베풂이란 곡 자기 살림이 넉넉하게 넘쳐나서 남는 게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이다. 그이들 앞에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못 베푼다는 변명을 할 수가 없다.

원효대사는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서 도(道) 닦는 일을 자꾸만 미루는 사이에도 세월은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니 "급하지 아니한가, 급하지 아니한가?" 하고 질책하였다. 위에 소개한 우리의 스승들은, 베풂의 복 짓기는 그 누구라도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건만 또 나중으로 미룰 것이냐며 역시 "급하지 아니한가, 급하지 아니한가?" 라고 질책하는 듯 하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얼마 전 열린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가 계파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파당적 이해다툼이 이번 종회 들어 노골화되는 등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양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종회 내에 계파가 없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차라리 양성화해 정책대결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양쪽의 견해를 들어본다.

조계종 종회내 계파 어떻게 봐야 하나



현각스님
(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종회의원들은 수시로 상호간의 정보교환이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데 이것은 종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종회의 각 계파는 계파를 전면에 내세워 '나눠먹기식' 의 세속화 길을 걷고 있다. 정책의 본질이 어떻든 상대 계파의 반대 입장에 서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 동조하는 식의 이기적 행위가 우려를 낳고 있다.

직선제를 통해 종회를 구성한 것은 지역 및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종책을 생산해 내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계파 간 안배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종회의 기능은 이미 상실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종회의 행태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모든 힘이 종회와

'나눠먹기식' 배제, 합리적 종책생산을

집행부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만이 쌓이다 보면 자연히 무너지게 된다. 역사가 단기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는가. 계파간의 이해다툼이 교단 붕괴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종회 스스로 자정운동을 해나가야 한다. 종회는 엄연히 종도들의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관이다. 계파에 개여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승가의 도리가 아니다. 방법은 간단하다.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면 된다. 종회의원들 각자가 부처님 정신에 입각해 생각하고 활동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천목이나 정보교환의 자연스런 모임 이상으로 이해관계가 맞서는 모임은 없어져야 하며, 특히 이런 모임을 빙자해 이기집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윤남진
(참여불교재가연대 기획실장)

종교단체라고 해서 정치행위가 없을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종교단체인 경우 일반 사회에서처럼 물질적 이해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단체가 추구하는 종교적 가치를 근간으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조계종이라는 종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기구이다. 조계종 종헌에 규정된 중앙종회의 역할 또한 분명히 정치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조계종에서 '종단정치' 라고 하면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주로 이해관계를 다투는데 쓰이는 야합, 계략, 모략, 은폐, 호도 등의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쓰인다는 점이다. 제13대 중앙종회에 이르러 물밑에서 몇몇

종단 지향가치 실현에 부합해야

정치핵심부만 공유하던 계파적 이합집산이 공공연해지고, 나아가 공식화될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좋은 일이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겉모습과 속 모습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다른, 이중성을 벗고 투명해지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것' 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런 계파 형성과 활동이 종교집단으로서의 조계종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에 부합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단의 사명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리더십의 한 표현으로서, 그 사명과 비전의 실현 방법에 차이가 있는 의원들 간의 분명한 분리와 결합이라야 세간의 비웃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다 — 기부문화

일회성 아닌 지속적 관심 필요

'아름다운 재단' 이 최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한 해 자선적 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52.5%(537명)로 나타났다. 이들의 61.9%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때문' 에 기부를 한다고 밝혔다(복수응답). '사회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30.4%)와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28.0%)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기부 문화가 부족하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남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연평균 기부액은 5만1천775원으로, 23.6%가 9천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였으며 정기적으로 기부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18.2%에 그쳐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아직은 뿌리내리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일찍 찾아온 추위로 가뜩이나 어려운 이웃들의 삶이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려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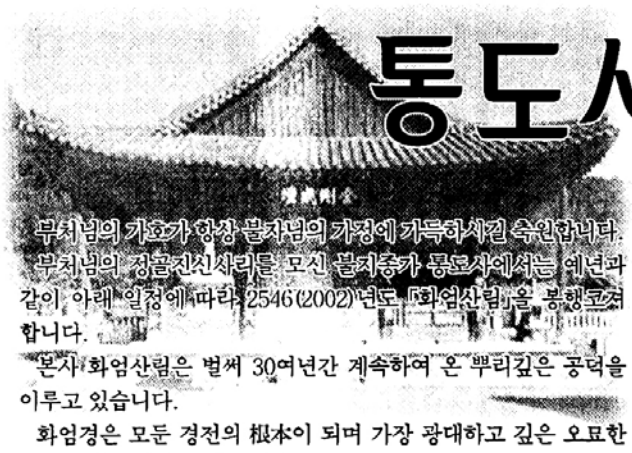
▨보살은 비심(悲心)으로 보시에 전념하여, 재물이 없을 경우라도 남이 구걸하는 것을 보면 차마 말하지 못하고 눈물을 떨군다.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수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대장부론>

▨보시하면 복이 늘어나고 원수는 모두 없어지네. 선으로 말미암아 악이 제거되니 미혹이 다하여 열반을 증득하리.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간탐의 마음 때문에 항상 온갖 부정한 것을 탐하게 됨이니, 보시를 즐겨 행해야 청정한 과보를 얻는다. <제법집요경>

▨보시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스스로 발심해서 하는 보시요, 둘째는 남이 구걸하기 때문에 하는 보시요, 셋째는 교도하기 위해 하는 보시다. <대교왕경>

▨보시하는 힘을 수행해 완성하면, 이 보시하는 힘으로 인하여 성불할 수 있게 된다. <광명경>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부처님의 가호가 항상 불자님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정골진신사리를 모신 불지종가 통도사에서는 예년과 같이, 아래 일정에 따라 2546(2002)년도 「화엄산림」을 봉행코져 합니다.

본사 화엄산림은 벌써 30여년간 계속하여 온 뿌리깊은 공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모든 경전의 根本이 되며 가장 광대하고 깊은 오묘한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방의 훌륭한 스님들 30여분을 초빙하여 귀중한 시간과 장엄한 法席(법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연있는 많은 불자와 함께 화장장엄세계의 불보살님께 동참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보리심을 발하여 지혜와 복덕을 갖추시길 바라며, 또한 선망부모와 일체영가를 천도, 이고득락케 하시면 한량없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불기 2546년 11월 일

입재 — 2002년 12월 4일(수)(음 11월 1일)/오전 10시
회향 — 2003년 1월 2일(목)(음 11월30일)/오전 10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영가 천도재를 지냅니다.

통도사 설법전

1개월 동참비 : 100,000원(비표 배부)
반 산 림 : 50,000원 영가동참비 : 1위당 10,000원

• 부산지역 (본사차량및한솔고속관광)온천장 지하철역 앞(08:00~09:00)
• 울산지역 (부성고속관광) 공설운동장(08:00) → 중구청 → 세원예식장 → 태화호텔 → 시청공업탑로타리(08 40) → 무거로타 → 고속도로 → 통도사
• 대중교통 부산노포동종합터미널, 천일일반고속, 울산시외버스터미널

통도사종무소 (055)382-7182
기와 접수처 (055)381-1288
회 계 실 (055)382-7187

대한불교조계종 제 15 교구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주지 현문 합장

2002년도 화엄산림 법사 일정표

음력	양력	요일	법 사	법문하실 품
11/1	12/4	수	부방장스님	현담(입재법문)
2	5	목	지안스님	세주묘엄품
3	6	금	무비스님	여래현상품
4	7	토	도영스님	보현삼매품/세계성취품
5	8	일	각성스님	화장세계품
6	9	월	덕민스님	비로자나품
7	10	화	자광스님	여래명호품/사성제품
8	11	수	종광스님	광명각품/보살문명품
9	12	목	도형스님	정행품/현수품
10	13	금	인환스님	승수미산정품/수미산정계참품/십주품
11	14	토	인환스님	범행품/초발심공덕품/명법품
12	15	일	혜남스님	승야마천궁품/야마천궁게찬품/십행품
13	16	월	법산스님	십무진장품
14	17	화	법장스님	승도솔천궁품/도솔천궁게찬품
15	18	수	기후스님	십회향품
16	19	목	원산스님	십회향품
17	20	금	월운스님	십지품
18	21	토	월운스님	십정품
19	22	일	통광스님	십통품/십인품
20	23	월	정우스님	아승지품/수량품
21	24	화	재문스님	제보살주처품/불부사의품
22	25	수	상우스님	여래십신상해품/여래수호공덕품
23	26	목	무관스님	보현행원품
24	27	금	성우스님	여래출현품
25	28	토	종범스님	이세간품
26	29	일	종범스님	입법계품
27	30	월	법조스님	입법계품
28	31	화	월파스님	입법계품
29	1/1	수	향파스님	입법계품
30	2	목	전계사스님	회향법문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고흥
- 법당 : 39평
- 요사 : 70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3억

- 위치 : 경기가평
- 법당 : 15평
- 요사 : 4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13억

※최고의 산세와 경관을 지녔으며 (예정계획으로 종합병원, 고속도로 및 터미널 10분 이내. 구리시 30분내 거리에 위치함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사찰부지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구 합 니 다

공부하는 비구니스님으로서
부산인근에 아담한 토굴
암자 임대 주실분을 찾습니다

019)588-6448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800평(구교지)
- 법당 : 40평, 요사 40평
- 양도가 : 7억
- 천연고찰이며 산세 및 계곡 좋음

011)530-1975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황령산
- 대지 : 악 500평
- 법당 : 25평, 지장전 : 50평
- 요사채 : 50평
- 가액 : 10억

- 위치 : 기장군 일광면
- 대지 : 166평
- 법당 : 18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1억 7천

※ 도로 교통 전망좋음
※ 공원묘지와 연관된 사업가능

※ 황토 목조 신축건물
※ 사찰로 용도변경 가능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 부지 : 500평(완전평지)
- 대웅전 25평(삼포목조단청)
- 요사체 45평(방6개)
- 기타 : 산신각 용왕각 노천식불
- 가액: 1억 7천만원

055)673-6996
011)833-0374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중심지역(부전시장 5거리) 5층 건물 중 3층 45평
-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방2개, 응접실, 주방, 화장실, 샤워장
- 가액 보증금 7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1200만원(절충가능)
- ※ 충주 토굴터 대지 106평 1590만원

055)241-5359

토굴(사찰)안내

- 충남 청양군 대치면 계곡리 (인접 지역에 장곡사 있음)
- 부지 건평 37평(2001년 신축)
- 대지 400평 , 전 300평
- 임야 2300평 (형질변경 가능함)
- 특징 칠갑산 줄기에 좌청룡우백호가 뚜렷한 지형임. 심야전기난방 느타리 재배사 및 저장고 시설되있음
- 가액 1억 5천(분리 가능)

011)434-7209

사찰 부지 및 묘지안내

- 포란형의 명당
- 충북 보은읍에서 승용차 7분~10분거리
- 준농림지 1170평(농로있음) 마을 앞 큰길 300m 거리 저수지 있음
- 평당 25000원(절충가능)

032)519-1086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내
- 법당 : 50평
- 요사 : 방 1개
- 보증금 :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시내요지에 위치한 포교당임

- 위치 : 서울시내 강북 소재
- 대지 : 475평
- 법당 70평
- 요사 : 120평
- 양도가 : 14억(융자가능)
- 역사깊은 도량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도 하남시
- 법당 : 30평, 요사 : 30평
- 시설불(법당, 주방 일체 포함)
- 보증금 3천만원(월세 6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2)925-3747
017)246-6531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화양리 4거리
- 크기 : 23평 방 1, 거실 겸 주방 법당, 욕실
- 시설일체, 몸만 들어가도 됨
- 가액: 보증금 800만원 월세 55만원
시설비 1200만원(조정가능)

011)251-5287
02)461-6091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덕산 옆
-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30평(목조 새건축)단청완료
- 대지 : 640평
- 70년 전통의 틀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포교당(급)안내

- 위치: 강동구 길2동 아파트 주택 큰길, 교통편리함
- 평수: 40평 3층 삼존(탱화 고급 대형)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5만원
시설비 2500만원 합 3500만원

011)298-2030

역학 수강생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한국동 한국일보맞은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사찰(토굴)안내

- 위 치 : 전북 남원군 인월면 소재
- 부 지 : 약 400평
- 토 굴 : 25평(목재, 황토) 법당터 200평
- 가 액 : 9천만원
- 특 징 : 조용한 산시마을로(홍부마을) 공부할 스님과 기도정진할 장소로 좋습니다.

- 위 치 : 경남 김해시 소재(장유)
- 부 지 : 140평(종교용지)
- 법 당 : 30평(2층), 요 사 : 90평(1, 2층)
- 가 액 : 2억 5천만원
- 특 징 :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로 건축비만 2억 5천만원이 소요된 토굴로 입주하지 않는 새건물 임.

▷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됩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천시 원미구청 옆 5분거리 4층 건물 중 2층 35평
- 법당, 주방, 주지실, 상담실, 화장실별도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32)652-9384
011)729-601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해 최고 요지
- 법당 삼존불 지장 산신 용왕 지장소불 108불 영가단 후불 흑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 3층 50평 방 3개
- 주방 사워실 주차장 완비
- 가액 전세 3000만원에 월 45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017)556-5691
055)336-5691

사찰 및 전세안내

- 위치 : 경남
- 부지 : 2000평
- 법당 가건물 : 20평
- 요사 : 45평
- 가액 : 2억
전세 3천만원

016)868-5517

포교당안내

- 위치: 구리 남양주(부영APT앞)
- 건평 60평
- 시설물 : 법당 35평, 방2개, 사무실1개, 공양간 1개, 욕실1개, 화장실 2개
- 2층건물의 2층 전체 사용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31)555-4062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2, 6호선 신당역)

사찰 (부지) 안내

- 진주 사천시 사천운동장에서 차로 5분거리 굴법당 포함 약600평 경치좋음 일금 3억 2천만원
- 진주 사천시 2000평 중 종교부지 500평 허가됨 일금 평당 4만원
- 마산시 진동 도로변 절뒤편은 암석으로 조성되어 있음

- 경남 고성 부지 500평 대웅전 (단청 및 목조 완성) 도로변, 아파트 옆 일금 1억 9천만원
- 경주시 감포읍 75평 건물 2동 스님기도처 및 쉬는 곳으로 안성마춤 일금 4천 만원
-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통합병원 앞 산자락에 무허가촌 약 120평, 9평 법당 콘테이너 1개 일금 4500만원

※ 위 물건들에 대하여 인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양도 · 양수 전문 011-836-2502 / 시티공인중개사 051)624-888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전철역 부근
- 건물: 4층 70평 및 옥상사용
- 시설 완벽 현재 포교당 운영중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7)847-0408

사찰(급)안내

- 위치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휘히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약 3000평(준농림지) 중
- 법당 27평, 요사채 약 50평(스라브)
- 주지실 12평, 삼성각 16평(목조)
- 가액 3억 7천만원

※ 복지시설로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 임
대형차량 진입 됨(주차장 약 200평)

017)595- 958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왜관 시내 3층건물 내 2층 70평
- 법당, 삼존불, 지장소불, 108불, 후불 산중, 칠성, 산신탱화
- 주지실, 상담실 해우소 2, 공양간 전 평수 전기판넬시공 에어컨 완비
- 가액 보증금 천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약간

※ 같이 운영하실 스님도 연락 요망 (철학가능스님)

054)973-4118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옥천 옥광리
- 실평수 100평 사용평수 100평 합 200평
- 법당 20평반, 산신각 3평반, 돌탱화
- 요사채 10평 1동, 11평 1동, 팁,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비보자니불
- 인수품 약 2천만원 동내 270호
- 교통편 정류장에서 5분거리
- 상수도 지하수 2가지
- 가액 9천 8백만원

011)9405-8186
043)733-8186~7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시내
- 대 지 : 170평
- 법 당 : 50평
- 요 사 : 90평
- 가 액 : 9억

- 위 치 : 수색근교
- 대 지 : 300평(도지)
- 법 당 : 15평
- 요 사 : 2동 45평
- 가 액 : 3억(전세가능)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남 부근
- 대지 : 600평
- 요사채 : 110평
- 대웅전 : 25평
- 가액 : 14억

- 위치 : 충남온양
- 대지 : 650평
- 요사채 : 70평
- 대웅전 : 40평
- 가액 : 2억 4천

- 위치 : 경북 예천 군청 옆
- 대지 : 100평
- 요사채 : 15평
- 대웅전 : 13평
- 산신각 : 10평
- 가액 : 1억 1천

011)9820-0112, 041)554-0112 기와공장 박대리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 부지 : 900평 중 대지 200평
- 임법당 : 건물 25평
- 가액 : 8,500만원
(답사 후 절충)

016)9880-5517
054)432-7111

사찰안내

- 의치 : 수락산 당고개 전철역 500m
- 평수 : 300평, 법당 30평
- 요사 : 20평, 나한전 30평(노천)
- 약수 2개, 주차장 완비
- 가액 : 3억 5천

011)9997-9932
02)952-7220

별장 겸 토굴 안내

- 그림같은 별장
- 관세음보살이 출현한다는 남해 관음포 최고명당에 위치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대지 500평 최상급 조경
- 현대식 건물 30평의 가정주택
- 가액 1억 5천만원
- 부동산 사절

011)841-993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완장리 선유동 계곡 옆
- 대지 : 80평 황토집
- 금액 : 1천 3백만원

011)491-7138

新지리풍수학 저자직강

풍 강좌 감정 상담 수

www.poongsoo.net
전국 유명 혈지 상담(陽宅, 陰宅)
※강좌 - 수요일 : 주간반 3시 ~ 5시, 야간반 7시 ~ 9시

한국지리풍수연구원 02)762-3330

易·女 수강생 모집

1. 교육기간 : 3개월 속성반(약간명)
교육 후 법사증, 포교사증, 자격증 부여함
2. 교육내용 : ① 불교 교리학
② 조석예불, 의식교육등 학장스님 직접 지도함
※ 사찰 포교원에서 숙식이며 실무 교육 지도함
※ 현재 접수 중 (승려기초 교육저)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02)2201-0796 · 019)9108-0909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천시 소사 전철역 앞
- 평수 : 50평, 방2개, 사무실 1개 옥상사용.가능
※ 법당 시설 최고
- 보증금 : 1500만원 월 80만원
- 권리금 : 가격절충

011)9599-9468

사찰안내(법천사)

- 위치 : 경남 함양 안의면 (답) 3043평 (임야) 310평
- 목조기와기붕사찰 130㎡
- 철근슬래브지붕주택 49㎡
- 목조휴게실, 가추 87㎡
- 대법당 170㎡

017)575-225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산청,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천평, 군유지 밤산 약 5정보
- 건물 : 신축법당 30평 요사체 2동 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봉 안대 최고명당 비구니스님 선원자리 최적
- 가액 : 2억 7천만원

016)836-1329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 대 지 : 총 159평, 법 당 : 25평
- 요사채 : 50평(실평수 60평)
- 교통편리, 주차 20대이상 가능
- 가 액 : 6억 5천만원

011)9073-1560

고(古)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 방향 바꿈, 건물 멀리 옮김,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 곳 교체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대표 : 姜忠 (주)고도건축
대구시 동구 가산동 389-2

053)964-0858 · 011)804-1748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주택지역
- 법당 : 삼존불, 지장보살, 산신용궁, 신중후불탱화
- 건물 2층 중 1층
- 법당 : 40평, 주방 겸 거실
- 화장실, 공양간, 샤워장, 큰방 1개
- 전세 : 3700만원, 시설비 : 천만원

011)9813-7622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4층건물 모두 사용
- 건평 : 250평, 대지 : 157평
- 가액 : 3억9천5백 (융자 3억 포함)

055)385-0065
011)570-335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최고요지 방이동
- 법당 : 3층 대로변 전관
- 가액 : 2000만원, 월 135만원
- 시설비 : 9,500만원(상담)
상가주택, 불교 · 무교 의식가능

011)9262-7011

남 활법사·지부장모집 여

교육기간
- 정규반 - 16주(1주 3시간)총 48시간 - 속성반 - 4박 5일(1일 8시간) 총40시간
교육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협회의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숙식제공(단1명이라도 교육함)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 마사지교육 4. 기공술 6. 운동회복법(저항운동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 한번회원이 되면 평생회원이 되며 3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안마(추나)자격 취득 : 12월 10일 출발 7박 8일간. (현재 접수 중)
※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서 우송해드립니다.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단수원 054)855-6461 0212212-8815 011)522-1122
http://www.hwalbup.or.kr E-mail:woon57@yahoo.co.kr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천시 소사 전철역 앞
- 평수 : 50평, 방2개, 사무실 1개 옥상사용.가능
※ 법당 시설 최고
- 보증금 : 1500만원 월 80만원
- 권리금 : 가격절충

011)9599-9468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주택지역
- 법당 : 삼존불, 지장보살, 산신용궁, 신중후불탱화
- 건물 2층 중 1층
- 법당 : 40평, 주방 겸 거실
- 화장실, 공양간, 샤워장, 큰방 1개
- 전세 : 3700만원, 시설비 : 천만원

011)9813-7622

사찰 안내(법천사)

- 위치 : 경남 함양 안의면 (답) 3043평 (임야) 310평
- 목조기와기붕사찰 130㎡
- 철근슬래브지붕주택 49㎡
- 목조휴게실, 가추 87㎡
- 대법당 170㎡

017)575-2250

암자안내

- 위치 : 충남소재
- 대지 : 271평(좌충룡우백호)
- 특징 : 금계포란형, 지장도량
- 비구니스님 또는 법사보살님 답사요망
- 가액 : 8, 00만원

011)526-1824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탄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광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5×3) 3만원



만장사 정기법회
매월(음)초하루 법회
매월(음)18일 지장재일
매월셋째 일요일 일요법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031-448-8005 / 448-1144

여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매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100
02)3673-3886 / 011-732-6933

북한산 노적사
화엄신중기도법회 (음)매월초 1일~3일
철야정진기도 (음)매월 7일,약사재일전야
약사재일 지장불공 천도법회 (음)매월 18일
관음재일 관음불공법회 (음) 매월 24일
칭림 정각회(거사회)법회 (양)매월 둘째주 일요일
02)353-5016,354-7900

북한 형제봉 심곡암
관음굴 산신각 천일기도
2차백일기도 입제
매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봉황산 미륵암
(영통참학관)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법 회 안 내
삼각산 심우정사
초하루 법회 오전 10시
보름 법회 오전 10시
서울 종로 신영동 산4번지
02)391-1421주지 범진 합장

보현정사
도심속의 기도 사찰
매월 초하루 기도
02)583-1080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천도지장도량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남양주 보광사 태극권 주말수련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일요일
(1박2일 또는 2박3일) 모집인원 25명 내외.
031)594-1316

수도사법회안내
매월 초하루 정기 법회
요가선체조 수지침 강의
달마대사 부처佛자 그림 무료배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675
051)512-4008

소요산 중화사
인등법회기도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신신기도 매월 음력 초이흐레 오전 11시
지장기도 매월 음력 열여드레 오전 11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0
031)865-5520

북한산 용암사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 51번지
02)387-3216

복지도량 건립 사찰
불 은 사
매월 초하루 법회
복된장, 고추장 판매수익금은
전액 복지도량 건립에 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동 445
053)581-0770

소원성취기도도량
재단법인 성운사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초야기도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9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42-1
031)314-7577

지장기도도량
김포큰절 무량사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전 10시 30분
매월(음) 18일 지장재이럼회
매주 토요일 밤 11시 철야정진 법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1리 산269-16
031)989-7515

봉황산 미륵암
(영통참학관)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행자모집
(지망생 약간명)
011)9705-6880

보살님, 처사님
토굴 같이 쓰실 분
혹은 혼자 쓰실분
011)748-7604

삼각산 청련사
매월 초하루, 보름 정기 법회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1
02)379-3935, 6938
주지 윤지영 합장



출가하여 승려가
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남 · 여) 40세 이하
011-459-3282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2)2234-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영탑사
031)867-4131~2
018-370-4133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숙식제공
041)736-5700~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강원도
033)436-661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61)533-2810
061)535-28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이상 노보살님
02)917-3363(정중)

배우자를 구함
한국과 일본에서 포교원을 운영중인 포교행정이며,
명성을 포교사업을 함께할 45~52세 불심이 있는
여성분을 구하고 싶습니다
011)814-6677(운경)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경주 골굴사
054)744-1689
011-763-169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분당
031)719-0408

공양주 보살님 구함
(충주)
▷ 산세좋은 조용한 암자
043)855-7127
011-711-712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서울 은평구
02)359-731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서울 봉천동
011)9545-26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충남 천안 도인사
041)567-553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성거사
041)567-6820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수 스님 입니다.
사찰 운영권 맞겨 주십시오.
011)9859-74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정선 암자
033)378-8793~4
011)378-72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종로구 평창동 삼각산
▷아이있으신 분도 가능
02)379-8697
0 11)758-9511

사무 겸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487-8500
02)475-8600

송리산 명상문화센터입니다
산을 좋아하고 명상에
관심있는 분으로
처사 1분 보살님 1분을
모십니다
054)535-0378

북경관광 및 한방체험 방문단 모집
기간 : 6박 7일 금액 149만원 세일, 모집하실분 환영 / 수당지급
게이트관광 02)465-2577

사찰 종무실 직원 구함 북한산 노적사
남녀 제한없이 40세 미만, 사찰내 숙식가능자
컴퓨터 경리 사무 등이 가능하고, 사찰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분
문의 주 간 : 02)353-4924, 011-9734-4924, 353-5016
야 간 : 02)353-4924, 011-9734-4924
노적사에서 행자(스님되실 분 40세 이하)도 모집합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 비구니
032)435-0478

부처님과 함께할
동반자를 찾습니다
저는 비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불사를
하기위하여 경남의 암야행 매입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불사에 뜻이 계신불자님들이나
후원자를 찾고있습니다
041)542-4594 수우합장

저의 모든 능력을 드립니다.
불교승려이며 역학 및 불교의식에
능하고 38세의비구스님으로
모든 것을 마음만 맞으면
남은 인생 무료로 드립니다.
011)9391-6987

연화세계 혜인큰스님
점안식 초청 법회
강력 12월 15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585-5108
011)390-0108

법당 사무원 보살님
구합니다
055)633-2178

한국불교범음회 학인모집
초급,중급,고급
매주 수,목
(오후 5시-7시)
051)554-1518



(사)한국여성불교연합
사무실 이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9번지
상경러리 4층 401호
사무실 내 연꽃교육장 201석, 연중개방
02)738-5586/5568

마야문화원 불교수행학교 안내
첫째주 수요일 : 불교교리 및 경전
둘째, 넷째주 수요일 : 정토선 염불 정진
셋째주 수요일 : 절수행 강좌 / 청견스님
문의 02)722-1050

사륜중고차 전문
▷전무 : 심상팔
문의 상담 받습니다.
011-272-7643

비구니 학인입니다.
초하루, 지장재일에
기도해 드립니다.
016-9336-2210

사주 오행 쏙뜸
냉증, 만성질환자
퇴직자 부업 상담
031)447-8090
안양 만안구청 / 영학역 앞

대한불교조계종
도솔산도피안사
도피안사 파라미타수행원
(하계, 동계수련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031)676-8700~2

김두식 · 김기연
저희 두 사람 결혼합니다
· 일 시 : 2002년 12월 8일(음력 11월 5일) 일요일 오후 1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상록원 3층 (3호선 동대입구역 6번출구)

노인요양원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031)759-5320

비법을 전수합니다
정확한 사상체질 판별법
놀라운 치료효과늬 사암침법
054)552-8544



승복 및 개량한복 맞춤 판매
가사, 장삼, 승복, 신도복, 개량한복 일체
각종생활 도자기도 있습니다
아 라 나
부산시 부전동 부전지하상가 F6호
051)818-8063

한 국 목 탄 연 구 소
기(氣) 에너지의 증폭됨을 알 수 있는
고강도 숯으로 만든 숯 목걸이
전신의 노폐물과 수독을 배출하는
대나무수액시트
02)325-0300

쑥담배 BULE (블루)
쑥은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식물입니다. 발명: 대한불교 건강복지회
대 표 청청 고운맘
(주)황금산트레이드
02)663-9229

낙화 (민속촌내)
세계 유일의 향나무 명함 제작 기업
주문 수량에 맞게 제작해 드립니다. 서슴없이 연락주십시오
011-262-4371

오래된 해소 천식에
효과좋은 토종약초 있습니다
▷ 약사여래포교원
043)645-7604
011-748-7604
011-485-7604

누 리 공 방
불단 닫집(천궁) 법상 경탁 등 전문공방입니다.
박연호 합장
011)703-9130

벼 락 맞 은 벽 조 목 염 주
스님께 염주를 보시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업보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진다하여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돌에 지니거나 염주 단주 인감도장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성취, 시험합격, 결혼성혼, 부부화합, 사업번창 건강회복, 매매, 사고예방, 취업,
신규사업등 신비한 영험을 체험해 보십시요
주문전화 : 033)643-5599 / H.P 018-236-5589

동성불교사
개금 천불 범종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031)575-2532
FAX: 031)575-2647
자택 : 031)563-8733
031)563-8771
H · P : 011)255-3286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송강기획(주)
불교음반전문유통업체
02)745-6015

삼환식물성양초
특 징
그을음이 없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
양초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없다
031)766-0242~3391



나우하우징
사찰건축, 실내인테리어,
전원주택, 리모델링 등
종합건축 전문 기업
02)596-3232

MoMo
토탈 인테리어 디자인
1544-1088

출판, 불교기획
연 중
불서기획, 출판 정성껏
대행해 드립니다
019-696-0701

붓다 예술원
단청, 탱화, 개금
대표작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일주문, 종각 단청
곡성 태안사 대웅전, 극락전,
천불전 단청
대구 염불선원 대웅전 단청 이외
130여 사찰 단청 및 탱화, 개금 시공
30년의 전통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불사를 임하겠습니다
원적암 혜원(스님)합장
011-509-0124

선간
四 柱
格局用神 격국용신
總說捷徑 총설첩경
通變話術 통변화술
(前編, 後編) 전편, 후편
사주의 격국용신과 통변술은
초보자리도 알수 있도록 총정리하여
역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著者 李恩周
靑雲易學院
02)723-7449

A+TOUR 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상품 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불교성지순례
▷ 국/내외 여행
▷ 할인항공권/여권/비자
▷ 카나다 유학/어학연수/영어캠프
▷ 투어디자이너 및 영업사원모집
(주)에이플러스여행사 02)735-8844

목초수액시트
잠자는동안 발바닥에 붙어
온몸을 상쾌하게!!
판매원 : 가자라이프
02)5454-010

기와지붕시공전문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덕신기와
011-302-7802

교회 13곳, 성당 2곳, 전체 인구 중 90% 가량이 기독교 신자인 곳. 군 법당 흑룡사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백령도에 효행수련원 연화정사(주지 지명)가 건립된다.

남한 최 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천연기념물인 사곶 천연비행장(391호), 콩돌 해안(392호), 감람암포획 현무암(393호) 등 자연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곳으로 특히 효녀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진 '인당수'가 있는 곳이다.

효녀 심청의 얼·남북 화해 일깨워

1천일 기도입재…개신교 반대 거세



◇백령도 연화정사 건립기원 1천일기도에 입재한 스님과 불자들.

백령도에 효행수련원 연화정사 건립

내년 초파일 해수관음상 봉안, 법당·연지 조성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지는 법당 대지 184평 등 전체 14,420평. 여기에 내년 초파일 10m 높이의 해수관음상 봉안을 시작으로 법당과 수련원, 연지(蓮池) 등을 조성한다.

이 곳에 도량 건립을 위해 주지스님의 도반인 상범 스님은 기도법사를 자청, 15일 1000일 관음기도에 들어갔다. 회향일은 2005년 8월 10일.

연화정사 효행수련원은 청소년들에게 우리 효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전승시키기 위해 건립된다.

또 수련원이 완공되면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남북통일의 주역이 될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화정사 주지 지명스님이 백령도에 사찰을 건립할 계획을 세운 것은 5년 전. 인천 능인사 주지 소임을 맡던 중 백령도를 들르면서 시작됐다. 심청전 설화가 나오는 사지(史地)가 있고, 절골이라는 지명도 있었으나, 사지가 수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다. 지명 스님은 효녀 심청의 이야기에 나오는 효 사상과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일깨우기 위한 수련전문 사찰을 세우기로 발심했다.

이 같은 계획을 달성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문제와 개신교의 사찰건립 반대운동. 개신교계는 현재 백령도를 한반도 최초의 복음의 땅이라 주장하며, 사찰건립 절대반대 등의 플래카드를 시내 곳곳에 걸어놓고 있다. 스님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적극적으로 사찰건립반대의 움직임을 희석화시킬 계획이다.

지명스님은 "남북간 협력과 화해의 시대에 백령도에 효행수련원 연화정사가 건립되면 분단 민족이 하나됨을 절감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뜻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032) 885-9711

백령도=남동우 기자

간다라유적 발굴조사 길 열려

아프간, 불교문화재 복원등 한국협조 요청

불교미술의 본산지인 아프간 간다라 불교유적을 발굴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관광부는 21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아프간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쟁으로 파괴된 아프간 불교문화재 복원과 유적 발굴조사에 한국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라힌 아프간 문화정보부 장관이 박종순 아프간 주재 한국 대사에게 요청한 내용은 △수도 카불 시 인근 불교 문화재 복원 비용 10만 달러(한화 약 1억2천만 원) 지원 △현지 유적 발굴 조사 참여 △전문가 파견 현지 인력 양성 등 세 가지이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우리 학계가 이미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몽골과 러시아 아무르강 선사유적 발굴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어려움은 없다"며 "다만 예산이나 인력, 현지 사전 조사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의 의견을 물어 이번 주쯤 최종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무의탁노인 3백명 초대 밀양 용궁사, 17일

무의탁 노인 300여명을 초청, 흥겨운 한마당 놀이가 펼쳐진 17일의 밀양 용궁사(주지 정무) 도량에는 가을 햇살이 포근했다.

사보 〈초심〉 창간 2주년을 기념하며 가진 이웃을 위한 한마당 공연에는 밀양 인근의 외로운 노인들이 초청되어 흥겨운 한때를 보냈다. 이상조 밀양시장, 전 통도사 총무국장 중선스님을 비롯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법요식에서 이어 양산보광고 악대부의 연주와 홍제중학교 사물놀이, 불교사명어린이집 재롱잔치, 경기민요보존회 경북지회의 민요, 백야예술단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천미희 기자

아도화상 좌상 제막식

구미 도리사, 법회 봉행

구미 도리사(주지 법등)는 신라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의 동상 제막식을 17일 봉행했다.

도리사 경내 옛 반야정사 자리에 건립된 아도화상 동상은 2m 25cm 높이의 좌상으로 불자들의 성금 모금 및 정부 지원금 등으로 세워졌다.

녹원스님은 법문에서 "아도스님의 성상 봉안은 모든 중생들을 위해 불법 전파의 원력을 세운 아도스님처럼 남을 위해 원력과 신심을 발휘하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육법공양, 종사영반, 법문,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도원스님, 직지사 회주 녹원스님, 경상북도 엄이웅 정무부지사, 김관용 구미시장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했다.

박원구기자


◇신라에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 좌상.

무보시 49천도재 회향 대한불교법연원 19일

대한불교 법연원은 19일 부산 시작체육관에서 제6회 국운융창, 평화통일기원 무보시 49천도대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10월 2일 서울 장충 체육관에서 입재 법회를 가진 무보시 49 천도대재 회향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대각사 주지 홍교스님, 김진재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스님들과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전국에서 참석한 1만여 불자들이 사직체육관을 가득 채운 가운데 식전행사인 불교텔레비전 염불공양모임의 염불공양으로 시작됐다.

천미희 기자

30일간 화엄산림법회 12월4~1월2일

통도사, 대덕스님 초청 화엄경 법문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2월 4일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 30일 동안 대덕 스님들이 설하는 화엄경 법문으로 화장장엄세계를 펼쳐 보인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30년 전통을 이어오며 모든 경전의 근본이 되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일깨워온 귀중한 법석. 12월 4일 오전 10시 통도사 부방장 초우스님의 입재 법문으로 시작되는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30일 동안 30분의 제방 대덕스님이 초빙돼 영남은 물론 전국의 불자들에게 화엄경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설하게 된다.

지안스님, 무비스님, 통광스님, 덕민스님, 자광스님, 종범스님 등의 법사스님에 의해 세주묘엄품, 여래현상품, 십회향품, 보현행원품, 아승지품, 입법계품 등의 설해지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선망부모와 일체 영가 천도를 위한 천도재도 봉행된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은 "화엄경의 가르침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보리심을 발해서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춘 불제자로 거듭나는 법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한마음선원 강남지부 회원들이 연천 호국 범음사 수계법회에 참석한 장병들을 위해 주방에서 공양을 준비하고 있다.

범음사 장병 500명 수계

한마음선원 강남지부 지원

16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호국 범음사.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범음사는 오전부터 어수선하다. 오후 2시에 예정된 장병 500여명 수계식 때문.

밖에서 차 소리가 나고 한 무리의 '아줌마 부대'가 등장했다. 한마음선원 강남지부 변복희, 신남선, 박경선, 민춘자, 김봉자, 김점희 회원. 스님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곤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 자기 집 주방일 하듯 익숙해 보인다.

회원들은 먼저 오늘 수계식 때 장병들에게 나눠줄 햄버거와 음료수, 과일이 든 봉지를 싼다. '날씨가 찬데 햄버거가 딱딱하지는 않을까?' '한창 먹을 나인데 양이 너무 작은 건 아닌가'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마디씩 한다.

음식 봉지를 법당 한쪽에 쌓아둔 뒤 회원들 반은 근처 텃밭으로, 반은 주방으로 이동한다.

오후 2시 군용 트럭들이 속속 도착하고 6군단 승진부대 장병들이 범음사 앞마당에 줄지어 선다. 법당이 협소해 자갈마당에 그냥 주저앉는 장병들을 보고 회원들은 안쓰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다.

오후 3시 경 장병 537명과 신도 50여명의 수계식이 끝났다. 5년 전 군종병 아들을 둔 회원으로부터 군포교 현실을 듣고 무작정 포교 일선에 뛰어든 한마음선원 강남지부 회원들은 동네별로 나누어 한달에 한번씩 간식거리와 지원금을 가지고 군 법당을 방문하고 있지만 늘 아쉬운 마음뿐이다.

문제를 일으키던 사병이 법당에 드나들면서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제일 보람된다는 회원들. 척박한 군 포교 현실이지만 이들이 있어 아직 가능성이 있다. 011-9755-0912

연천=남동우 기자

부산불교복지협 산하기관 5개 프로그램

내년 사회복지 지원대상 선정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의 산하기관 5곳이 최근 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에 선정됐다.

금정구복지관(관장 정여)는 한부모 가정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아동,한부모 통합지원프로그램으로 5백만원, 공창복지관(관장 명현)은 발달장애아 주간보호센터 '나란히, 나란히' 프로그램으로 8백만원, 두송복지관(관장 지현)은 한부모가정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소리하나'로 3백5십여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과장 범산)은 정신지체장애아동의 성장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교육보호 8백5십만원,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은 지역사회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저소득 만성정신장애인 사회재활 프로그램 및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3백만원.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이춘성 사무국장은 "매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원효불학원 현판식이 18일 경주 복원사에서 개최됐다.

원효종 최초 승가대학 '원효불학원'

경주 복원사 18일 현판식 개최

원효종 최초의 승가대학 '원효불학원'이 내년 3월 정식 개원한다.

경주 복원사(주지 영운)는 18일 경내에서 원효불학원 현판식을 개최했다. 원효불학원은 원효종의 전문 승려양성교육기관으로 초발심자경문, 불교학, 율학, 기신론, 원효학 등을 개설한다.

원효종 종정 법홍 스님은 법어에서 "동방의 성인이신 원효성사의 만선동귀와 화쟁이념을 바탕으로 성사의 무애사상과 대승보살행원을 함께 배우고 실천해 불국토 건설에 적극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화사 승가대학 강주 해월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원구 기자

고창 무송리 석불좌상등 4점 전북도문화재 지정

고창군내 불교 조각 4점이 문화재로 지정됐다.

전북 고창군은 21일 "성송면 무송리 석불좌상을 비롯, 고수면 문수사 석조승상, 대산면 용화사 미륵불상, 성송면 선각 석불좌상 등이 도 유형문화재 등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무송리 석불좌상은 높이 185cm 폭 120cm 두께 20cm 정도의 결가부좌상이고 고수면 문수사 석조승상은 총길이 167cm 머리길이 53cm 몸체 넓이 55cm 정도의 스님 형상을 한 문수보살상이다. 또한 용화사 미륵불상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185cm의 입상이고 성송면 암치마을 선각 석불좌상은 높이 250cm 폭 110cm 두께 20cm의 타원형 암석에 음각돼 있다.

강유신기자

불법인연 감사…절터보시

삼척 조개사 박복녀·손봉례 보살

"외진 곳이라 절이 없어 불법인연을 맺지 못하다가 해타스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해 조금 갖고 있는 땅을 사찰부지로 보시했습니다."

창건 3년째인 삼척 조개사의 큰보살 · 작은 보살로 불리는 박복녀(70 일심화), 손봉례(64 · 연화심) 보살. 조개사 아랫마을에서 한 집 건너 살고 있는 두 보살은 다른 신도의 모범이 되는 불자들이다. 이 곳으로 시집은 이후 친자매처럼 지내온 두 보살은 남다른 우애와 보시행으로 살아왔다.

동네 사람들은 큰 보살과 작은 보살을 '콤비'라고 부른다. 큰 보살이 안보이면 작은 보살 집으로 가고, 작은 보살이 없으면 큰 보살 집으로 찾아간다. 40년을 누구보다 아끼며 살아온 두 보살의 별명 '콤비' 속에 담긴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작은 보살로 불리는 손봉례 보살은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아왔다. 남편 손에 이끌려 충북 영동에서 시집온 손 보살. 2명의 시누이가 모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뿐더러 대 소변도 받아내야 할 심각한 장애였다. 온 동네 사람들이 손 보살에게 도망가라고, 그 집에서는 못 산다고 충고를 했었다. 하지만 단 한사람, 박 보살만은 그를 달랬다. 손 보살은 그런 큰 보살을 언니처럼 의지하며 따랐다.

손 보살이 장애인 아이를 입양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들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손 보살은 그런 아이를 업고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전남 고흥에 위치한 소록도까지 14번을 찾아가기까지 했다. "어떻게 그 고생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며 긴 한숨을 내쉬는 손 보살. 주름진 이마와 손등에서 고생을 달고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나타났다. 얼마 전 그 아이가 수능 시험을 봤다.

"몸이 불편한 아들녀석 장가가는 모습을 보고싶다고 부처님 앞에 매일 기도합니다. 장애인 아들을 둔 엄마의 솔직한 심경입니다."

이런 작은 보살을 친언니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이가 박복녀 보살이다. 박 보살은 조개사 불사중에는 매일 절에 올라와 인부들 공양을 지어주고 손수 시멘트와 모래를 등에 져 날랐다. 손 보살이 황토로 벽을 바르면 박 보살은 황토를 물에 섞어 이겨 가져다 주었다.

박 보살은 절 아래 밭을 일구며 채소를 길러 조개사에 오는 불자들에게 나눠주는 고운 마음씨를 지녔다. 가진 재산이 없어 많이 못 내놓은 게 못내 마음에 걸린단다.


◇박복녀(왼쪽 첫번째) · 손봉례(왼쪽 두번째) 보살이 신도들과 장독을 옮기고 있다.

우리 절 우리 신도

어려움 함께 나누는 삶 살고싶어

추천의 말

해타스님 조개사 주지



박복녀 손봉례 보살은 순박한 어촌 인심을 지닌 불자들입니다. 불교교리는 잘 모르지만 착한 일만 하는 두 보살은 이 시대 진정한 보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시누이를 시집 온 이후 돌봐온 것도 모자라 장애인 아이를 입양해 20년 넘게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누가 보살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을 지을때는 시멘트와 목재, 벽돌을 직접 날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보살은 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두 보살의 보시행은 모든 불자들이 배워야 할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조개사 주지 해타스님은 법회 때마다 불자의 삶은 두 보살 같아야 한다고 법문을 한다. 두 보살은 스님의 칭찬을 채찍으로 삼는다.

삼척=박봉영 기자



◇천수만의 오리류는 간월도와 부남호 지역에서 많이 관찰된다. 헤엄치고 있는 쇠오리.

◇천수만 새들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큰기러기.

◇우리나라에 오는 도요새중 가장 큰 마도요.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8) 서산 천수만 간월암

글 · 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이호신 作 간월암(29×63cm) 2002년

80여종의 철새들 겨울 보금자리

간월도 언덕 곰솔숲 북녘선 보기 힘들어

만공·춘성·효봉·금오·성철 스님 수행한 곳

전세계의 가창오리 90%가 한국서 월동

천수만은 충남 홍성땅과 안면도 사이에 있는 서해의 좁고 긴 만이다. 그 가운데 반도처럼 불쑥 나온 서산 부석면 간월마을을 사이에 두고 1995년에 좌우로 길게 둑방을 쌓고 간척을 해 2개의 큰 담수호를 만들어냈다. 간월호와 부남호가 그것이다. 간월도는 두 호수를 잇는 제방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간월도는 해방 전까지 안동 김씨네들이 차지하고 있다가 1942년 만공선사가 간월암에서 천일기도 끝에 다시 되찾았다고 한다.

천수만이 간척되기 전에는 창리포구에서 배를 타고서야 간월도로 건너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간월도를 잇는 방파제가 생기면서 육지와 이어져있다. 간월도 언덕배기에 곰솔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곰솔은 일반 소나무보다 잎이 크고 억세다. 또, 줄기가 검다고 해서 흑송이라고도 하고, 해안과 섬지방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서 해송이라고도 한다. 일반 소나무의 겨울눈은 붉은색을 띄지만, 곰솔의 겨울눈은 흰색이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된다. 곰솔은 해마다 한 층의 가지를 내는 단절성 소나무이기 때문에 가지만 보고서도 나이를 알 수 있다. 소나무보다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북부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소나무다.

간월암은 간월도에서 다시 30미터 가량 떨어진 거대한 바위섬에 홀로 앉아 있다. 뿌리 없는 전설에 신라 원효가 처음 세웠다고 전하지만, 고려 말 무학대사가 바다에 뜬 달을 보고 홀연히 깨쳤다 하여 간월암(看月庵)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건했다는 전설이 더 널리 회자되고 있다. 만공 이후, 경봉 · 춘성 · 효봉 · 금오 · 성철 등 한국 현대불교의 기라성같은 선각자들이 수행의 발자취를 남긴 곳이다.

간월암의 겨울생태는 역시 철새가 중심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 2001년 겨울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93만여 마리가 우리나라를 찾아왔다고 한다. 그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매년 천수만을 찾아온다. 종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80종 안팎의 새들이 월동하고 있다. 겨울철새들이 많이 찾는 까닭은 천수만의 간척으로 전에 없던 농경지와 민물호수가 생기면서 새들의 먹잇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수만 주변에 흩어져 있는 '황새기쪽부리' '오리골' '새골' '날새' '금학(禽鶴)' 등등의 지명들을 보면 예전에도 새들이 적잖이 날아들었던 모양이다. 부석면의 진산이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닮았다는 '도비산(鳥飛山)'인 것을 보면 그럴 개연성이 더욱 높아진다.

천수만 탐조는 주로 세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간월호와 부남호 지역, 두 담수호 주변의 농경지역, 방조제 바깥 바다쪽 갯벌지역 등 세 곳이다. 간월암은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천수만 하면 기러기류와 오리류를 먼저 꼽는다. 기러기들은 농경지를 삶터로 하고, 오리류들은 두 호수와 바다를 삶터로 하고 있다. 천수만에 기러기가 찾아오는 시기는 대개 추수가 끝나고 쌀쌀한 찬바람이 일기 시작할 무렵이다. 이곳의 기러기 종류는 큰기러기가 대종을 이룬다. 시베리아 동부 캄차카 부근에서 날아오는 큰기러기는 현재 환경부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부리는 검고 깃털은 어두운 갈색 얼룩무늬다. 검은 부리 끝에 주황색 띠가 특징적이다. 먹이는 주로 곡식, 염매 등 식물성이다. 천수만 들머리인 궁리마을 앞쪽 먼 논들과 간월호 방조제가 끝나는 지역의 논들에 많이 모여 있다. 간월암 들머리의 무논지역에도 1천여 마리가 내려앉는다. 개중에는 쇠기러기 가족들도 수백마리 끼어있다. 옛 사람들은 황새, 백로, 두루미 등을 두루뭉실하게 '학(鶴)'이라고 불렀다. 옛 사람들은 학을 소나무와 거북 등과 함께 천년을 산다는 십장생(十長生)으로 쳤다. 황새는 천수만의 학 가운데 단연 진객(珍客)으로 꼽힌다.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는 시베리아 아무르지역에서 해마다 몇 마리가 날아와 4월까지 이곳에 머물다 간다. 황새는 흰 몸통에 날개 끝만이 검은 색으로 되어 있다. 백로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서있을 때는 두루미처럼 꼬리부분이 검어서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천수만의 오리류는 간월암 지역과 부남호 지역에서 많이 관찰된다. 가창오리 청둥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넓적부리 물닭 쇠오리 순으로 많다. 새들의 짝짓기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큰 패턴은 짝짓기와 번식기간 동안만 부부로 있다가 새끼가 다 자라 둥지를 떠나게 되면, 부부관계가 해산되는 게 보통이다. 청둥오리도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 수컷은 바람등이라서 짝짓기때만 암컷에 열을 올릴 뿐, 암컷이 알을 낳아 부화하는 데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제 새끼가 태어나도 무관심한 편이라고 한다.

천수만의 실세는 청둥오리이다. 청둥오리는 전국 어딜 가나 흔하게 관찰된다. 때문에 겨울 철새 가운데 가장 눈에 익고 친숙한 철새이다. 청둥오리 암수는 노란색 부리만 닮았을 뿐, 색깔이 크게 다르다. 수컷이 암컷보다 더 화려하다. 뺨에는 녹색 광택을 띄고, 목에는 하얀 목도리를 둘렀다. 고니는 흰 밍크코트를 걸친 듯한 눈부신 몸과 부츠처럼 검은 다리가 인상적이다. 덩치는 크지만 성질이 온순해서 백조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는 새다. 천수만의 가창오리는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으로 약 30만 마리가 있는데, 그 중 약 90%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창오리는 한곳에만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한다. 10월 중순부터 천수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가창오리는 12월 초순경 전남 해남지역으로 이동해서 한달간 겨울을 난 뒤 금강유역으로 올라와 한달간 머물다가 자기 고향인 시베리아로 북상한다. 한번씩 떼를 지어 물위로 솟아오를 때면 주위가 어두워질 정도로 하늘을 뒤덮는다. 섭금류란 도요새와 물떼새처럼 물가를 걸어다니는 새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섭금류들은 거의 대부분 나그네새들인데, 겨울에 보이는 섭금류들은 남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예 겨울을 이곳에서 날 작정으로 주저앉은 녀석들이다. 간월암 주변 갯벌에서도 쉽게 관찰된다. 도요새와 물떼새는 '뭉다리라는 점에서는 이웃사촌이지만, 사냥법에서는 좀 다르다. 부리가 긴 도요새들은 부리를 갯벌 속에 집어넣어 먹이를 찾지만, 물떼새는 먹이가 밖으로 나오면 잽싸게 달려가서 사냥을 한다. 마도요는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도요새 중에서 가장 큰 종으로, 암수의 모양이 같다. 아래로 굽은 긴 부리, 연한 회갈색에 다갈색 작은 점이 박혀있는 몸, 청색이 도는 회색 다리가 인상적이다. 궁둥이 부분은 흰색이다. 부리의 길이가 15센티나 된다. 긴부리를 개펄 속에 넣고 어류, 패류, 갑각류, 수서곤충류 등을 잡아먹는다.



◇간월도 언덕배기의 곰솔숲. 해송이라고도 한다.

갈매기 종류로는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붉은부리갈매기가 가장 많이 눈에 띄고, 그 다음으로 재갈매기와 괭이갈매기 순이다. 더러 검은머리갈매기도 간월암 주변에서 눈에 띈다.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도 겨울을 나는데, 개체수로는 노랑부리저어새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저어새는 몸색깔이나 생김새가 백로와 비슷하나, 부리가 좁더 길고 끝이 넓어 주걱같이 생겼다. 갯벌이나 해안의 얕은곳에서 부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먹이를 찾는 모습에서 저어새라 이름지어졌다.

천수만에는 이따금 흰꼬리수리가 나타나 잔잔한 호수를 긴장시킨다. 머리는 크고, 몸통색은 황갈색이며, 꼬리는 흰색을 띄며, 부리는 노란색이다. 흰꼬리수리가 공중에 뜨면 물위에 앉아있던 새들이 일제히 비상을 한다. 농경지에도 새들과 쥐들을 노리는 육식성 맹금류들이 자리하고 있다. 매 잿빛개구리매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새 등이 그들이다. 새들은 해당지역의 생태계의 건강상태를 가장 상징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종이다. 이곳에 맹금류들이 살고있다는 것은 생태계 피라밋의 구조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탐조를 하려면 시간 선택을 잘해야한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은 우선 새의 모양이나 색깔구분이 쉽지 않아서 탐조의 즐거움이 반감된다. 바람이 심한 날도 역시 좋지 않다. 하루 중 탐조하기에 적합한 때는 아침과 저녁 무렵이다.

■가는길 :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서산이나 홍성행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있다. 서산에서 창리 간월암 가는 버스가 수시로 있다. 승용차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홍성에서 내려 29번 국도를 타고 갈산을 지나면 간월호까지는 10여분 거리다.

한글대장경 봉안은 부다피아외환카드로...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다피아카드 신규 발급과
대장경 봉안 불사를 동시에...

부다피아외환카드로
사찰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부다피아외환카드 신규 발급 1장으로 대장경 1권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질(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0명이 가입하면 장경각(보급형)도 함께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카드사업단(02-725-1132)으로 문의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대전광역시 시범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보람 일구는 멋진 노년들

왕년 음악인들… '리듬 공양' 90여 차례

일산노인복지회관 '7인의 실버밴드'

평균 연령 70세의 실버밴드. 일산노인복지관 호수문화대학에 다니는 7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년의 삶을 이웃과 함께 리듬에 실어 울리는 음악 동호회다.



◇8일 열린 연주회에서 열연 중인 실버밴드 퍼스트 기타 지연영 할머니(왼쪽부터 첫 번째), 트럼펫 박정근(두 번째) 할아버지 등이 합주곡을 연주하고 있다. 사진=임민수 기자

전직 음악교사인 최찬균(77) 우서규(67) 할아버지, 미 8군에서 악단을 했던 조선장(76) 할아버지, 군악대 출신의 송금학(61) 박정근(76) 할아버지, 악단 단원으로 활동했던 정인섭(80) 할아버지, 한국 최초의 여성악단 창단멤버인 지연영(67) 할머니. 모두들 한 때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다. 하지만 지금, 희끗희끗한 머리칼은 그 때의 화려함과는 다른 원숙함으로 빛난다.

동호회원들 의기투합 창단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문예회관. 그동안 두아 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 제1회 '호수실버밴드 연주회'가 열리는 날이다. 이날 실버밴드의 공연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호수문화대학 학생회 단체인 '실버밴드'가 독거노인과 불우 청소년을 돕기 위해 처음으로 준비한 것이다.

연주회의 시작은 왕년의 꽃 미남(?) 박정근 할아버지의 트럼펫 독주곡 '밤 하늘의 블루스', '오빠'를 외치는 초등학생들의 환호. 적당히 나이가 쉬이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자 오렌지 빛 넥타이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일어나 어깨춤을 춘다.

미 서가수 지연영 할머니의 기타 독주도 보통 실력이 아니다. 고등학생들이 준비해 간 '지연영 언니 짱' '실버밴드 능력을 보여 주세요' '느낌 팍! 실버밴드' 등의 플랭카드를 들고 응원을 한다. 주엽공고 1학년 강현준 군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음악회라 별 기대를 않고 왔는데, 실력이 보통 아니다"라며 들뜬 기분을 감추지 않는다.

구경 왔던 박윤도(67 · 일산구) 할아버지는 "실버밴드 단원들은 이제 꽤 유명인사"라며 "늙으면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이 얼마나 못난 사고인지를 보여준다"며 뿌듯해 한다. 실버밴드가 발족한 것은 지난해 5월. 호수문화대학을 다니던 실버밴드 회원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의

"이젠 꽤 유명인사"…뿌듯

기투합했다. 이 때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모여 호흡을 맞추어 왔다.

실버밴드가 처음 공연한 것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박애원 환자 위문 공연. 실버밴드는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일산구청 시민의 날 행사 축하공연, SBS 학교문화 50년전 축하공연 등 90여 차례나 무대에 올랐다. 매달 두차례 이상의 공연을 해온 셈이다. '뜻'만 있으면 '나이'는 다음 문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포교사로서 사명감… 날마다 좋은 날"

사찰안내 자원봉사로 새 삶 이엽기 씨

군과 대기업에서 30여년간 생활하다 3년전 퇴직한 이엽기(61)씨. 사찰 가이드로 전국의 산사를 누비느라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더 바쁘다. 특히 주말에는 조계종 포교사단 3팀에 소속돼 전등사에서 사찰 안내 자원봉사를 한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포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일하다 보니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이엽기 씨의 이런 활동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던 일이다. 78년부터 90년까지 서울불교청년회(이하 서울불청)와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퇴직 후에 자신의 전공인 한국사와 발로 뛰면서 익힌 불교문화에 관한 지식과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그는 30대부터 평일에는 책으로, 주말에는 현장으로 달려가 불교문화를 익혔다.

군·대기업서 30여년 생활

"산사에 들르면 항상 그곳에 대한 자료와 사진을 모아 두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붐어나 지금도 관광객들을 안내할 때 훌륭한 교재로 쓰고 있지요."그의 이력은 남다르다. 65년부터 78년까지는 군에서 생활하다 중행으로 예편을 했고, 79년부터는 삼양사에 들어가 교육과장, 총무이사, 연수원장을 거쳐 영남 공장장을 끝으로 88년에 은퇴 했다. 이후 의류회사인 논노에서 근무하다 부드로 그만두고, 잠시 여행사 월급 사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업에 발을 들인 그는 청년시절의 꿈을 떠올렸다. 이때부터 동국대 황수영 박사, 간송미술관 최완수 실장 등 문화재의 대가들을 두루 찾아 다니며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전등사에서 관광객들에게 사찰 내력을 설명하는 이엽기씨.

"한 번은 모 여행사의 답사 프로그램에 참여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찰 안내를 맡은 가이드가 안내판에 나온 간단한 설명만 하고 그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그 다음날 여행사 사장을 찾아가 나름한 번 사찰 가이드로 써 달라고 간청을 했지요."2000년부터 3년째 답사단체에서 프리랜서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인연담이다.

사찰 여행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다. 몇 년전만 해도 한 잔 하고 올라와 경내에서 떠들고 노래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이들이 없다. 뭔가를 배우고 깨우치며 재충전을 하려고 찾아오는 이가 적지 않아 큰 보람을 느낀다. "빛나는 사회적 성공이나 화려한 명성을 남기는 일은 아니지만, 내 안의 행복을 찾으며 천년의 문화와 매일 대화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남은 여생을 사찰에서 관광객들을 맞으며 보낼 생각입니다."

김주일 기자 jeni@buddhapia.com

"72세에 현역생활… 모두 부처님 덕"

울산 모비스 오토몬스구단 이우재 코치



◇후배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다는 이 코치(사진 왼쪽)는 오늘도 연습장에서 땀을 흘린다.

84년 이후 매일 아침 108배

경기를 앞 둔 울산 모비스 오토몬스 농구단의 연습장.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 사이에 반백의 노인이 우뚝 서 있다. "그게 아니지, 여기서는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상대편 선수를 제치고 슛을 해야해. 자, 이렇게 말야." 작전을 지시하고 슛을 지도하는 이 사람은 바로 모비스 오토몬스의 이우재 코치다. 1931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올해 일흔 둘이다.

농구는 젊은 운동이다. 경기장을 뛰는 선수는 물론이거니와 경기를 주도하는 감독도 대부분 현장에서 갓 물러난 젊은 감독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프로 농구팀의 코치가 일흔을 훌쩍 넘긴 노인이라니. 그리고 그 노인이 지금 농구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니. 보통의 노인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그의 삶은 한마디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그 자체다.

그 나이에 현역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비결이 궁금했다.

"부처님께 농구 인생 마감 잘하게 해 달라고 일심으로 기도했더니 늙은이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네요." 1984년 일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코치와 부처님과의 인연은 이렇다. 당시 일본의 한 여고 농구팀을 맡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다음날 경기 때문에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그 이후 돌아가신 어머님께 참회하기 위해 매일 아침 108배 기도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고려대 재학시절 6·25 전쟁이 터지면서 선수생활이 순탄치 못했던 이 코치는 광신고 경기여고 수도여고 등의 감독을, 82년부터 99년까지 외국의 국가대표팀을 맡으며 지도자의 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일본 대

"무엇인가 남기는 선배"발원

만 말레이시아 등 외국에서 감독과 기술고문을 지내며 풍부한 지도자 경험을 쌓았고, 그만의 숫에 대한 40여가지 분석과 전략을 정립해 농구계에서는 열성파로 인정받고 있다.

"내가 한 것 만큼 언젠가는 반게 되잖아요. 노력한 것 만큼, 혹은 농구에 대해 연구한 것 만큼 언젠가는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매 경기를 마칠때 마다 철저한 반성과 분석으로 다음 경기를 준비한다. 남들 보다 한결 여유있고, 편안한 선수 지도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된다.

"후배들에게 무엇인가 남기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제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들기며 준비중인 〈농구 용어집〉과 〈농구 작전집〉 출판도 후배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년 시즌 시작 전에 출판 작업을 마무리 하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글을 쓰는 일도 그리 쉽지는 않더라구요."

선수 지도에, 경기분석에, 책 집필까지, 20대의 열정이 부럽지 않은 이 코치에게 '나이'는 삶에 대한 열정과 비례해 올라가는 한낱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 코치는 말한다. "건강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들에게 농구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평생 농구장에서 살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사람을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매일아침 108배 기도에다 청소년 농구 지도를 발원한답니다. 후후후, 너무 욕심이 과한가요?"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www.jewonet.co.kr
현대불교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희담석 稀潭石
"지병에서 벗어나 편안한 수면을 원하십니까?"

* 다양한 디자인의 희담석 돌침대와 싱글사이즈의 돌보료도 구비하여 있습니다.
희담석 돌침대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능력입니다.
희담원석 중에서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였기에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깔아도 생명에너지가 그대로 투과되므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주고 지병 등이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신집중이 잘 되는 편안한 방석을 원하십니까?"

* 방석색상: 적색, 연카키색, 살구색
희담 휴대용 방석은 수험생, 스님, 직장인, 운전자 등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분에게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켜 주는 제품입니다.
희담석은 세포의 활성화, 노폐물 배출, 노화 억제, 항균 방어력 증강, 통증 완화, 기억력과 판단력 향상, 식품의 신선도 제고, 식물 성장 촉진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제품문의
(02)3476-2335(代)
011-9230-2335
생명의 돌, 생체활성 에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우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일종으로 생명의 돌 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어떠한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물적외선 파동감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주)자원넷 JAWONET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502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릴레이 수행일기

노귀남 (下)

불교포럼 실행위원장



채워지지 않는 '나' …어둠 밝히는 통로

모든 존재의 유혹, 실천의 마음 일으켜

가려진, 어두운, 보이지 않는 것, 아니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을 잡아내는 '문학적' 심성은 결국 생명의 의미를 옹글게 하는, 인격의 완성을 지향한다. 부처님은 길을 갈 때, 혹시 발바닥에 밟혀 죽는 생명이 없는지 주의한다고 했다. 그처럼, 뭇 생명을 살리는 힘은 밟아도 죽지 않는 신통력에 있지 않았다. 존재를 향해 열려있는 마음, 이것이 문학적 심성이지 않을까 한다.

산다는 것,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 모두에 틈이 너무 많다. 아니, 내게 틈이 많은 게지… 어느 날 시장바닥에서 벌어진 일이다. 젊은 아낙네가 처음으로 남의 가게 앞에 야채 좌판을 벌렸다. 그 주위 터줏대감인 주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플라스틱 대야를 잡아채고, 좌판을 뒤엎을 기세로 젊은이를 몰아내려 했다. 상스럽고 거친 말들을 숨을 몰아쉬며 뱉어내었다. 그 여인은 작정을 하고 나온 듯했다. 떠밀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바위처럼 모욕을 견디고 있었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한 판 싸움이었다. 주인네는 그런 힘으로 지식을 공부시켰을 것이다. 젊은 아낙네는 어린 자식을 또 그렇게 키워야 할 것이다.

그 적나라한 투쟁의 삶을 어루만져 줄 어떤 것이 있는가. 착하고 악하고, 옳고 그르다는 의미가 거기에는 없었다. 다만, 나도 그것을 끝까지 보고 그 모두를 견뎌야 했다.

글 첫머리에 마음의 밭을 갈고 거두는 뭔가 있어야 한다고, 종교적 심성을, 문학적 심성을 꺼집어내서 얘기하긴 했지만, 궁극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격의 완성을 꿈꾼다지만, 기실 지금 여기서 내가 보고 겪는 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미력함인지 무능함인지, 나 자신 채워지지 않는 이것이 나를 공부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인가. 세상의 무수한 틈새들은 오히려 내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깊은 어둠에 한 줄기 빛을 주는 통로가 되어준다. 달동네 골목길에서 담배꽁초를 하나 주워서 피울까 망설이던 지게꾼 아저씨, 짧은 대화로 마주했던 노숙자, 곁에 앉아 준 것만으로 눈을 빛내던 거지아이, 스쳐지나가는 인연들이지만 떠오르곤 하는 영상, 마음속에 그들은 비록 가난에 절은 짠내는 날아가 버린 상태지만 내 인생을 건너는 신호등처럼 깜박인다. 그래서 내 삶의 조건에서 배제된 현실이 얼마나 더 많은지를 일깨워준다.

문학적 심성이 현실사회의 틈을 읽을 때와 자연의 틈을 감지할 때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자연의 틈이 주는 위안 때문에 현실사회의 각박함 속에서도 숨통이 트인다. 그것들은 또한 종교적 심성과도 다르지 않다. 종교적 지향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게 한다. 그 모두 내 마음의 밑바닥까지 출렁거려 밝히고 싶은 '실천'의 가지들이다. 내 어둠이 나도 모르게 나를 삼켜버리게 하지 않기 위해, 나는 깨어있고 싶은 것이다.

※다음 주 필자 신익찬 제일투신 준법감시인은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수행법을 체험하며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구도심을 잃지 않고 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지혜와 자비, 지상 모든 존재에게…')



◇금강지권을 한 채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을 염송하고 있는 진각종도들.

입-염송, 몸-결인, 생각-육자관

진언수행은 집착·업장 소멸 효과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에 있는 진각종 밀각심인당에는 300여 신교도(신도)들이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 정좌하고 있었다. 밀각심인당 주교 회정 대정사가 집전한 자성일(일요일) 낮 불사(법회)는 '사람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늘 큰 자비심을 품고 육바라밀을 실천해 성불하겠다'는 맹서를 담은 '교리참회'로부터 시작됐다.

이어 인연있는 사람들이 모두 해탈·제도되길 기원하는 '강도(講度)발원', 5대 서원가 낭독, 교전 강독 및 설법이 끝나자 육자진언 정근이 진행됐다. 진언행자들은 몸(손)으로는 금강지권(비로자나불 手印)을 결인하고, 입으로는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며 머리속으로는 '옴마니반메훔' 본존(本尊)을 관(觀)하는 '삼밀관행(三密觀行)' 정진에 들어갔다.

입으로만 진언을 외우는 일반적인 진언수행과 달리 수인을 맺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법을 전할 때 결인하는 것처럼, 법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설하는 것까지 포함돼 자신이 곧 법신이 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육자관은 '옴마니반메훔'의 6자를 수행자의 배꼽(비로자나불), 간(아축불), 명치(보생불), 폐(아미타불), 단전(불공성취불), 인후(금강보살)에 각각 포자(布字; 씨를 뿌리듯 심는다는 뜻)시켜 법신인 다섯 부처님과 금강보살이 자신과 하나됨을 관하는 관법이다.

특히 삼밀관행법의 핵심은 '옴마니반메훔(Om mani padme hum)' 본존에 함축되어 있다. 이 육자진언은 '온 우주(Om)에 충만한 지혜(mani)와 자비(padme)가 지상의 모든 존재(hum)에게 그대로 실현되리'는 뜻을 갖고 있다. 본래 옴(Om)은 태초 이전부터 울려오는 우주의 소리(에너지)를, 마니(mani)는 여의주(如意珠)로서 깨끗한 지혜를, 반메(padme)는 연꽃으로서 무량한 자비를 상징하며 훔(hum)은 우주의 개별적 존재 속에 담겨 있는 소리로서 우주 소리(Om)를 통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회정 대정사는 "이 진언은 수많은 세월동안 많은 수행자들이 지속적으로 체험하여 축적된 깨달음의 경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소리"라고 설명한다.

〈현우경〉 등의 경전에는 진언을 늘 간직하고 외우면 기억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항상 보리심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 온갖 집착을 여의고 업장도 소멸할 수 있다고 설한다.

생활불교와 실천불교를 강조하는 진각종의 삼밀관행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정진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수행방편이다. 실지로 진각종도들은 가정불단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참회와 진언수행을 생활화하고 있다.

심지광 신도회부회장(60·서울 일원동)은 "진언 수행을 하면 나이가 들어도 정신집중이 잘 되고 기억력과 건강이 좋아져 삶에 활력을 느끼게 된다"고 체험담을 말한다.

1953년 설립된 밀각심인당(www.milgak.or.kr)의 2천여 신교도들은 신도회 산하에 다도회, 산악회, 기우회, 축구회, 골프회, 합창단 등을 두고 다양한 신행을 펼치고 있다. 정기수련은 매주 수·일요일 오전 10~12시 및 오후 6~7시다. (02)2292-3252

김재경 기자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진각종 밀각심인당의 '삼밀관행'



밀각심인당 주교 회정 대정사

부처님과 중생, 하나임을 알아야…

"수행 많이하면 통찰의 지혜 생겨…"

"진언을 염송하면 과거, 현재, 미래 등 삼세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깁니다. 아울러 참회를 통해 업장소멸이 되기 때문에 발원도 저절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밀각심인당 주교 회정 대정사는 중생의 삼업(三業)이 부처님의 삼밀(三密)과 평등일체가 되는 '즉신성불(卽身成佛)' 즉, 현세의 이 몸 그대로 성불하기 위해 행하는 진언수행이 삼밀관행이라고 말한다.

밀교에서는 부처님의 삼업(三業) 즉 몸과 입, 뜻으로 짓는 행위는 중생으로서는 미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것이라 하여 '삼밀(三密)'이라 하는데, 부처님과 중생의 본성이 하나로 계합하는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으로 인(印)을 맺고(身密), 입으로 진언을 외우며(口密), 생각으로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임을 관(意密)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정 대정사는 "진언 수행을 많이 하면 우주 법계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부족이 채워지는 공덕력, 부처님의 가피력 등 세 가지 공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수행 캘린더

■선상담연구원 명상수행=선상담연구원은 12월 셋째주부터 ~2003년 2월까지 서울 신사동 연구원에서 명상수행 및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에는 위빠사나 수행시간이 마련되고, 매주 월·토요일 오후 7시에는 명상과 집단상담 시간이 마련된다. 마감은 12월 10일. (02)733-5311

■겨울 수련회=대구 동화사는 12월 20~22일 동화사에서 겨울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대상인원은 80명. 참가비는 6만원. (053)982-0101

■겨울 참선 수련=해남 대흥사는 2002년 12월 29일~2003년 1월 3일 대흥사에서 '겨울 참선 수련회'를 연다. 참가접수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모집인원은 44명. 참가비는 10만원. (061)535-5755

■원각경 강의='보리마을 선재도량'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삼성동 선재마을 법당에서 〈원각경〉 강의를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새생각실천회 권경술 법사의 불교강의도 연다. (02)518-0845

■선으로 읽는 금강경 강좌=부산무심선원(www.mindfree.net)은 2003년 1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3시 30분 '선(禪)으로 읽는 〈금강경〉 강좌'를 연다. 강사는 무심선원 김태완(부산대 강사) 원장. (051)515-7226

■지리산 불교유적 답사=광주불교교육원은 12월 1일 화엄사, 천은사를 중심으로 '지리산 불교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한다. 이순규 전남도불교문화연구회장의 안내로 당일 오전 8시 광주불교교육원에서 출발. (062)228-9098

■직장인 불교교리 강좌=동산반야회는 12월 4일부터 3개월간 매주 오후 7시 동산법당에서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 강좌를 연다.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 법사가 매주 삼보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등의 주제로 강연. (02)732-1206

■3333배 용맹정진=양평 법왕정사는 11월 30일 저녁 7시부터 익일 아침 7시까지 법당에서 '제 21회 3333배 용맹정진'을 실시한다. 준비물은 두터운 면양말과 기도포 수건, 세면도구, 면티 2매, 면바지. (031)771-7745

■좌선회 수요 정진=동국대 정각원 좌선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씩 정각원 법당에서 정각원장 법산 스님의 지도로 정진한다. (02)2260-3015

빙의와 영가장애

확실히, 영원히, 한번에 해결되는 체험과 확인

빙의는 생전의 여한 남은 혼령이 다른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와 의식을 교란하고 지배하므로, 본인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를 신경정신과에서는 '포셋션' 증상이라고 한다.

빙의의 대표적 현상

- 악몽과 가위눌림에 시달린다.
- 죽은 사람이 꿈에 자주 보인다.
- 혼령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다.
- 환청, 환각과 함께 실제로 귀신을 본다.

영가 장애 현상

- 원인 모를 질병이나, 원인은 알지만 치유 되지 않아 고통 받는 분
- 예기치 않은 송사 사건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
- 잘 되던 사업이 고전하고 있거나,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 않아 의기 소침한 분
- 확실히 예상되던 승진이나 진학, 이전 계획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

이와 같은 영가장애로 집안에 우환이 그치지 않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몇 번 천도 의식을 치루었으나 아직도 완전히 천도된 것 같지 않을 때, 이곳 선림원에서는 본인에 의해 한번에 영원히, 시원하게 해결됨을 체험하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이 대신 해 줄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참가해야 합니다.

춤바움 禪林院
033)435-3166

선무도 화랑 수련회

신라 화랑정신의 고장인 경주 골굴사의 선무도대학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겨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 기 간 : 2002년 12월 1일부터 3개월간 (1주, 2주, 1개월)
-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체육단체, 기업체 위탁 연수)
- ▶ 수련내용 :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 (무용, 다도)
- ▶ 동 참 금 : 학생(1일-2만원) 일반(1일-3만원, 1개월-65만원)
- ▶ 접수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 ▶ 수련비 입금계좌 : 농협 721107-52-0373000 (예금주) 설기준
- ▶ 준 비 물 : 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필기도구, 장갑
- ▶ 시 설 : 선무도대학 본관과 요사(숙소)는 신축건물로써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1천 5백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석굴사원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사찰 전통문화와 대자연속에서 불교와 선무도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웁니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과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홀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특히 피로에 지친 입시생들의 심신회복에 도움이 크다.

4시	기상, 예불 (불참시에는 3천배 참회 및 전 대중이 1일 묵식)	13시	독서와 사색
		14시	오후 수련(선무도 학생)
5시	좌 선(명상과 선호흡수련)	15시	전통문화 강습(무용, 다도)
6시	조깅, 등산	16시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7시	아침공양(발우 공양)	18시	저녁공양
8시	불교강의(초발심, 부모은중경)	19시	예불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9시	오전수련 (선무도의 정적인 기공수련과 선체조)		
11시	108배 참회기도(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선무도)
12시	점심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의 문무대왕수중릉 성지순례와 계곡의 얼음 물속에서냉수마찰 수련도 합니다.
- 초발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을 정화하고 한문공부도 시킵니다.
- 입산 후 개인 외출, 이성교제, 술, 담배, 간식을 일체 허락하지 않습니다.
- 규칙을 어길 경우 참회 및 죽비나 회초리로 체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련회 참가자는 전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
- 지도진: 스님, 사범등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 전공자 등), 다도 강사 2명(부산여대 다도대학원)
- 홈페이지 www.golgulsa.com 또는 sunmudo.com -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 304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 굴 사
세계 선무도 협회 大金剛門 선무도 대학

건강과 수행의 등불 禪武道(禪기공) 수련회

선무도 大金剛門 총본원 골굴사에서는 건강과 수행을 위한 수련회가 년중 항상 열려 있습니다.

-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심신의 건강을 도와주는 대안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의 선생님들께서 추천한 학생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단,1월과8월은 일반학생 수련회관계로 받지 않습니다.)
- 무예나 기공 수련에 관심이 많거나 전문지도자가 되고 싶은분.
(출가행자는 전액무료이며, 대학진학<불교학, 체육학>까지 보장 됩니다.)
-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으로서 심신을 휴양하고 싶은 분
(비만증 학생인 경우 1달에 8kg까지 빠집니다.)
-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학교, 체육, 예술, 사회단체, 기업체의 위탁연수 및 출강이 가능합니다.
- 인근 도시의 직장인과 가족을 위한 주말 수련회(금,토,일)가 1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주관광을 겸한 선무도 체험을 원하는 수학여행단의 단시간 연수를 예약받습니다. (사찰관람 및 선무도수련, 약2시간)
- 외국인 관광문화 체험단 일정이 많으므로 단체연수인 경우 꼭 예약이 필요합니다
- 본 협회 산하에 약 20여개소의 국내지원, 지부와 4개국에 해외 지원이 있으며,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6개대학에 교양과목 및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본 협회는 현재 학교법인 「선무도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무도」는 본 협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명칭(상표등록 NO 제022354호)이므로 유사단체와 혼돈하지 마십시오.
홈페이지 www.golgulsa.com / sunmudo.com
전 화 054)744-1689, 745-0246

사단법인 세계선무도협회 大金剛門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봉구 안골 마을 독거노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좋은 사람들'. 왼쪽이 이성실 경사, 오른쪽은 정현자 경장. 사진=임민수 기자

바라밀현장

GIVE 5

"나누면 세상이 밝아져요"

도봉경찰서 '좋은사람들'

가진 것 5% 소외 받는 이웃에게

회원, 종교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

"아이구, 우리 아들하고 딸들 왔네. 보고 싶어 혼났어. 어디 있다 인제 온 거야?"

"그 동안 좀 바빴거든요. 죄송해요."

첫눈이 내린 18일 서울 도봉구 안골 경로당. 경찰관 4명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노인들의 얼굴이 금새 환해진다. 한결같이 친 자식이 찾아온 듯 반기는 표정이다.

오늘은 도봉경찰서 봉사단체인 '좋은사람들' 회원들이 결연을 맺은 안골 노인들을 방문한 날. '좋은사람들' 고광선(51)회장을 비롯 이성실(42) 신경하(42) 경사, 정현자(33) 경장 등이 독거노인에게 따듯한 밥한 그릇이라도 사 드리려고 짧은 점심 시간을 쪼갰다.

이성실 경사가 얼마 전에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정묘생(64) 할머니를 위로 한다. "힘내세요. 아버님은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든든한 딸이 있는 걸." 정 할머니는 몇 번 오다 그만 두려니 생각했던 이 경사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 따듯한 말 한마디 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

안골경로당을 관리하는 김수인(51) 통장은 "요새같이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자기 자식도 버린 노인들을 돌보는, 저런 양반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다"며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태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세상을 밝게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만든 모임인 '좋은사람들'은 2000년 5월부터 시작됐다. 98년부터 도봉구내 영세가정을 돌봐온 고 경사의 자비행이 알려지면서 도봉경찰서 법우회 소속 불자 경찰들이 주축이 되어 동료 경찰과 힘을 모았다. 신경하 경사는 "처음에는 종교가 달라 봉사활동을 같이 안 하려고 했지만, 함께 남을 돕는 마음을 내는 게 바른 종교인이란 생각을 하면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한다. 현재는 종교와 상관없이 50여 경찰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좋은사람들'은 발족과 동시에 자신이 가진 시간, 물건, 돈 등의 5%를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주자는 'GIVE 5 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 운동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대상은 도봉구내 총 145명의 독거노인들과 5가구 6명의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그중 기초생활도 하기 어려운 11가구 11명의 독거노인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매월 생필품과 생활비도 보태고 있다. 이외에도 '좋은사람들'은 장애노인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이송 봉사나 헌옷을 모아 복지시설에 기증하는 일, 방학2동 '임종의 집' 돕기 활동 등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정현자 경장은 "자투리 시간도 내기 힘든 격무 속에서 남을 도와주는 일은 쉬운 게 아니지만 도둑을 잡는 일만이 경찰의 임무는 아니다"라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겸손해 한다.

바쁜 일상에서도 박봉을 쪼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 참 '좋은사람들'이다. 강유신 기자



'좋은사람들' 회장 고광선 경사

지원 못 미치는 틈새가정 관심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피로 조금이라도 편히 살게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누어도 세상은 좀더 살만해 질 겁니다."

'좋은사람들'이 발족과 동시에 회장을 맡아온 고광선 경사. 고 경사가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6·25 동란의 와중에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도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던 모습의 어머니. 어머니가 준 무언의 가르침을 통해 고 경사는 자연스럽게 불심을 갖게 됐고 자원봉사도 시작했다.

고 경사가 요새 관심을 두고 있는 봉사대상은 틈새 가정이다. 틈새 가정은 불합리한 이유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에서 빠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다. 안골 노인들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 부모다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해요." 예년보다 일찍 추워진 요즘, 연탄값이 없어 냉방으로 지내는 노인들 생각에 고 경사는 늘 좌불안석이다.

마음비추기

긍정적 삶·부정적 삶…선택은?

모든 연예인들이 다 그렇듯이 노래 부르는 가수도 팬들의 인기를 먹고 산다. 팬이 없는 가수는 그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존재가치를 잃는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통해서 마음의 흥을 풀고 삶의 여유를 찾는다.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더러는 닮고 싶어하기도 한다. 팬들의 심리는 더욱 그렇다. 팬들도 어떤 노래를 좋아하다 보면 점차 그 노래를 부른 가수까지 좋아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그의 모습이나 행동까지 흉내내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 인기가수들 중에는 이런 팬들을 가진 가수들이 있다. 지금은 작고한 남인수씨나 배호씨 같은 가수가 그 예다. 이들의 인기는 아직도 남아있어, 그의 노래를 흥내내는 후배 가수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70년대 대중가요를 이끌었던 가수 N씨만해도 그렇다. N씨 역시 인기만큼이나 그를 좋아하다 못해 추종하며 평생 그의 노래만 부르고 사는 모창가수가 생겨났다. 언젠가 TV에서 이렇게 가수 N씨를 흉내내면서 밤무대를 통해 살아가는 두 모창가수의 삶을 방영한 적이 있다.

그런데 흥미를 끄는 것은 이들의 삶의 방식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A씨의 경우는 자신이 택하고 걸어온 '그림자와 같은 인생'(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했다)에 대해 항상 긍정하고 수용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취했다. 열심히 인기가수 N씨의 흉내를 내 밤무대 손님들을 기쁘게 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반면 B씨의 경우는 그림자와 같은 자신의 생활방식에 갈등하고 회의하는 부정적 삶의 태도를 취했다. B씨는 가수 N의 가짜 가수가 아닌, 가수 B로써 한번만이라도 무대에 서기를 바랐다. 특히 그 B씨를 바라보는 아내는 더욱 안타까움이 심했다. 그림자 노릇을 해서 번 많은 돈이 아니라, 작더라도 떳떳한 가수가 되어 번 돈을 원한다고 했다. 그 TV 프로를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의 방식이 가치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택한 길에 순응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A씨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갈등하며 회의하고 사는 B씨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쉽사리 판단내리기가 어려웠다.

寂然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일상의 보시

11월-보시의 달
- 깨달음의 첫번째 길
- 더불어 사는 삶
- 누구라도 보시할 것은 있다
- 일상의 보시

작은 베풂이라도 신심과 정성 중요

순수한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

올해 들어 평생 혼자 살면서 모은 전 재산을 동국대에 기부한 80대 할머니들의 잇달은 보시행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수십 년 간 방직공장에서 혹은 포목상 등을 하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줄여 모은 재산을 아무 미련 없이 사회에 회사한 이들 할머니들의 보시행은 삶의 가치와 보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 주기에 충분하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남들에게 베풀고 사는 것일 것이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 되었건 세상을 밝게 하고 삭막함을 훈훈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런 행위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베품으로서의 보시행인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고 보시가 일반인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보시는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듯, 또한 특별하게 시간이나 돈을 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들 눈에는 하찮고 보잘 것 없는 물건이나 행동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의 신심과 정성이 깃들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인 것이다.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보시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손을 잡고 길을 건네주는 마음씨 역시 보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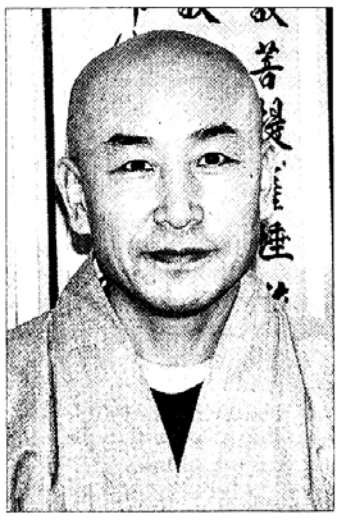
그 뿐 아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밝은 미소를 짓는 것도 보시요, 남의 험담을 늘어놓기보다 남을 칭찬하는 그 자체도 보시이다. 남이 말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도 보시이기는 마찬가지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보시고, 하심(下心) 겸양도 보시다. 모임의 화합을 위해 애쓰는 것도 보시요, 부드러운 말도 보시이다. 슬픔에 잠긴 이를 위로하는 것 역시 보시행이요,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것도 보시이다. 경전의 한 구절을 일러 주는 것, 단 한 부의 포교 문건이라도 전해주는 것 또한 훌륭한 보시이다. 심지어 사찰 마당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도 보시이다.

부처님께서는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은 직접 보시하는 것과 같다(인과경)고 했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백천생에 칠보가 구족하다(지장경)고 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보시행은 세상이 놀랄 만큼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온 것들이다. 권형진 기자



◇보시는 거창한 게 아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작은일도 보시이다. 사진은 한 불자가 무의탁 노인부부를 방문, 요구르트를 전하는 모습.



해원 스님

불보살의 원력으로 이승과 저승을 명확히 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죽은 영혼을 환생케 하므로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영험도량

해 원 사

'정기법회'

매월 초하루

18일 지장재일

불보살님 가피력

문 춘 복 (51 · 이동면 서리)



15년전 죽은 삼촌이 접신이 되어 간세포 90% 소멸, 현재 정상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

(2002년 6월)

"본래 간 기능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늘 쉽게 피로해서 거의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고 가장으로써 생활능력도 잃게되자 정말 막막하데요. 스님을 뵙기 전에 약 1주일간을 전혀 음식을 못 먹을 지경이 됐어요.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었죠. 이왕 이렇게 죽게 되는 거 한번 맡겨나 보자는 심정으로 스님을 찾아갔는데... 지금요? 경비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죠."

정 점 숙 (46 · 고림동)



그의 남편은 26년 전 죽은 어머니가 접신되어 폭주를 자주하고 그런 날이면 밤새도록 핫소리를 하는 등 고통을 받던 중 이젠 정상인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다.

(2002년 8월)

"남편 말에 의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저와 결혼해서도 물론 마찬가지였죠. 뿐만 아니라 폭주를 하면 밤새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고 밤잠을 못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 주위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많이 금이 가고 몸도 쇠약해져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해원사에서 불보살님의 원력을 받은 이후로 불면증이 없어진 것은 물론 주사까지 없어져 새사람과 사는 기분이에요."

문의전화: 031)336-3734, 336-3735

혜경스님의

경전 읽기

법화경 ㉔ 수희공덕품 제18

<법화경>을 들은 공덕



신뢰 받을 수 있는 육체조건도 갖춰야

'타인 속으로 들어가' 보살행 구현

부처님께서는 50전전 수희공덕을 설한 다음 다시 〈법화경〉을 듣는 공덕에 대해 설한다.

(1) 스스로 승방에 나아가 잠깐 동안이라도 〈법화경〉을 듣는 것.

(2) 설법장소에서 나중에 온 사람에게 법 듣기를 권하며 자리를 나누어 앉도록 하는 것.

(3) 사람들을 설법장소로 권유하여 함께 듣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각각의 경우에 따라 얻어지는 공덕은 (1)의 경우에는 죽은 후 다시 태어나서 훌륭한 코끼리나 말이 끄는 수레나 진귀한 보배로 된 탈 것을 얻고 하늘의 궁전에 도달할 수 있다. (2)의 경우에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제석천·범천왕 혹은 전륜성왕이 되어 옥좌에 앉을 수 있다. (3)의 경우에는 죽은 후에 다라니를 얻은 보살과 같은 곳에 태어나 지혜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나 소질이 뛰어난 사람이 된다. 특히 말해 둘 것은 다음에 설하는 것처럼 신체적 특징에 대한 공덕을 얻는다고 한다.

그것은 백천만 세에 벙어리가 되지 않고 입에서 추한 냄새가 나지 않으며, 혀는 항상 병이 없고 입도 역시 병이 없으며, 이빨에 때가 끼거나 검지 않고 누렇게 되지도 않으며 이빨 사이가 벌어져 성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으며 굽거나 덧니가 없고, 입술이 아래로 처지지도 않고 위로 걷어 올라가지도 않으며 거칠거나 부스럼이 나지도 않으며 언청이나 비뚤어지지도 않고 두텁거나 너무 크지도 않으며 또한 검지도 않고 여러 가지 흉한 모습을 가지지 않고, 코는 납작하지도 않고 비뚤어지거나 굽지도 않으며, 얼굴은 색이 검지도 않고 좁고 길지도 않으며 푹 들어가거나 비뚤어지지도 않아 일체 바람직하지 않은 인상이 하나도 없다. 입술이나 혀나 이빨이 모두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이며 코는 높고 곧아서 얼굴 모양이 원만하며 눈썹은 높고 길며 이마는 넓고 반듯해 인상(人相)이 모두 훌륭하게 갖추어진다고 한다. 요컨대 무릇 사람의 얼굴로서 완벽하고 원만한 인상을 갖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면 위와 같은 인상은 당시 고대의 인도 사람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이상(理想)이었으리라. 마치 고대 희랍인들이 균형 잡힌 육체미를 구한 것과 흡사한 것이다. 또 뒤집어 보면 고대 인도의 현실에서는 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위에서 말한 반대의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말한 현실적인 배경을 추측해보면 당시의 출가 수행자들이 대체적으로 5체(五體)를 원만하게 구족하여 건강한 육체를 갖추었으며,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용모가 아니라 반대로 호감을 주는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해 낼 수 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율장〉 가운데 세세한 승가의 입단 규정이 있는데 그 입단 금지 조항을 모두 5체 만족, 보통이거나 그 이상의 용모를 가진 사람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율장〉 가운데의 입단 금지 조항에는 범죄자 왕과 대신 노예 부채자 등과 같은 사회적 조건에 의한 입단 금지 조항, 혹은 교단의 화합을 깨뜨린 사람, 외도의 신봉자 등과 같이 불교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입단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 입단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병자 신체장애자와 노약자 등이다. 이 규정은 각 부파가 전하는 〈율장〉에 따라 다소의 증감이 있으나 이를테면 〈십송률〉 등에는 앞에 거론한 병이나 신체적 장애 외에 용모나 자태에 관해서 매우 세밀한 규정이 있어 머리털·눈·귀·코·입술·이빨·목·체형·피부색 등의 각 항목에 관해 각각 제외되는 예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법화경〉을 들은 공덕으로서의 구체적이며 세세한 용모에 대한 기술도 위에서 말한 당시의 출가자의 신체상의 조건과 대조해 보면 기이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된다.

〈법화경〉을 신봉하는 집단은 출가인 집단이 아니라 재가 중심의 집단이었던 모양이나 당시 출가자 집단이 세상 사람들에게 육체상의 결점으로 인해 이런 저런 말을 듣지 않을 만큼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똑같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법화경〉을 신앙하는 결과, 내세에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얻을 수 있다고 설했더라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하물며 〈법화경〉은 신앙의 글이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이다.

아무튼 〈법화경〉을 알리려는 사람은 정신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모을 수 있을 만큼의 육체적인 조건도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이렇게 '자진해서 대상, 즉 남 속에 들어가는 사람' '자진해서 귀의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불교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보살이기 때문에 그 공덕을 찬양한 것이라고 본다.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㉟

마음공부란 무엇인가

꿈에서 깨어나 보이지 않는 진실 찾아야

도 닦는 이들이여! 참 부처와 참 법은 모양이 없는데, 그대들은 다만 허깨비 위에서 모양을 짓고 있구나. 설사 구하여 얻는다 하더라도, 모두가 들여우요 도깨비일 뿐 참 부처는 아니니, 곧 외도의 견해이다. 진실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부처도 취하지 말고, 보살 나한도 취하지 말고, 삼계의 뛰어난 것도 취하지 말고,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의 구속을 허락치 말아야 한다. 하늘과 땅이 거꾸로 되어도 나는 의심치 않고, 시방의 모든 부처가 눈앞에 나타나도 한 생각 마음에 기쁨이 없으며, 삼도의 지옥이 문득 나타나도 한 생각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왜 그러한가? 나는, 모든 법이 헛된 모습이어서 변화하면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며 만법은 오직 식(識)일 뿐이다. 그러므로 꿈이요 허깨비인 헛된 꽃을 무엇 때문에 애써 붙잡으려 하는가?

삼계는 오직 마음이며 만법은 오직 식일 뿐이다. [三界唯心 萬法唯識] 마음은 진실하지만 식은 허망하다. 진실한 것은 변함이 없고 허망한 것은 무상하게 변화한다. 세계가 전부 마음이자 동시에 식이라고 하여 놓고, 마음은 진실하지만 식은 허망하다니, 이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가? 몇 가지 비유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자.

인형극이 공연될 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움직이는 인형이지만, 그 인형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인형은 허망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진실하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의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은 형형색색의 화려한 영상이지만 그러한 영상을 나타내는 것은 무형무색의 전자파이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영상은 허망하고 영상을 나타내는 전자파는 진실하다. 호수에 물결이 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결이지 물은 아니다. 그러나 물결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의 움직임이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물결은 허망하고 보이지 않는 물이 진실하다. 우리가 자면서 꿈을 꿀 때, 꿈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실제가 아닌 허망한 것이지만, 그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실재하는 진실이다.

결국 이런 예들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허망하고, 그 허망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가운데, 의식(意識)되어 나타나는 우리의 경험세계는 모두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사실은 허망한 것이고, 진실한 것은 오직 이러한 경험의 모양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경험을 드러내는 모양 없는 마음일 뿐이다.

마음공부란 바로 허망한 경험세계인 의식을 진실한 실재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벗어나 참으로 진실한 실재인 마음을 찾는 것이다. 우리 의식이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진실한 마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공부는 꿈을 깨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다. 이 발버둥은 곧 깨어나려는 간절하고 절실한 바람이다. 이 바람의 강도가 극에 달하였을 때, 적절한 가르침을 만나면 문득 깨어나게 된다.

하나의 가르침을 소개한다. 모든 꿈에는 꿈꾸는 그대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 마음은 곧 진실한 그대 자신이다. 이제 그대의 손바닥을 펴고 오무려 보라. 그렇게 손바닥을 펴고 오무릴 때, 그대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그대 자신인 마음은 의식이라는 모양을 갖추어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생각이나 말로써 파악된다면 그것은 진실한 그대 자신이 아니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선생의 법회 안내

부산 무심선원-매주 수, 토요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매달 첫째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 011-9520-0054(이 정 화) http://www.mindfree.net/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㉓

따름(順)과 거스름(逆)

지난 11월 6일 2003학년도 수능평가가 있었다. 이틀 후 11월 8일자 한 일간지에 같은 나이 또래의 두 여성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

첫 번째는 순리(順理)를 따른 비키 손(19)에 관한 기사다. 현재 그녀는 십대들을 위한 한 경제교육 전문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커리큘럼 개발팀장이다. 고1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그녀는 대학교수인 아버지에게, "왜 우리나라 산맥의 이름들을 죄다 외워야 하죠? 전 꿈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제 꿈을 잃어버렸어요."란 말을 던지고 자퇴를 했다. 그녀는 남들 따라하기를 과감히 버리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자기만의 인생길을 걷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순리에 거스른 보기로, 언론에는 뚜렷한 의대 지원 동기에 대한 기사는 없으나, 의대를 꼭 가고 싶어 했던 한 재수 여학생의 비관 자살에 관한 기사다. 죽음의 원인은 수능 평균점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입시기관과 언론의 성급한, 잘못된 예측에 있었다. 입시기관들은 "난이도는 작년보다 약간 쉬웠지만 예상보다 재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더 심했던 것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변명일 뿐이다. 의대 지망생 가운데에는 적성에 맞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온몸으로 체득해 인술(仁術)을 널리 펴기 위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필자가 만나본 중진급 의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요즈음 의대지망생들이 단지 피상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세부전공을 택할 때 새벽에도 응급실로 쫓아나가야하는 외과 분야를 기피해 10년 후에는 외과의사 부족사태가 일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한편 〈무문관〉 제39칙의 '운문화타(雲門話墮)'란 화두가 있다. 어느 때, 한 승려가 운문 선사께 무엇인가 물으려고 '광명이 고요히 온 누리를 두루 비추니 '라고 하며 제1구를 다 말하기도 전에, 운문 선사께서 갑자기 말을 가로 막으며, '아니 이는 장졸수재의 글이 아니냐!' 하고 말했다. 그러자 '네!' 하고 이 승려가 대답했다. 곧 '글렀다[화타話墮]!' 라고 운문 선사께서 말했다. 한 승려가 장졸의 오도송을 앵무새처럼 흉내내며 멋들어지게 낭송한 뒤, 자기 딴에는 깨친 척 무언가 헤아린 바에 관해 운문 선사와 한판 벌릴 태세였으나 보기 좋게 초전박살을 당한 것이다. 어디가 이 승려가 '화타'한 곳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 화두의 핵심요체이니 세밀히 살펴보시기 바란다. 사실 필자의 경우 중 3때, 의사였던 아버지께서 대개 의사 아버지가 아들도 의사를 시키는 관행을 깨시며, "너는 다른 직업은 다 택해도 좋으나, 부디 의사는 하지 말아라!" 하시는 한마디[입전어一轉語]에 그 이후 의사란 직업은 꿈도 꾸지 않았으며 그 덕택으로 가장 적성에 맞는 물리학(필자의 입학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물리학이 중요한지를 사회적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던 때였음)을 전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강대 물리학과
ypark@ccs.sogang.ac.kr

"꿈 잃었어요" 과감히 자퇴…자신의 길

의사지망 재수생 수능성적 비관 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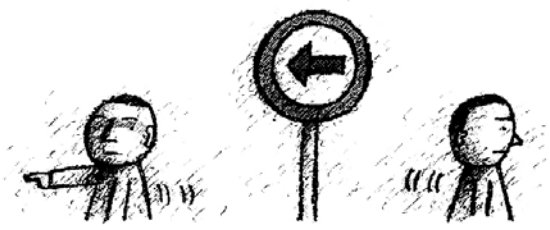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혈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www.chorokwon.com

배워 두시라 -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구하게 되리라!

난치병 및 괴질 조정, 지도자 모집

서울과 부산에서 전격 지도자 양성 : 속성반 개설

앞으로 에이즈 보다 더한 괴질이 발생할 징후가 보이는데 이교육을 이수한 당신은 지구상에 현재 나와 있는 항생제로서는 속수무책인 괴질까지도 약, 침, 氣등의 도움없이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므로 당신에게 조정받은 사람은 방어세포부활로 감기등이 침투를 못하게 되며 매사 당신 스스로 기적을 체험하게 될것이다. 이법은 예언된 학문이며 지도자를 양성할 시기가 되어 전수 하는 것입니다.

대상
◆ 본 능력을 전수 받고자 하는 분
◆ 先兆之際의 치료를 가지신 남 녀 및 제질병을 사전에 예방 하고저 하는 분
◆ 가족의 난치병 간호에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

교육과정
◆ 비만 조정법(부작용없음) ◆ 난치병 조정법
◆ 항생제로 통제 불가능한 괴질등 속효 조정법
◆ 십이종 지능과 십이종 의식 구조학의 고난도 핵융합방법 전수

본 학문을 전수받고 난 후 당신의 능력은?

1. 하루 1시간씩 6일을 조정해주면 OK.
2. 제아무리 거구의 비만인이라 할지라도 살이 쭉쭉빠져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 입는다.
3. 감기도, 암도, 전신무력증도, ?도 같은 맥락에서 원상회복된다.
4. 난치의 비정상 세포를 몸밖으로 배출시키고 복원시키는 비전의 학문을 전수받으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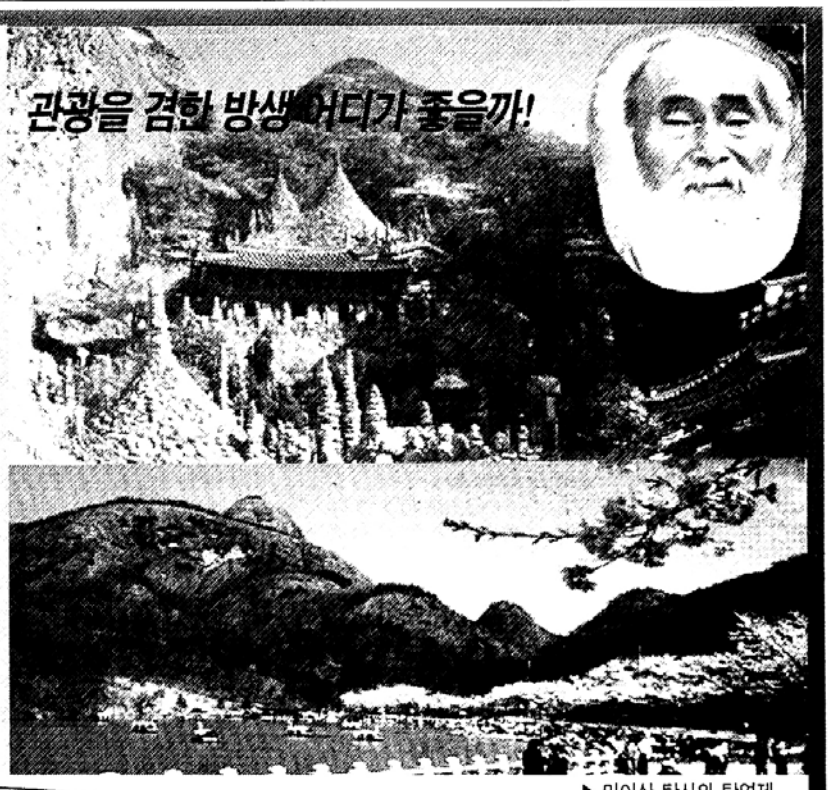
※ 자연의 순리에 의한 노화는 어쩔수 없겠으나 그외 외부의 인연에서 오는 치료불능의 제질병 및 괴질까지 당신은 능히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므로 당학회와 좋은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종교와는 무관함 -

서울지역 문의처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608-1
051)628-9578, 9579 019-831-8351

高次元治癒에너지 人體適用硏究學會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10분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미국인 불자 종교 정체성 '과연 무엇'

이민용 교수 지적 '한국 영향 과대 평가'는 오해

'구매자·법메뚜기·책방불교도' 등 다양

참선·명상만 관심, 계율 실행엔 무관심

베스트셀러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존재'다. 일부에서는 서양의 문물과 문화를 받아들이기만 했던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 거꾸로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라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현각'이라는 한 미국인 스님의 출현은 과연 불교의 확대를 보여주는 것인가?

15일 한국종교문화연구소(이사장 정진홍 서울대 교수) 월례발표회에서 '미국 속의 불교와 불교의 미국화' 발표를 통해 미국 불교의 현실을 해부한 이민용 영남대 객원교수(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사진)는 "우리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교를 전달해 주고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 미국은 나름대로 불교를 소화하고 있고, 현각 스님은 미국에서 불교인이 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반영할 뿐이다"며 한국 사회의 통념에 제동을 걸었다.

하버드대학 동아시아학과를 수료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교수의 지적은 자신이 직접 겪은 미국 불교의 현장과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누가 불교신자냐'는 질문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한 마디로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불교신자가 되고, 유대인이면서도 불교신자로 고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소위 '아직은 아닌 불교신자(Not-just-Buddhist)'들인 이들은, 오계를 받고 참선 수행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일정한 불교단체에서 9년 반이나 활동하면서도 자신을 불교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한 사람이 어느 종교의 신자냐고 할 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종교적 정체성의 문제는 미국 불교신자의 다양한 형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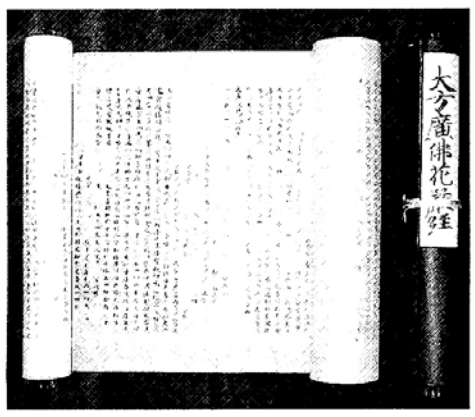
미국에서 가장 많은 불교신자의 유형은 이른바 '수입 불교(Import Buddhist)'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불교라는 대상물을 놓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소용이 되는 것인지 끊임없이 평가해 보며 품목을 고르는 입장에 서 있는, '구매자 불교도(Shopper Buddhist)'라고도 할 수 있다. 한 그룹의 참선 수도회에서 다른 형태의 명상 그룹으로 뛰어다니는 '법 메뚜기(Dharma-hopper)'도 비슷한 형태다. '법 메뚜기' 불교신자는 끊임없이 수행 방편을 섭렵하며 찾아다닌다고 해서 '탐색자 불교인(Seeker Buddhist)'이라고도 한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책방 불교도(Bookstore Buddhist)'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어떤 불교 단체에도 참여하지 않고 단지 불교수행과 신앙에 대한 인기 있는 책을 읽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침실 조명등 밑의 불교도(Night-Stand Buddhist)'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이 교수는 "수입 불교는 실수요자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스스로 각자 추구하며 받아들이는 '엘리트 불교'이다"며 "대개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백인으로 중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엘리트 불교인들은 개인주의적 수행 명상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불교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사원 제도나 윤리적 계율의 실행에는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마 현각 스님도 이 부류에 속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한 이 교수는 "엘리트 불교가 미국 불교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의 현각 스님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수백, 수천의 현각 스님이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 영인본.

最古 화엄경 필사본 전통방식 영인

한글 해설 함께 영어 등 5개국어 요약문 수록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화엄경 사경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국보 196호, 호암미술관 소장)의 영인본이 완성됐다. 문화재청은 2년여 작업 끝에 원본과 같은 두루마리(길이 19.9cm 세로 26.9cm) 형태의 필사본 영인본을 전통 한지로 제작해 19일 공개했다.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은 당나라 실차난타가 80권으로 한역한 〈주본 화엄경〉 중 권1~10의 내용을 필사한 것으로, 신라 경덕왕 14년(755)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법사가 발원, 조성했다. 특히 당나라 측천무후(재위 684~704) 시대에만 쓰인 독특한 한자인 '측천무후자'가 있어 현존하는 화엄경 필사본 중 가장 오래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엄(華嚴)의 '화(華)'를 '화(花)'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영인본의 해제본에는 한글 해설과 함께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일본어 등 5개 국어로 요약문을 수록했다. 모두 500부가 제작됐으며, 문화재청은 이 중 300부를 국내 도서관과 박물관, 해외주재 한국문화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조성내력 밝혀져

발원문·조성기 등 복장유물 발견

1626년 조성·1747년 개금불사

법주사 대웅보전(보물 915호) 해체 보수공사 과정에서 이 안에 봉안된 삼존불의 조성 내력을 알려주는 발원문과 조성기 등 복장유물이 다량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열린 제5회 국립박물관 동원학술 전국대회에서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복장 조사'를 발표한 윤종균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지난 4월 삼존불의 복장에서 나온 발원문과 조성기 조사를 통해 삼존불은 1626년(인조 4년) 조성됐으며, 1747년(영조 23년) 개금불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심존불은 〈법주사 상량문〉(1626년)과 〈속리산 대법주사 대웅대광명전 불상기상〉(1630년)의 기록을 근거로 1624~1630년 조성된 것으로 추정해 왔다.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 노사나불에서 나온 조성기는 각종이 2장을 이어붙인 두루마리 위에 필사한 것으로, "천계(天啓, 1621~1627년 사용된 명나라 연호) 6년 병인(丙寅) 3월부터 7월까지 불상 삼존을 만들어 점안하였다"고 적혀 있어 삼존불이 1626년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비로자나불에서 발견된 발원문 역시 "대웅보전이 임진왜란(1592년) 때 불 타 없어진 후 1626년에 불상 삼존을 만들고 1747년에 개금불사를 하였다"는 기록이 분명하다.

윤 학예사는 "발원문을 보면 불상 조성 때는 왕실과 지방 유력자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개금불사에는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병마절도사 심봉양, 상주목사 이협 등이 시주자로 등장하고 있어 달라진 불교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삼존불에서는 이밖에 〈묘법연화경〉 〈능엄경〉 등의 경전과 감지은자수보살계법, 솜옷·모시옷, 청동팔엽후령통, 청동후령 등이 함께 나왔다.

우리 나라 3대 불전의 하나인 법주사 대웅보전은 기둥이 부식되고 건물이 뒤틀리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 지난 해 8월부터 2004년까지 해체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장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9)

중후한 장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자들이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명호의 주인공 아미타불. 이 부처님은 살아서는 장수하게 하고 죽어서는 극락으로 인도해주는 분이기에 언제나 인기가 높다. 아미타불화는 고려시대에는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와 더불어 3대 불화 가운데 하나였고,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제작되었다. 1776년 지리산 천은사에서 조성된 아미타후불탱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불화이다. 이 불화는 여덟 분의 보살, 즉 8대 보살과 함께 등장하는 아미타구존도(阿彌陀九尊圖)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아미타구존도는 그림의 상단에 아미타불이 화려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 무릎 아래 여덟 분의 보살들이 서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천은사 불화에서는 8대 보살과 함께 앞에 사천왕, 뒤에는 석가불, 미륵불, 여러 제자상이 아미타불을 빙 둘러싸고 서 있다. 게다가 화면 아래에는 아미타불을 향하여 등지고 앉은 사리불존자가 진지하게 설법을 듣고 있는 모습까지 덧붙여져 매우 복잡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천은사 극락보전 아미타후불탱(1776년 조성, 보물 924호) 중후한 채색과 명료한 장식성이 18세기 후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불화는 각 상마다 친절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보기 드문 경우이다. 여기에 자세히 써놓은 이름은 조선시대 불화 연구에 더없이 고마운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화에 적힌 이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도 있다. 이 불화에 표기된 사천왕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탑을 들고 있는 사천왕의 경우 북방천왕이라 부르는데, 이 불화에서는 서방천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지는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조선 초기 밀교의 영향으로 도상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주장도 있고, 불화를 그린 화원의 착오라는 주장도 있다.

이 불화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18세기 후반의 특색이 잘 드러난 명품이라는 점이다. 18세기 전반의 불화와 비교하여 가장 달라진 점은 두텁게 칠한 채색법이다.

18세기 전반에는 가벼운 수채화를 연상할 만큼 색을 얇게 칠한다. 석채(石彩)를 여러 번 칠하지 않아 바탕의 섬유질이 비쳐 보이는 것이다. 반면에 18세기 후반에는 두텁게 여러 번 칠하여 무겁고 중후한 느낌이 든다.

또한 18세기 전반의 채색은 밝고 따뜻한 색조가 두드러져 보인다면, 18세기 후반에는 녹색이나 청색의 사용이 증가하여 보다 무겁고 차갑게 느껴진다.

이 불화 역시 두터운 채색에 녹색의 증가로 중후한 분위기가 화면을 지배하고 있다. 채색은 무거워 보이지만, 보살이나 사천왕을 표현한 장식은 이전 시기 못지않게 여전히 화려하다.

두꺼운 채색법… 무겁고 중후한 느낌

사실 바탕으로 한 명료한 장식성 돋보여

이 불화를 1729년 의겸이 그린 해인사 석가후불탱과 비교하여 보면, 환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섬세한 장식성과 달리 사실에 근거한 명료한 장식성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중후한 분위기임에도 제자상의 모습은 자유롭기 그지없다. 짧은 유머 같은 제자상의 모습은 연이어 등장하는 19세기 불화의 특징인 해학적인 자유로움을 예시하고 있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제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라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자수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 불교 사관학교 (제1기 모집, 6개월 단기 출가)
- 머리를 깎지 않고, 절에서 수행.
  - 매월 1회 외박 가능, 일요일 자유정진
- 고졸 이상
- 나이 30세 미만 - 남자
- 숙식 무료 제공
  - 직원 채용시 우선 채용. 분원에서 생활 가능
- 참선 및 불교수행, 경전공부(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등)

▶ 외국인 불교대학 (제1기 모집)
- 11월 23일(토). 첫 강의, 모든 외국인 영어 강좌

▶ 출가자 모집 (남행자)
- 민주적 교육 - 개인방 지급.
- 40세 미만, 고졸 이상
- 가장 엘리트 스님 배출 목표 - 현재 20면 배출, 수행 중.
- 수계 후, 공부·수행 모든 뒷바라지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길손여행」의 저자
'우학스님 (본사찰의 회주)' 직접지도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신도관리와 사주를 컴퓨터에 맡기세요
韓國易소프트 서울지사 개설

컴퓨터 역학프로그램의 최정상 사주대전을 개발한 한국易소프트가 서울지사를 개설하였습니다.

사주대전 사주대전(四柱大典)은?

생년, 월, 일, 시 만 입력하면 컴퓨터가 사주 및 운세를 풀이 해설해 내는 전문 역학 프로그램입니다.
사주대전 구성(명리, 주역, 기문, 성명학, 택일, 궁합, 꿈 해몽, 부적, 자미.. 등)
사찰신도관리 및 종무행정 전산화프로그램의 선두주자 금강장사를 여기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의 막강한 기능(우편발송, 등표, 위패, 생일축하편지.. 등등 800여 가지 출력양식 및 전문회계)으로 스님들의 도량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406호
◎ 직 통 : 0502)424-5887 ◎ 대 표 : 02)695-8747
◎ 팩 스 : 02)695-8757
◎ 담당자 손 전화 : 011-720-3170
WWW.SAJUSOFT.co.kr

공동구매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사주대전과 금강장사를 3개 사찰에서 공동 구매하시면 15%할인
사주대전을 5개 사찰에서 공동 구매하시면 20%할인
금강장사를 5개 사찰에서 공동 구매하시면 30%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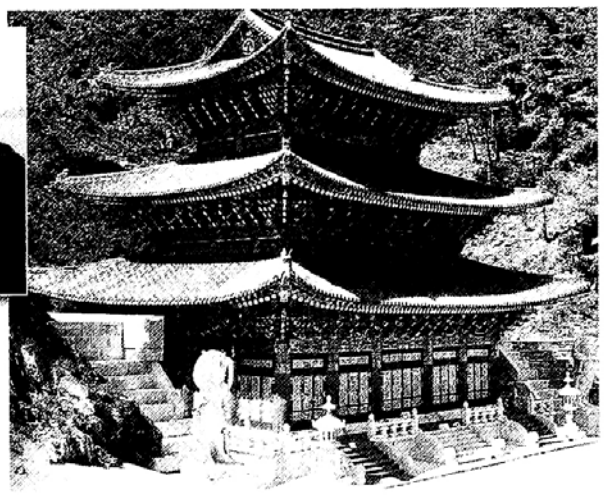
기 간 : 2002년 1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까지

'천년 궁궐을 짓는다'

신응수 지음

김영사 / 1만 2천9백원





◇구인사 대조사전은 국내 목조건물로는 최고 높이인 27m의 3층 다포집으로, 우리 전통건축의 멋과 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수작으로 평가 받는다.

천년세월 보듬는 목수 되련다

45년 외길…경복궁 근정전 등 복원 참가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 내 평생의 역작"

"수백년 세월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궁궐이나, 가까운 절에 올라가 보면 현대 건축물과는 또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전통 건축이 주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편안함과 넉넉함, 그리고 건물 자체에서 전해지는 온기입니다. 궁궐은 궐다운 위엄과 격조 높음이 있고, 사찰은 사찰대로의 엄숙함과 자연 지형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룬 편안함이 느껴지며, 일반 민가는 민가대로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멋이 배어 있습니다."

도편수(건축물의 기본 틀에서부터 재목을 다듬고 공사 전반을 총감독하는 대목장) 신응수 씨(62세)는 우리 건축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축, 그것은 그의 평생 화두이기도 하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이며, 문화재기능인협회 회장이기도 한 그가 45년 목수 인생과 우리 건축에 관한 자신의 생각들을 한권의 책으로 묶은 〈천년 궁궐을 짓는다〉를 펴냈다.

이 책에는 그가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상경해 우연히 목수 일을 업으로 삼게 된 이후, 현재 목수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궁궐공사를 하는 도편수가 되기까지의 애환이 담겨 있다.

신씨는 "부족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고건축 한길만을 고집하며 걸어온 내 삶의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통해 일반인들이 고건축을 이해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가 지금까지 참여한 대표적인 복원공사로는 덕수궁 중화전,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규장각 옥당, 경회루, 흥례문, 무량사 극락전, 수원 성곽 장안문 등이 있다. 신씨는 궁궐과 사찰외에 다른 공사들도 많이 맡아했다. 청와대 대통령 관저와 출입문인 상춘문,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서울 필동 한국의집 등이 그가 만든 집들이다.

이 가운데 황금 단청으로 아름다움을 더한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을 자신의 평생 역작으로 꼽았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건축을 해왔지만 구인사 대조사전은 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외 7포 내 11포의 3층 다포집으로 지었는데 전체를 못하나 쓰지 않고, 나무로 짜 맞추었지요."

그의 우리 건축에 대한 사랑과 우리 건축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나무 박사'라 불리는 그가 고건축의 재료로 쓰이는 소나무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도 흥미롭다. 그는 일주일에 2~3일은 태백산 줄기 곳곳을 누비며 굵은 토종 소나무 확보에 열을 올리고, 몇백 년 후에 큰 재목으로 쓰일 수 있도록 20만평 정도의 소나무 임야를 구입해 따로 키우고 있기도 하다.

신씨는 현재 2009년쯤 마무리될 예정인 경복궁과 창덕궁 복원공사에 매진하고 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목수 일을 배우려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재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도 펴낼 예정이다.

신씨는 힘주어 말한다. "천년이 지나도 인정받는 우리의 건축물을 짓고 싶습니다. 오로지 그 꿈 하나로 오늘까지 살았고, 그 꿈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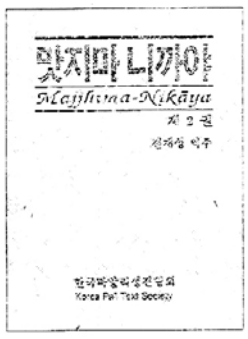
이은자 기자 eljee@buddhapia.com

부처님 말씀 가장 체계적으로 담은 초기경전

'맛지마 니까야 2권'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3만원



빠알리 대장경 가운데 부처님의 목소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담은 〈맛지마 니까야〉 제2권이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나왔다.

〈맛지마 니까야〉 제2권은 31경부터 60경까지를 묶은 것이다. 지난 7월 발간된 〈맛지마 니까야〉 제1권도 재교정의 과정을 밟아 발간됐다.

이번에 나온 제2권은 제1권과 마찬가지로 빠알리 대장경의 붓다고싸의 주석을 위주로 했으며, 그 외에도 현대의 모든 번역서를 참고해서 가능한 완벽을 기했다. 빠알리 원어와 한역 술어를 가능한 쉬운 우리말로 밝혀놓아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학문적 연구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번역자인 전재성 박사는 이번 책에서 경전 속에 등장하는 불교 신들의 세계를 모두 우리말화 했다. 야마천(耶摩天)은 '축복받는 신들의 하늘나라', 화락천(化樂天)은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들의 하늘나라', 도솔천(兜率天)은 '만족을 아는 신들의 하늘나라', 공무변처천(空無邊處天)은 '무한한 공간의 하느님 나라의 신들', 식무변처천(識無邊處天)은 '무한한 의식의 하느님 나라의 신들', 비상비비상처천(非想非非想處天)은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하느님 나라의 신들' 등으로 번역해 놓았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신 것은 학문적 발전이나 논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행승들과 모든 재가신도들의 실천을 돕기 위함이었으며, 동시에 삼계육도에 태어나는 뭇 삶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모은 초기 불교 경전 가운데 하나인 〈맛지마 니까야〉를 읽으며, 행간마다 담긴 중생에 대한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껴보자.

이은자 기자

경전 속 신의 세계 우리말화 시도



'왕눈이 스님'

정수일 글·그림

운주사 / 7천8백원

만화로 보는 언기스님 일대기

큰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만화로 만날 수 있다는 것. 청소년들뿐 아니라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일반인과 초심 불자들에게도 좋은 공부감이 아닐 수 없다.

편양 언기스님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 고승열전 〈왕눈이 스님〉도 청소년과 초심불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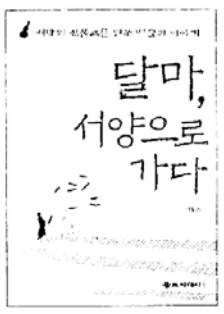
언기스님의 일대기를 단순히 연대순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살생의 문제, 수행의 문제, 우리 역사속의 불교인물 이야기 등을 불교 가르침과 적절히 조화시켜 일화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했다.

〈월간 연꽃〉에 '왕눈이 스님과 백유경'을 연재하고, 〈맨질스님〉 등 불교만화 책을 펴냈던 정수일씨가 글과 그림을 그렸다.

'달마, 서양으로 가다'

진우기 지음

불교시대사 / 1만 2천원



불교 가르침 서구에 전한 44명의 수행자 이야기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무슨 영화의 제목이나 하면, 그건 아니다. 최근 나온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이다. 여기서 달마란, 중국 선종의 초조인 달마대사가 아니다. 다르마(Dharma), 즉 불교의 가르침이자,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깨달은 자를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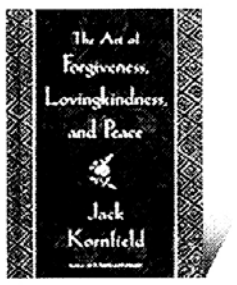
〈달마, 서양으로 가다〉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현대 서구 사회에 정착시킨 44명 수행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티베트의 성자 달라이라마와 참여불교의 기수 틱낫한에서부터, 정통 선 불교를 미국에 전한 스즈키 순류, 51세에 출가해 비구니를 최초로 단합시킨 아야 케마, 한국 불교를 서구에 전한 숭산 스님과 삼우 스님, UCLA에 불교학을 융성시키는 구산스님의 제자 로버트 버스웰, 위빠사나를 미국에 보급한 잭 콘필드, 심층생태학과 불교를 접목시킨 죠애나 메이시, 불자보다도 더 불교적인 삶을 살았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은 삶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고 수행함으로써 이윈화되었던 현대인의 삶을 하나로 만들어 내는데 노력해왔다.

이 책은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에이앤엠대학에서 평생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진우기씨가 썼다.

이은자 기자

해외불서 — 용서·자애·평화의 기술



미국의 위빠사나 마스터인 잭 콘필드(Jack Komfield)가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불교 명상 명구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용서와 자애,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편집한 명상집.

이 책에 나오는 명구들은 벤 프랭클린(Ben Franklin)의 "화를 내면서 시작된 일은 부끄러움으로 끝난다"는 등 한 줄짜리 잠언형식의 글로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물론 콘필드가 '용서의 기술'을 주제로 몇 쪽에 걸쳐 쓴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를 이웃을 향해 실천하라"는 내용처럼 긴 문장들도 있다. 또 헬렌 켈러, 마크 트웨인과 같은 명사들의 명구를 소개하기도 한다. 호텔 침대나 테이블에 놓아둘만한 이 소책자(224쪽)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끝낼 때 영감을 줄만한 책이다. 미국, Bantam출판사 펴냄.

김재경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아름다운 우리말경전 금강경	우룡스님	효 림
3	이뭐꼬	성원스님	김 영 사
4	마음꽃	경허스님	고요아침
5	불자의 살림살이	우룡스님	효 림
6	평화로움	틱 낫 한	열 림 원
7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 영 사
8	바로 이번 생에	우빤디따	불광출판사
9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 용 옥	통 나 무
10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스님	효 림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CHAMP 인간 승리자들의 모임 챔프그룹

농·수·축·임산업, 식품가공업 및 가정 건강생활 필독서!!

질병을 고치는 책

노벨상 3회 수상으로 입증된 목초액성분의 놀라운 효능

특차: 제1장 : 목초액이란 / 제2장 : 목초액의 유래 / 제3장 : 목초액의 효능
제4장 : 목초액의 활용법 / 제5장 :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신비의 목초액

목초액 식첨용1Kg ..... 현재가격 207,000원 → 132,000원 (유사제품가격 : 600,000원)
목초석류엑기스 1200ml ..... 현재가격 207,000원 → 132,000원 (유사제품가격 : 495,000원)
목초석류엑기스 성분 석류엑기스90%(흑석류80%+홍석류30%)+목초액10%



저자 : 류창재(구, 창엽) 값 8,500원

창나무 간질환 · 당뇨병 · 암 · 무좀 · 각종 피부병에 놀라운 효과

목초액이 병을 고친다

현재 MBN 매경TV ch20 "류창재의 건강교실"에서 명강의 중

류창재(구, 창엽) 소개
목초액 연구가
심성교정 연구가
환경보존 연구가
사회사업가
산업강사 : 각 기업 및 단체 출강중 (인간성회복과 인간능력개발, 조직인의 근무 자세)
방송인 : 4년간 출연방송(KBS, SBS, 인천방송, 다음방송, 이텐트방송, 재능방송), MBN매경TV) 매주 6회 출연중

최신간! 명강의 테이프 포함!

심보를 고쳐야 병이 낫지

값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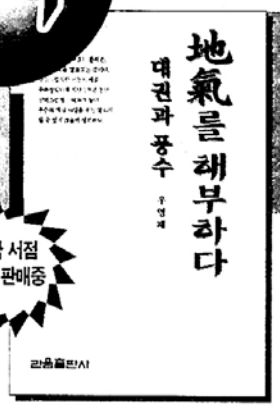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인정한 마음건강학
마음이 병을 부르고 마음이 병을 낫게 한다!

飮食과 業食에 의해 건강과 질병으로 변하는 과정

음식 → 입 → 마음 〈 부정 → 부패 → 독소 → 탁한 피 → 면역기능 저하 → 세포질병, 노화촉진
〈 긍정 → 소화 → 영양소 → 맑은 피 → 면역기능 상승 → 세포건강, 젊음유지

도서는 전화 주문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목초관련 제품 문의 및 주문도 받습니다)
전화 011-9702-8282 / 011-344-5897 / 계좌번호 : 국민은행 394-24-0006-533 (예금주 : 류창엽) / 전국 어느 서점에서나 판매합니다.

풍수 그 2천년의 신비가 벗겨진다!



우영재 지음
신국판 / 438쪽
정가 18,000원

전국 서점 절찬 판매중

형제의 신간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이 글의 핵심인 「평산구조(PS구조)」 분석은 세상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이것이 바로 풍수성립이래 지난 2천년 동안 신비스럽게만 여겨져 왔던 풍수의 핵심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사상 최초로 풍수의 핵심인 「地氣(땅기운)의 패턴 및 분포구조(=PS구조)」 발견 해부
■ 대권가문 및 몇몇 주요가문의 선영과 생가에 대한 땅기운 구조(PS구조) 분석을 통한 풍수의 신빙성 고찰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적천수 형의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헤서 명리진평 신국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祚 羅柱鎬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법룡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법룡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택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술거후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살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홍가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응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호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행복의 발견'

스튜어트 매크리디 엮음 / 김석희 옮김

휴머니스트 / 1만 8천원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행복을 갈망하는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지, 행복을 과연 느낄 수는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발견해야 하는가. 진정한 행복은 이미 우리 속에 있으며,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느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책에, 말을 걸어 보았다.

이 책에는 역사학자 · 철학자 ·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행복 탐사대가 발견한 전 세계의 행복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아돌프 에브리 作(1843~1914년), '만족', 아기를 안은 엄마와 어린 아이들, 주변의 동물들까지 모두가 현재의 상황을 행복으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역사·철학·심리학자 11명의 행복이야기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고 탐구해 온 3천여년의 역사 속에서 일궈낸 철학적 · 종교적 통찰과 과학적 발견, 그리고 동서고금의 위대한 석학들이 발견해낸 행복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여, 무엇이 인류를 행복하게 하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복'이라는 주제를 담아낸 풍부한 그림과 일러스트도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각 종교가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더, 종교마다 다른 행복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불교 부분을 살펴보자. "불교의 해탈론은 '한정된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으며, 윤회의 세상에서 자아가 경험하는 관능적 기쁨, 희열과 쾌락의 감각은 흔히 산스크리트어에서 '행복'을 뜻하는 '슈카(sukha)'라는 용어로 지칭되었다. 이와 관련된 남말은 즐거움 · 환희 · 만족 등이었다. 이 모든 것은 일시적 만족감을 통해 더 많은 고통을 낳는 것으로 여겨졌다. 초기 불교에서는 영원불변한 영혼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이 가장 높고 가장 기본적인 목표였다."

중국 철학과 종교의 행복론 부분에서는 "중국의 철학과 종교에서는 '복(福)'과 '낙(樂)'이 행복의 주요 개념이다. 하지만 중국의 3대 사상-도교 유교 불교-은 모두 '복'보다는 '낙'을 더 자주, 더 폭넓게 고찰했다. 거짓된 행복-'사물에 대한 집착'-을 거부하고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도교에 이미 예시되어 있었다."

수피즘의 행복론은 상당히 현실적이다. "수피즘의 행복 추구는 변형적이고 연금술적인 과정이다. 어떤 시점에서-예컨대 생의 주요 갈림길에서, 또는 가슴 아픈 상실을 겪은 뒤, 또는 영감을 주는 만남의 결과,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인간의 의식 속에 문득 '각성'이 일어난다. 수피들은 이 각성을 개전(啟佺), 즉 '마음의 전환'이라고 부른다."

이밖에도 인도철학과 종교의 행복론, 그리스 철학자들의 통찰, 중세 철학의 행복론, 유대 신비주의의 행복론, 중세 기독교의 행복관 등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는 모두에게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무랑수경〉의 한 부분을 급씹어 볼것을 권한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온다. 그 바람은 덥지도 차지도 않고 세거나 약하지도 않고, 기분 좋게 분다. 그 바람이 갖가지 보석 그물과 보석 나무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면 한없이 미묘한 법음을 내고 갖가지 우아한 덕의 향기를 풍긴다. 이같은 소리를 듣거나 향기를 맡으면 번뇌의 때가 저절로 사라지고, 덕풍이 몸에 닿으면 심신이 저절로 상쾌해진다."

이은자 기자 eleo@buddhapia.com

'삶을 가르치는 은자들'

피터 프랜스 지음 / 정진욱 옮김

생각의 나무 / 1만 1천원



노장~현대까지 은자들의 삶 통해 은둔의 양상·의미 다양하게 분석

〈삶을 가르치는 은자들〉은 역사상 위대한 은자(隱者)들로 기억되는 이들의 삶을 분석, 조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들이 남긴 영적인 통찰과 삶을 바라보는 지혜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책은, 은둔의 양상과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한다.

노장(老莊)으로부터 출발해 황야의 교부들, 스토레츠, 라마크리슈나와 사를 드 푸코, 헨리 데이빗 소로우를 거쳐 현대의 은자들인 토머스 머튼과 로버트 렉스 까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은자들의 삶을 보면 은둔이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선택되어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종교적인 수행과 결합되어 설명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럴 때 은둔은 보다 뚜렷하고 의식적인 합목적적 행위로 간주된다. 그들은 종교적인 영성의 획득을 통해 세상에 구원의 빛이 되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동시에 그 삶을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

황야의 교부들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 그리스도가 남긴 사막의 고행의 비유에 영향을 받아 사막에서 극단적인 은둔을 추구한다. 그들은 나뭇가지로 지붕을 덮은 돌 동굴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표방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신과의 교통을 시도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금욕을 통한 참된 인간성의 회복이었다. 라마크리슈나와 사를 드 푸코 역시, 고행과 은둔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영적인 가치를 극단적으로 말고 나갔다.

이들과는 반대로 정치적인 소신에 의해 저항으로서의 은둔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월든〉을 쓴 헨리 데이빗 소로우이다. 그는 자신이 숲 속으로 들어간 이유를 "삶을 신중하게 살고 싶고, 오로지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만을 마주하고 싶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내가 삶을 헛살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은둔은 소로우 자신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몰고 왔다. 그는 오늘날 활발하게 논의되는 시민 불복종과 생태주의 운동에 큰 영감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이 책은 은자들의 삶을 통해 현대적 삶에서의 고독과 은둔이 지니는 사회적인 의미를 밀도 있게 탐문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문제적 역사인물 17명 조명

전문기자 서평

'전환기를 이끈 17인의 명암'

이희근 지음



필자는 역사 대중화를 위한 방법으로 서술이 "쉽고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왔다. 문체가 딱딱하거나 서술이 건조하면 역사 전공 학자가 아닌 대중들은 그 글을 외면하기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의 국정 교과서일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국사 교과서가 어렵다고 고개를 흔들며 국사에 흥미를 잃는다. 근래에 일부 소장층 역사학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쉽게 쓰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소장 역사학자인 이희근님이 쓴, 그 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역사 인물 17인의 평가서를 읽어보고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저자 나름의 새로운 서술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인물은 연개소문, 의자왕, 김춘추와 김유신, 견훤, 궁예, 왕건, 묘청, 김부식, 신돈, 이성계, 원균, 이순신, 광해군, 인조, 흥선대원군, 민비 등이다. 이들 인물은 어떤 의미든 우리 역사를 이끌어 왔다. 그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와, 포폄(褒貶)의 자를 들이대기도 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들 인물을 평가하면서 시대에 따라 그 영향을 받아 야기된 사실을 부록 형식으로 덧붙이고 있다. 곧 "김춘추와 김유신의 유산, 윤관의 북벌" "태조 왕건의 유신 상속자, 광종" "태조 이성계의 유산, 왕자의 난" "인조 반정의 유산, 효종의 북벌론" 등이다. 어느 인물이 이룩한 일이 뒤 세상에 영향을 준 사실을 종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한편 이 책의 인물 평가는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추적한 것이 아니라 시대 환경과 업적을 중심으로 풀어내고 그 평가의 잣대를 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후에 일어난 역사 사실을 아울러 기록하였다. 김춘추와 김유신의 경우, 삼국 통일의 문제라든지, 왕건의 경우, 호족 정책의 폐단이라든지, 신돈의 경우, 개혁정치가 성공하지 못한 원인 등을 들었다. 또 풍부한 사료의 평가와 추적을 통해 자기 견해를 밝히고 있다. 객관적으로 설득력을 높이려는 의도일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재해석 재평가를 시도하면서 영웅사관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그 동안 김유신, 왕건, 이성계, 이순신 등을 영웅으로 받들었다면 상대적으로 연개소문, 의자왕, 궁예, 신돈 원균, 광해군 등은 막되 먹은 인물 또는 폭군으로 그려져 왔다. 한쪽이 영웅이 되면 그 상대는 추락하는 짓대를 동원한 것이다. 또 현실 개혁을 외면한 김부식 · 인조는 보수주의자인데도 묘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왔으며,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리더쉽으로 나라를 바로잡으려 하였는데도 민비를 부각시키면서 상대적으로 폄하(貶下)되어 왔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문제를 시원스러울 정도로 풀어내고 있다.

사실 재해석·평가…영웅사관 철저 배제

새로운 시대정신 따른 재평가 계속 돼야

물론 이 책에서 다룬 인물 평가는 저자 혼자만의 견해는 아닐 것이다. 그 동안 여러 역사학자들이 재해석을 모모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역사적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그 보기를 들면 근대의 역사학자 신채호는 연개소문, 묘청 등을 다루고 그들의 역사적 역할을 부각시켰으며, 이순신 · 원균의 관계와 광해군 · 인조의 대결도 꾸준히 재평가 작업을 시도해 왔다. 더욱이 흥선대원군과 민비의 갈등도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한데 저자는 '민비'라는 호칭을 쓴 것으로 보아도 실체가 없는 명분이나 지나친 과장을 배격하고 실천적이고 개혁적 인물을 내세우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필자는 이런 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필자도 그 동안 여러 인물을 다루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평가 작업을 벌여왔으며, 영웅사관을 배격하였다. 그러면서 좀더 넓은 지식과 이론적 토대가 요구된다고도 여기면서 그 한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역사 인물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따라 계속 여러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에 들어 이런 작업은 역사의 지평을 넓힐 것이다.

다만 덧붙일 말은 편파하고 대중에게 영합하려는 저널리즘과 '센세이셔널'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요즈음 상업주의가 판을 치면서 어설픈 이론을 내고도 마치 자기 독창성을 과시하려는 풍조 따위가 범람하고 있으며, 엉터리 역사책을 내고도 대중을 현혹시켜 베스트셀러를 노리는 작가들도 많이 보인다. 저자는 진솔한 역사학자로 지금의 평상심을 지니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노파심으로 당부하는 말이다.

독자들도 이 책을 읽고 나면 필자와 같은 느낌을 가질 것이며 역사 인물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얻게 될 것이다.

ㅂㅇㅇ회/역사학자

〈전환기를 이끈 17인의 명암〉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격동기이자 전환기의 시대와 그 시대를 대변하는 주요 인물 17명을 다룬 책이다. 서로 라이벌 관계였던 인물들을 통해 그 시대를 읽어내고, 승자의 기록만이 역사의 진실인가를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이 책은 역사학자 이희근씨가 썼다. 휴머니스트, 1만원

눈 있는 자 보아라! 여기 고승들의 회통(會通)치는 소리가 있다

소설로 읽어보는 큰스님들의 큰 삶, 은은한 감동의 세계로 독자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BBS 인기방송 프로

고승열전

윤청광 지음 / 신국판 / 각 권 300쪽 내외 / 각 권 값 10,000원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낱권으로도 판매합니다.

저자 윤청광은 MBC-TV 개국기념작품 공모에 소설 〈末島〉가 당선되었으며,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거쳐 현재 〈법보신문〉 논설위원, 법정스님이 제창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본부장, 출판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고 다수의 작품들이 있다.

고승열전

아도화상 • 향은 제 몸 태워 온 세상 향기롭네
겸익스님 • 버리고 사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일세
원광법사 • 인생은 한 토막 꿈이로다
자장율사 • 백년도 못사는데 무엘 그리 탐내는가
원효대사 • 걸림없이 살세나 물처럼 바람처럼
의상대사 • 마음을 비우시게 온갖 근심 사라지네
보덕스님 • 지혜의 눈뜨면 행복이 열리거늘
진각국사 • 부처되기 쉽다네 자비롭게 살게나
일연큰스님 • 그대 몸안에 있는 여섯 도둑부터 깔으시게
원감국사 • 극락도 지옥도 마음속에 있다네
경허큰스님 • 착한 일 많이 하게 그대가 부처일세
용성큰스님 • 작은 솔씨가 푸른 소나무 되네
영호큰스님 •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네
만공큰스님 •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괴롭네
한암큰스님 • 바구니에 물을 담고 달려가누나
만암큰스님 • 마지막 입는 옷엔 주머니가 없네
효봉큰스님 • 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동산큰스님 • 벼슬도 재물도 풀잎에 이슬일세
운허큰스님 • 영원한 내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네
경봉큰스님 • 돌장승이 허허롭게 웃누나
금오큰스님 • 한 생각 돌리면 천하가 다 내 것일세
전강큰스님 • 촛불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진다
고암큰스님 • 도(道) 물을 것 없네 복밥이나 가꾸게
청담큰스님 • 마음에 타는 불 무엇으로 끄리는고

재미! 감동! 교훈!

당신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위대한 스승들의 포근한 가르침!
전국 불교방송 애청자들을
열광시킨 〈고승열전〉!

고승들의 선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 있음을 이 책에서 맛볼 수 있게 한다.
- 암도스님(전 포교원장 • 백양사 청량원) -

〈고승열전〉을 통하여 불교의 진수와 만난다. 허허롭게 웃는 돌장승이 내 앞에 다가서고, 마음에 타는 불을 끄게 한다.
- 명난자(수필가) -

한 번은 꼭 읽어 보라! 친근하고도 박진감 넘치는 고승들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를, 그 재미와 감동은 손에서 쉽게 책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 박경준(동국대 불교학 교수) -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E-mail / wonbook@chollian.net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전도선언과 불교의 이상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진리의 수레를 굴리기로 결정한 장소가 녹야원이었다는 것은 설명한 적이 있다. 바라나시의 근처에 있던 녹야원에는 수많은 사상가, 문학가, 수행자들이 거주하고 있었기에 당신이 깨달은 법을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도 했다. 처음 다섯 비구를 교화한 이래 방황하고 있던 야사라는 젊은이를 교화하여 출가시킨다. 야사는 부호의 아들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청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했다는 점에서 주변 친구들에겐 놀랄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야사의 친한 친구들 54명도 부처님을 찾아와 설법을 듣고 출가하게 된다. 어느덧 60명에 이르는 제자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 어느날 그들의 공부가 모두 익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 놓고 각자 전도를 위해 길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비구들아, 그대들은 이미 해탈을 얻었다. 이제 사람과 하늘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법을 전하러 떠나거라. 다른 마을로 갈 때 같은 길을 두 사람이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하느니라. 이치에 따라 조리와 표현을 갖추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을 전하라. 원만 무결하게 청정한 실천을 설하라. 중생들 가운데는 번뇌가 적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하면 악에 떨어질 것이나 법을 들음으로써 성숙해질 것이다. 비구들아, 나도 이제 법을 전하기 위하여 우루벨라의 병장촌으로 가리라"

이상이 〈잡아함경〉 제39경에 나오는 전도선언문 전문이다. 세계종교 역사상 최초로 전도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상의 선언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는 해탈을 얻어 아라한이 된 출가자들은 인간과 하늘(데와)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전도의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해탈을 체득한다는 것은 영겁의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입장에서 인간과 하늘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전도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은 불교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출가자는 인간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두 사람이 가지 말고 오직 한 사람씩 유행하라고 당부한다. 비구 개개인은 수행에서 오는 즐거움에 탐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도구로 인간세상을 교화하는데 존재 의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스리랑카의 윌폴라훌라 스님의 '불국정토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비구가 되는 것이란 말은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다가온다.

셋째 방법론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도 훌륭해야 하지만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잡아함경〉 제13경에는 부루나존자가 수로나국으로 전도를 떠나기에 앞서 부처님을 찾아뵙게 된다. 이때 부루나 존자는 부처님에게 맞아 죽더라도 결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제도 받지 못한 사람을 제도하며, 그들을 열반으로 인도하겠다고 맹세한다. 이에 부처님께서 부루나 존자를 칭찬하며 격려하는데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넷째 조리에 맞게 표현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리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은 고, 무상, 무아의 가르침에 알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원만하고 완전무결하게 청정한 실천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살생, 투도, 간음, 망어, 소유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한다. 당시의 수행자들이 지켰던 인도 전통의 규범이었다.

여섯째 설사 중생들의 근기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은 그들이 법을 듣게 되면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기에 따라 다양한 비유와 설화 등을 빌어 설법하는 것이다.

일곱째 부처님 자신도 기지촌(병장촌)으로 가서 열심히 법을 전하겠다는 것은 권위가 아닌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신 것이다. 초기불교 시대에 불상대신 부처님의 평발을 불교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은 맨발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교화하다 평발이 되신 부처님의 정신을 영원토록 계승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종교적 실천가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추구하셨던 이상이 바로 전도선언에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들, 특히 출가자들이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내용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나도 전법위해…" 사상 첫 전도선언

불국토 건설 · 솔선수범 정신 담겨

투철한 참회·계행으로



가까이서 뵌 월 성 스님(장수 성관

절삼매로 무아경지 맛 봐
염불삼매땐 33천 대천세계에
화두 타파하면 절대세계 체험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 32-2번지. 장계면의 넓은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산자락에 자리잡은 성관사. 주변 지형은 백학이 나는 형국으로, 남덕유산 지맥인 깃대봉에서 수많은 학이 날아와 모이를 쪼아먹는 곳에 성관사가 들어서 있다.

15일 구불구불한 산길을 헤치고 도착한 성관사에서는 설법전과 수련관 건립 등의 건립불사가 한창이었다. 그러나 수백 미터 위쪽에 자리잡은 대각선원은 19일 동안거 결제를 며칠 앞두고 이미 23명의 수좌들이 정진에 들어간 상태였다.

종무소에서 대각선원장 월성 스님을 친견하기에 앞서, 상좌인 주지 성진 스님을 만나 큰스님에 대한 이모저모를 여쭈었다.

"큰스님은 절 하기와 염불, 독경을 통해 망상을 정리하고 삼매를 체험한 후 화두를 잡으면 7일이면 화두가 타파된다고 하세요. 만약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세월만 낭비할 뿐 화두 타파는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대각선원에서는 결제 동안 가까운 산으로 등산조차 금지될 정도로 계율이 엄격하다고 한다. 오신채는 물론 초콜릿, 우유, 빵도 함부로 먹을 수 없다. 사사로운 음식에서 나오는 인연법도 허투루 여기지 않을 정도로 선원의 청규는 서릿발 같다. 이렇게 3년만 공부하면 많은 악습이 떨어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진 스님의 말이다.

주지 스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 중화당에서 월성 스님을 친견했다. 온화한 미소가 시골 할아버지 같은 월성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숭을 내건 정진을 강조하신다.

"옛날에는 조계 가풍에서도 염불은 기초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업연(業緣) 많은 중생은 머리를 깎아도 망상이 많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이만심이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절을 통해 참회하고, 계행을 철저히 닦아 수행의 근기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스님의 경험에 따르면 절은 망상을 제어하기에 가장 좋은 방편이다. 수천 배를 하다보면 망상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지고, 저절로 하심(下心)이 된다. 그래서 월성 스님은 절 하기와 염불 정근을 잡초 즉, 번뇌와 업장을 녹이는 '배추밭 김매기'에 자주 비유한다.

배추밭에 잡초가 없다면 배추는 잘 자라게 된다. 이때 배추 씨앗은 자성불(自性佛)이다. 다겁의 윤회를 통해 자란 잡초들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힘든 고행도 소용이 없다. 수많은 전생의 수행을 통해 득력(得力)한 상태가 아니라면, 몸과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득력해야 한다. 득력이 되면 자성불은 저절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때 화두는 타파된다. 참선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스스로 지치고, 가르침도 받을 수 없다.

스님은 45세가 되기 전까지 20여년간 하루 1만2천배 기도를 5~6년씩 3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거의 매일 3천배 절하기를 한 초인적인 원력을 보여주었다. 100일씩 나눠 300일씩 하는 1만2000배 기도를 통해 망상을 제거하고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때 1만2천배 기도는 반야심경 221편, 천수경 121편 독송, 참회의 절 3천배, 신도를 위한 절 3천배 등으로 진행되었다. 스님은 보리를 한 말 빻아놓고 보릿가루 한 컵을 마시며 24시간을 견뎠다. 한 말이면 100일을 먹을 수 있었는데, 소변과 대변은 열흘에 한번만 보아도 몸에 이상이 없었다.

그때 스님은 '절 삼매'에 빠져 하루 종일 1만2천배를 해도 1분을 했는지, 한 시간을 했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신도들이 공양을 들라고 해도 며칠째 모르기도 했다. 스님이 계속 '석가모니불'만 부르며 절하다가 비틀거리며 걸어나오면 신도들이 '스님 돌아가신다'며 펑펑 울기도 했다. 이때 돌아가실 것처럼 정진하던 모습을 지켜본 신도들도 따라서 열심히 수행했다 한다. 지금은 노인이 다 된 성관사의 신심 깊은 우바새, 우바이들이다.

"내가 3천배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상相이 남아 못된 스님의 가사자락만 보아도 싫을 때가 있었지만, 1만2



◇ '목숨을 내건 용맹정진만이 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월성스님은 '큰 서원이 큰 열매를 맺는다'고 말한다.

월성스님은?

절수행 · 염불정근 · 화두선 겸행 선사

"절 하기와 염불, 독경 등 기초수행을 통해 득력(得力)하면 화두 참구가 훨씬 빠르다."

20여년간의 절 수행과 나무 석가모니불 '염불정근을 기초로 화두선 수행을 멋지게 마무리 한 선사이면서도 일반 신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월성 스님. 1935년 충북 보은군 회북면에서 출생한 스님은 21세 때 성운 노사를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스님은 처음 '절 수행'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인욕바라밀을 닦았는데, '10년 동안 절을 해서 부처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스스로 떠나겠다'고 다짐했다.

월성 스님은 45세가 되기 전까지 하루 1만2000배 기도를 5~6년씩 3번에 걸쳐 하는 등 하루 평균 3천배의 절을 하며 염불-독경하는 고행을 해 신도들을 놀라게 했다. 스님은 31세에 인천 용화사 조실 전강 선사로부터 '이 뭐꼬' 화두를 받았지만, 본격적인 화두 참구는 36세에 성륜사 조실 청화 스님을 은사로 모신 뒤 염불선으로 득력한 후인 46세부터 본격화됐다. 이윽고 스님의 화두 참구는 49세에 경봉스님 회상인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큰 결실을 맺었다.

이후 스님은 제자 양성을 위한 도량 건립 불사에 운력을 마다않고 정진하면서도, 잠시도 화두를 놓지 않고 있다. 현재는 서울 상계동, 남양주, 송탄에 창건한 같은 이름의 사찰 '성관사' 네 곳과 대각선원에서 수좌들을 지도하고 있다. 25명의 출가상좌가 있으며, 이중 14명이 동국대 출신이다.

서북토종오가피농장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농장에서는 오직 유기농법으로만
오가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제 품 : 오가피추출액, 묘목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 3리 9-5

서북오가피농장
전화 : 031-682-5033
팩스 : 031-682-5034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 / 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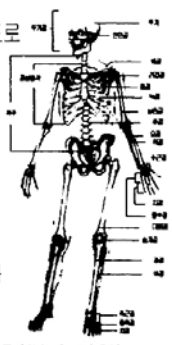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동승복 직원일동 -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 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5 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250,000 순면누비 ₩160,000
8 서츠 ₩50,000 (지이나팬 리운드형) 바지 ₩60,000
₩30,000

※ 적삼, 가사, 부방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합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옆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수행근기 갖춰야

스님

(대각선원장)



◇'절 하기와 염불, 독경 등 기초수행을 통해 득력하면 화두 참구가 훨씬 수월하다'고 강조하는 월성스님.

배 정진에 들어갔을 때는 무아지경에서 업장이 녹아내는 걸 느꼈습니다. 눈은 아래를 보고 있어도, 등 뒤에서 청난 용광로와도 같은 불덩어리가 내 몸을 관통하더군 이 불구덩이가 지나갈 때 탐진치 삼독과 일체의 번뇌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이 찾아드는 걸 체험했습니다. 여 서 혜안(慧眼)과 식(識)이 열리는 것이지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깨닫는 참된 '기도'는 그대 스스로를 정화시키고, 주변환경을 진리공덕으로 장엄게 한다. 즉 '절 수행'은 제불보살에게 구하여 얻겠다는 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원만구족한 불보살님의 마음로 회복시키는 수행방편이었다.

엄청난 절 수행과 염불, 독경으로 수행력을 얻게 된 스은 어느 절에 가도 조실 스님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허 송광사 방장 구산 스님은 스님을 꼭 끌어안고 옆에 하시면서 상좌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셨다.

"이 눈깔 먼 놈들아, 절해라."

30대 중반 무렵, 하안거 결제를 하고 일주일쯤 접어들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두를 타파하면 필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우주와 하나가 되는 절대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님은 3천대천 세계를 체험하고 화신불 응신불 법신불을 친견할 수 있는 '절 삼매'와 '염불 삼매'는 탐진치가 멸한 '화두 삼매'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염불 삼매는 이른바 관세음보살의 세계이며, 화두 삼매의 경지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절대세계로써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스님은 환희심을 불러일으키는 염불 삼매의 경지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절과 염불로 삼매를 얻어 무아의 경지를 체득하고 망상을 조복받으면 화두는 저절로 타파되기 때문이다.

월성 스님의 화두 참구는 31세에 인천 용화사 조실 전강 스님을 친견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월성 스님이 전강 스님을 찾아갈 당시 용화사에는 답도 없어서, 2천여명 정도가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월성 스님이 들어갈 수 가 없어 대문 쪽에 그냥 서 있는데, 법상에 앉아 계시던 전강스

진정 확철대오 원한다면

남위해 살고 아상 극복해야

때 구산 스님이 같이 살자고 말씀하셨다.

"결제 중에 어찌 그런 말씀이십니까?"

"자네는 결제가 필요없는 사람이야. 여기 나하고 같이 방에서 사시."

저질러 놓은 일도 있고 업이 많습니다. 스님, 다음에 기가 있으면, 한번 뵙겠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정진은 절, 염불, 독경에 머물수 없었다. 수행과 염불정진으로 나타나는 경지인 '절 삼매'와 '염 삼매'는 참선정진으로 드러나는 '화두 삼매'와는 비교되지 않기 때문이다.

'절 삼매로는 무아(無我)의 세계를, 염불 삼매로는 화엄과 법화경에 나오는 불보살의 세계와 33천 대천세계를

님이 손짓으로 불렀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어 가까이 다가가니 전강 스님이 말씀하셨다.

"귀 좀 줘."

"칼을 가져오지 않아 귀를 잘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귀를 이리 좀 대봐."

그러시더니 전강 스님이 월성 스님의 귀를 잡아당기며, 소곤소곤 말하는 것이었다.

"얼굴을 보니까, 여기 2천명이 앉아 있어도 너밖에 공부할 놈이 없어. 그래서 내가 불렀어. 언제 기회가 되어서 화두를 공부하면 '이뭐꼬'를 챙겨라."

그러나 본격적인 화두 참구는 36세에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을 은사로 모신 뒤 염불선으로 득력한 후인 46세부터 본격화됐다. 결국 스님의 화두 참구는 49세에 경봉 스님 회상인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큰 결실을 맺는다.

극락암에서 옛새가 되는 날부터는 화두를 한번 챙기면 하루 종일 끝도 없었다. 그때는 길을 가다가도 의심만 챙겨지면 알지 못하는 선정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한 달 하루 동안의 선정체험을 통해 '나'라는 것을 찾을 길이 없으며, 우주와 하나됨을 알게 됐다. 21세부터 해인사, 통도사, 봉암사, 백양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한 후 30여년만에 얻은 실로 감격적인 소식이었다.

월성 스님은 화두 참구에 앞서 절 수행과 염불, 독경 등의 정진이 필요한 이유를 땅에 말뚝을 박는 데 비유했다.

"말뚝을 땅에 박을 때 계속해서 크게 해머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몇 번은 살살 두드리고 다시 힘을 모아서 크게 내려칠 때 말뚝은 땅 속으로 깊이 박히게 됩니다. 화두 참구도 이와 같아서 평소의 정진에 의해서 얻어진 힘의 바탕 위에 용맹정진을 통하여 선정의 힘이 크게 증장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말뚝 박듯이 온 정성과 힘을 기울인다면 안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숨을 건 스님의 용맹정진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스님은 28세에 삼각산 법화사 옆, 호랑이 굴에서 31세까지 토굴 정진을 했다. 당시 이 곳에는 호랑이 들이 많아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는 곳이었지만, 스님은 호랑이와 몇 번이나 마주치면서도 '도를 닦는다는 사람이면 자기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각오로 위험을 무릅쓰고 동굴에서 정진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한 겨울 호랑이 두 마리와 맞닥뜨려 죽을 지경에 처했다. 호랑이가 혀로 스님의 얼굴을 거칠게 핥는 위기일발의 순간에 스님은 "내가 전생에 업을 많이 지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잔인하게 굴었다면 내 목숨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도와줬다면 너희들도 나를 돕고 갈 것"이라며 태연하게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삼매에 들자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월성 스님은 요즘도 깊은 잠에 들지 않는다. 20여분씩 잠깐 귀잠을 잘 뿐이다. 좌선할 때나 포행할 때는 물론 잠을 자면서도 숨소리를 들으며, 화두를 놓지 않는다. 이른바 보림의 과정이다. 옛 스님네들은 견성 이후의 수행 즉 '볼행(佛行)'을 늦추지 않았다. 오랫동안 중생으로 살아온 습이 한 순간에 떨어져 나가긴 힘들기 때문이리라.

스님은 불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어릴 때부터 이웃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평소 '중은 공인(公人)이다'고 강조해 온 스님은 요즘도 제자들에게 기도후 세계평화와 인류평화, 조국평화통일, 국가재난 소멸, 국가 안녕과 태평, 육도중생의 성불을 발원할 것을 꼭 당부한다. 남을 위한 기도는 결국 자신을 위한 기도요 수행이며, 이런 발원이 쌓여야만 보다 큰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성취도 빠르기 때문이다.

"얼마나 큰 공부를 하고 큰 성과를 얻느냐는 얼마나 큰 발원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세계평화와 조국통일, 온 국민이 삼세업장을 소멸하고 왕생극락하길 발원하는 것은 큰 공부를 짓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 확철대오를 원한다면 남을 위해 살고 아상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글=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insoo@buddhapia.com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천호스님



천호스님을 처음 만난 것은 90년 여름 강원도 정선근처의 깊은 산골 외딴 토굴에서다. 강원의 여름방학을 맞아 성전스님을 비롯 몇몇 도반들과 만행을 나선 길에 천호스님이 혼자 머물고 있다는 토굴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기인처럼 산다는 천호스님에 대한 이야기와 강원도 깊은 산골이라는 매력에 빠져 그 곳을 찾게 된 것이다. 밭농사를 지으며 약초를 캐며 살던 사람이 버려 둔 집을 일년간 빌려서 산다는 그 곳에 비포장 길의 덜덜거림에 지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일행의 피로만큼이나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앞선 성전스님이 "천호스님~" 하고 외치며 앞서 가고 토굴스님을 위한 먹거리며 물품을 챙긴 도반들이 혹시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함께 더듬거리며 뒤쳐져 따라가고 있었다. 잠시 뒤 천호스님과 함께 지내는 듯한 처사 한사람이 지게를 지고 마중나와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물건을 받아진 처사는 거친 돌길과 작은 냇물을 앞서 걸으며 차근차근 길 안내를 하여 곧 허름한 농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발 일찍 도착하여 막 걸망을 내리고 우리를 맞이하는 성전스님은 혼자였다. '혹시 천호스님이 어디 출타한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천호스님은?"하고 묻는 우리에게 씩~ 웃으며 눈짓으로 우리를 안내해온 처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작업복차림에 머리와 수염도 적당히 자라 있었고, 먼저 스스로를 스님이라고 밝히지 않아 해인사의 칼같이 엄격한 대중살이를 하던 우리로서는 선뜻 스님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어쨌거나 잠시 같이 오면서도 스님으로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처사처럼 대한 것에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늦은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때고 방 정리를 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도 '스님이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때로 계를 받고 나서도 스님들은 신분을 숨기고 행자생활을 하기도 하고, 공장에 가서 노동자로 일을 하기도 하며,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거나 아는 스님들을 만나게 되면 스님으로서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늦은 저녁을 마치고 흙냄새 풍기는 좁은 방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천호스님은 얼마전까지 근처의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일을 했었고, 그러다가 무너져내린 흙더미에 다리를 다쳐 대충 치료를 하고 휴양겸 해서 그 곳 토굴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밤늦도록 나눈 차와 이야기로 다음날 늦은 아침을 먹고 함께 산행에 나섰다. 앞장서 안내하며 풀어놓는 산 골짝골짝 품은 이야기들이며 나무와 풀꽃들의 이야기, 그리고 버섯, 물고기며 약초 등의, 듣기만 해도 푸짐하고 넉넉한 이야깃거리와 천호스님의 수더분하면서도 사람을 끄는 구수한 말투는 정말 산골생활 오래된 심마니와 다름없이 해박했다. 어눌하지만 분명한 언어선택으로 이야기를 하고, 깊이를 가진 맑은 눈매에 농사꾼같이 부담없는 행동과 삶의 방식은 강원생활 중 스님으로서의 걸모양에 집착이 강했던 나에게 새로운 충격이 되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집을 떠나 멀리 강원도 오대산으로 출가한 천호스님은 출가하였지만, 오롯하고 반듯한 스님생활과 수행 말고도 해보고 싶었던 일이 많았던 모양이다. 탄광의 광부로, 산골의 농사꾼으로, 한때는 멀리 알래스카의 바다를 떠도는 원양어선을 타기도 하며 젊은 열정과 에너지를 세상사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치며 발산하

젊은 열정 삶의 현장서 치열하게

광부 농부로 원양어선 타고 만행

기도 했단다.

해가 지나고 성전스님으로부터 천호스님이 다시 산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탄광촌으로 가서 생활하다가 당시 처음 시행되었던 '확사고시'에 응시했는데, 전국수석인가를 차지해서 언론과 방송을 타게 되었고, 마침 방송을 본 은사스님이 찾아가 다시 승복을 입은 것이다. 산으로 돌아온 스님은 100일 기도로 그간의 만행을 정리하고는 걸망을 멘 선방 수좌의 길을 걷고 있다.

천호스님은 감성이 풍부하고 시를 좋아해 입을 열면 밤을 새워 외울만큼 시를 외우고, 책을 잡으면 그 현지를 꿰뚫을 지혜가 있으며, 몸으로 부딪치는 노동과 육신의 고단함도 두려워 않고 도전하여 견딜 줄 아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출가 전에 월급봉투 한번 받아보지 못했음이 늘 아쉬움인 나에게 천호스님의 만행담은 부러움을 넘어 경이로움이다. 또 정진의 길에 들어서는 뒤돌아보지도 곁눈질하지도 않고 한 길로만 향하는 우직함은 빨리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은 바람과 더불어 좋은 도반을 가진 큰 위로와 넉넉함이 되어주곤 한다.

문득 바람처럼 찾아와 잠시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곤 별 기약 없이 홀연히 떠나지만 천호스님의 자리는 늘 든든하고 따뜻하다.

▩ 서산 부석사 주지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육임학당「曉史塾」제4기 강의 안내

● 강의시작 : 2002년 12월 6일(금) 오후5시부터 매주 금요일 4시간씩
● 등록마감 : 2002년 11월 30일까지
● 등록비용 : 일백오십만원(카드결제 가능: 효사육임강의록 교재 포함)
● 기 간 : 3개월 13주 52시간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 영 란

정통 육임강의 제4기를 모집합니다.

육임학당에서 3개월 공부를 마치면 「비영리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에서 시행하는 「육임고시」를 치른후 한국육임학회 회원으로 영입되어 정통 육임가로 활약하게 됩니다. 육임은,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한 육임가의 판단 능력을 따를 수 없는 정단 비법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절박한 문제를 물어옵니다. 이러한 급한 것을 확실하게, 즉시 「된다 안된다, 좋다 나쁘다, 해라 마라」 예언해 주어야만 세태인심은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육임은,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 같아서 인사(人事)에 있어 으뜸된 신시(神示)요, 오술지중제왕(五術之中帝王)인 것입니다. 육임을 만나면 활인천역자로서의 능력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각 지역 강의안내

육임학당 광주숙 제2기	● 개강 - 11월 25일	● 전화: 011-9606-7090
육임학당 대전숙 제2기	● 개강 - 11월 26일	● 전화: 016-445-4580
육임학당 인천숙 제2기	● 개강 - 11월 27일	● 전화: 011-729-6011
육임학당 복경숙 제2기	● 개강 - 11월 30일	● 전화: 02-3446-4118
육임학당 일경숙 제2기	● 개강 - 12월 3일	● 전화: 02-2203-4805

육임학당 曉史塾 직통 02-996-3335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0-49 일심빌딩 401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하차 8번출구 강북구청 왼쪽 옆건물)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출시

이 책은 비쌉니다! 그러나, 내용은 몇배 더 비쌉니다!
한문을 몰라도, 출생 년월일시를 몰라도, 만세력을 펼치지 않아도,
오생공부를 하지 못했어도,
찾아(전화)온 시간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 귀신 침범을 정확히 잡아 낼수 있고 그 귀신을 물리칠 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이 귀신을 밝히면 그 집안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 받게 됩니다)
■ 병자(病者)가 지금 어떤 귀신의 침해로 병들었나를 잘 밝히게 됩니다. 해소 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그 귀신만 시식하면 병이 낫게 됩니다)
■ 천도 시식 굿의 효과를 미리 알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 활인 능력이 단박에 높아지고 살림이 편안해 집니다.
이점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 산소탈을 잘 밝혀 내게 됩니다.
그 해소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누구의 산소 인가를 알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정 빌미 사승을 밝히게 됩니다.
그 처방이 써져 있습니다.
(집안 누구에게 어디서 왔는가를 알게 될뿐 아니라 해소를 시켜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절박한 문제들을 물어옵니다. 내일 모레 되어질 일을 묻는데 기도 치성만 하라고 해서 속시원한 해답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급한 것을 확실하게 즉시「된다 안된다, 좋다 나쁘다, 해라 마라」대답해 주어야만 세태 인심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은 사법(邪法)이 아니라 아만공고(我慢供高)를 경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가 안되신 분은 이 책을 보시면 해결됩니다.

값 : 2,500,000원 (신용카드 결제 가능) 전 12권 (부록 : 비디오 포함) 우단금박표지, 적색모조지, 8절크기, 메일 차트식 바인더

주문안내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목문
■ 주문전화 : 02-993-8680 · 02-996-3335 부산지사 051-851-2349

북한국보 4점등 고구려유물 12월6일부터 서울서 특별전

중앙일보와 (주)SBS,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가 공동 주최하고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재일본조선력사고고학협회'가 특별후원하는 '특별기획전 고구려' (부제: 평양에서 온 고분벽화와 유물)가 12월 6일 코엑스 3층 특별



◇세겹 연꽃을 두른 둥근 대좌 위에 불꽃무늬의 광배를 한 북한의 국보 금동갈광삼존불(높이 32cm). 이 불상은 평양의 고구려 왕궁터에서 출토됐다.

전시장에서 개막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북측의 국보 4점중 불교유물로는 영강7년(551년) 금동광배(A-진 본지 396호 1면)외에 높이 32cm인 연가7년(539년)명 금동일광삼존불이 있다.

특히 하나의 대형 광배면에 삼존불(三尊佛)을 배치했다는 의미의 금동일광삼존불은 광배 뒷면에 국립중앙 박물관이 소장한 연가(延嘉)7년명 금동여래입상(국보119호 · 경남 의령 출토)과 똑같은 내용의 46자 명문이 새겨져 있고 형상 수법도 비슷해 같은해에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연가 7년명 금동여래입상은 주조한 다음 굳기 전에 예서체로 명문을 새기고 금동일광삼존불은 굳은 다음에 해서체로 새긴 것이 좀 달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평양의 고구려 왕궁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금동일광삼존불은 세겹 연꽃을 두른 둥근 받침대 위에 불꽃무늬의 광배를 지고 서 있는데 얼굴표정과 손가짐, 옷주름, 광배의 무늬 등이 모두 연가7년명 금동여래입상과 같이 형상된 불상이다.

세 부처는 모두 속을 둥글게 하고 거기에 혈심을 세웠으며 불신과 광배, 받침대를 다 따로 주조해 한데 붙였다. 또 본존불의 가름한 얼굴과 밖으로 보이게 한 넓은 손바닥, 가슴 아래에서 양켠으로 뻗어내린 옷자락과 그 사이에 생긴 옷주름 등은 이 시기 거의 모든 삼존불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주조 기법을 띠고 있다.

이외에도 평양시 역포구역 무진리에 위치한 5세기 고구려 사찰로 그동안 절터만 남아있다가 최근 복원된 정릉사를 1백분의 1 비율로 축소한 모형도 선보인다. 동명왕릉 앞에 세운 정릉사는 부지가 약 3만㎡에 이르는 큰 사찰로서 주위를 모두 회랑으로 둘러 막았으며 남북 132cm, 동서 223m에서 18채의 집터, 10개의 회랑터가 발굴된 바 있다.

금동일광삼존불·정릉사 모형 등 볼거리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북측의 국보 4점중 불교유물로는 영강7년(551년) 금동광배(A-진 본지 396호 1면)외에 높이 32cm인 연가7년(539년)명 금동일광삼존불이 있다.

특히 하나의 대형 광배면에 삼존불(三尊佛)을 배치했다는 의미의 금동일광삼존불은 광배 뒷면에 국립중앙 박물관이 소장한 연가(延嘉)7년명 금동여래입상(국보119호 · 경남 의령 출토)과 똑같은 내용의 46

볼자라면 평양시 대성구역에서 출토된 불교경전 두권과 숫기와막새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승환 민화협 사무처장은 "전시회에 맞춰 북한 학자 4-5명을 초청할 예정"이라며 "남북의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활발한 분석과 트론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한지에 살린 파괴 너머의 창조 | 온몸에 상처 팔·발만남은 부처등 태국불상·앙코르와트 앵글에 담아

사진작가 이정진씨 '2002 붓다展' 열어



◇황폐화된 태국의 불상을 한지위에 감광유제를 발라 인화한 이정진씨의 사진작품 '2002 붓다'

고독하고 금욕적인 수묵의 세계가 사진으로 펼쳐진다. 이미지를 한지 위에 인화하는 사진 작업을 해 온 사진작가 이정진씨가 12월 14일까지 한미갤러리에서 '2002 붓다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이정진씨는 과거의 흔적만을 남긴채 황폐화된 태국의 불상과 앙코르와트의 고습을 앵글에 담았다.

발만 남은 부처, 온몸에 상처 투성인 부처, 팔만 있는 부처 등 이씨의 사진 속에 등장하는 부처는 온전히 제모습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다. 더욱이 한지 위에 감광유제를 발라 인화하는 독특한 작업 방식 때문에 이씨의 작품은 마치 수묵 기법으로 다루어진 한쪽의 회화처럼 보인다. 이런 인화 방식은 사진 제작영역의 폭을 넓혀주고 기계가 가지는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앙코르와트 고목의 뿌리와 가지에서는 자연의 리듬이 살아 숨쉬는 생동감마저 느껴진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창조와 파괴, 예술과 비극이라는 대서사시를 보는 듯한 감동과 수묵화가 지니고 있는 정신적 깊이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미술평론가 이경성 교수(홍익대)는 "화려한 색채의 욕망을 누르고 금욕적인 수묵의 세계를 탐닉하는 그의 작품은 동양화가 지닌 수묵의 정신적 깊이를 느끼게 해 준다"며 "디지털의 기계적 완벽성을 지양하고 섬세한 수작업을 고집하기 때문에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 감상하게 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91년 뉴욕대 대학원 사진과를 졸업한 이정진씨는 97년과 99년 미국 LA 페이스웨스트타인 맥길 갤러리에서 '파고다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그의 작품들은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 휴스톤 미술관, LA카운티 미술관 등에 소장돼 있다. (02)418-1315

김주일 기자 jeni@buddhapia.com



◇좋은벗 풍경소리의 19번째 창작찬불동요 앨범.

풍경소리 찬불동요 15집 '부처님마음' 등 11곡 수록

좋은 벗 풍경소리의 15번째 창작 찬불동요 작품집이 나왔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 곡 '눈 내리는 날'을 비롯해 '부처님 마음', '새벽예불II', '부처님 탄생', '부처님 안아주세요', '우리는 3중주', '부처님 찬가', '님께 드려요', '눈썰매', '가을' 등 11곡이 수록돼 있다. 또 음반 말미에는 각종 법회나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록곡 전부에 대한 반주 음반도 실어 놓았다.

정유탁씨는 "이번 앨범은 온통 새하얀 들판 위를 동심의 마음으로 신나게 뛰노는 풍경을 주로 담았다"며 "한곡 한곡 불리는 노랫소리가 소복하게 쌓여가는 눈송이처럼 부처님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지길 바란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02)723-9836 www.budson.or.kr

김주일 기자

시·음악…니르바나 콘서트 29일 비구니회관 강당서

불교 전문 실내악단 니르바나(단장 강형진)가 29일 저녁 7시30분 비구니회관 1층 강당에서 '시와 음악이 있는 콘서트'를 연다.

행원문화상 수상기념 공연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사회를 맡은 진명 스님(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MC)이 니르바나의 반주에 맞춰 시 낭송과 함께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탄생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야기 중간에는 하이든과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첼로 트리오 소품과 독주', '오페라 아리아', '찬불가', 팝송인 '마이웨이', 상송인 '고엽'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연주된다. 피아노는 강유정, 바이얼린 강형진, 첼로 이현정, 소프라노 박정희씨가 각각 맡는다. (02)3411-8013

통일서예대전 대통령상 변형문씨

12월13일~22일까지 예술의전당서 전시회



◇대상을 받은 변영문씨의 한시 전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스님)가 후원하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청정국토만들기 운동본부, 통일문화연대, 종교문화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통일서예대전'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에 변영문 씨(한국 서예 협회 부이사장)가 선정됐다. 변씨의 작품 '南北交流 昌國運 天地合德 樂民心'은 남북이 서로 교류하니 국운이 창성하고 천지가 덕을 합하니 민심이 즐겁다는 내용의 한시 전서로 결구의 창의력이 뛰어나고 조형미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통일서예대전 운영위원회는 통일서예대전 국회의장상에 이원선(한문부분), 국무총리상에 김정숙(한글 부문) 등 총 572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선정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서 1000여점의 공모를 받아 19명의 심사위원(위원장 정도준)을 선정했다"며 "2단계에서 걸쳐 엄정한 심사를 했으며 최종과정에서 수상자 20인 모두 현장휘호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수상작품은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예관에서 북한의 서예 작품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 13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입산 출가 후 줄곧 참선 수행에 정진해온
한 납자의 구수하면서도 진솔한 수행이야기!!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수행, 가슴을 저미는 애틋한 사연, 세속을 떠난 여유,
피식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 우리 삶을 일깨우는 작은 울림

토굴土窟이야기
선방 이야기
능인 스님 지음

맵고 한맛에 길들여졌다가 양념 하나 안된 자연식을 맛보았을 때의 느낌이 이럴까. 복잡한 사회에서 숨돌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청량제가 될만한 책. 읽다보면 문득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선 듯한 느낌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대한매일신문

국판/230쪽/7,500원

티베트 밀교 무상 심요법문 【無上心要法門】

티베트 밀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수인법문〉에 대한 해설!

심요 법문이란 마음 수행의 길에서 항상 수지하면서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수 있는 짤막한 몇 구절의 요약된 법문을 말한다.
〈대수인법문〉은 대승의 교의를 통달하여 증득에 이르는 길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심요 법문이다.
이 원문을 자주 독송하고 심요로 삼아 호지한다면 흐트러지기 쉬운 일상생활에서 흔들림 없고 굳건한 수행심과 신앙심을 지니게 될 것이다.

박건주 역해/국판양장/205쪽/8,000원

원리를 알면 漢字를 쉽게 깨우칠 수 있다!

한자는 대부분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이거나 추상적인 지사문자, 그리고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나 글자의 어원을 이해하면 그것을 확장하여 다른 글자의 뜻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이제 나도 한자 전문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재미있게, 쉽게 익히도록 이야기식으로 꾸미고 있는데, 글자마다 그 글자가 본시 어떤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나 하는 어원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자말을 응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1,800여 한자를 중심으로, 반복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신용태 저/신국판/554쪽/17,000원

한 권으로 끝내는 한문 문법과 해석! 알기쉬운 한문해석법
심재동 지음/신국판/383쪽/12,000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다운빌딩 5층 전화 02)3672-7181~5 (출판부) 926-8361

콩잎·연근물김치 어떤 맛일까

2002 김치엑스포 국내외 500여 제조·포장·저장업체 참가

재료·지역별 특징·기후따라 독특한 맛

버섯 재료 등 30여종 사찰김치 눈길

김장철이 돌아왔다. 올해는 일찍 찾아온 추위 때문에 김장을 담그려는 주부들의 손길도 지난해 보다 10여일 빨리 시작됐다. 하지만 '김장은 꼭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부들은 줄고 있다. (주)두산이 최근 9백여 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김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답변이 약 70%에 달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함에 따라 김장의 양이 줄기도 했지만, 김장거리의 값이 크게 올라 사 먹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며, 이미 국제적인 음식이 됐다.

19~24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2002 김치엑스포'에서는 200여 종류의 김치와 국내외 김치 제조업체, 저장 및 포장업체 등 5백여 개 업체가 선보여, 천년 동안 이어져온 김치의 우수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생두릅김치, 장김치, 감김치, 콩잎김치, 연근물김치….

기획전시실에서는 '저런 재료로 김치를 담을 수 있을까' 싶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김치들이 선보였다. 눈길을 끈 것은 재료뿐만 아니라 지역별 김치의 특징. 지역의 기후나 특산물에 따라 김치의 종류도 다양하다.

경기도에서는 김치를 담글 때 조기젓과 새우젓을 주로 사용한다. 간장으로 담그는 장김치, 국물이 자작하고 담백한 맛의 쌈김치가 유명하다. 전라도 지역의 김치는 맵고 자극적인 맛이 강하다. 주로 멸치젓을 넣고 양념을 넉넉히 하며 찹쌀풀로 맛을 내는 것이 특징.

경상도 음식은 짜고 매운 편인데 음식에 모양을 별로 내지 않는 소박함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김치에는 멸치젓, 갈치젓, 굴치젓을 넣는다. 깻잎김치, 콩잎김치, 부추김치, 우엉김치, 더덕김치 등이 있다.

강원도는 김치 속에 오징어, 명태, 조개류, 멸치 등 해산물을 무채와 함께 버무려 넣어 맛을 낸다. 충청도 지역의 김치는 양념을 적게 써 담백한 맛을 낸다. 굴깍두기, 호박김치, 시금치김치, 가지김치 등이 유명하다.

행사 기간 중 주목을 받은 또 하나는 사찰 김치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는 표고버섯 단감김치, 취나물김치, 도라지김치, 죽순김치 등 30여 종류의 사찰 약용 김치 전시와 무료 시식행사를 가져 사찰김치를 알렸다. 색다른 재료를 이용한 '응용김치'들이 눈길을 끌었다. 사찰김치는 젓갈과 오신채를 넣지 않는 대신 감초와 곡물죽, 견과류를 넣어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특징이다.

사찰김치에도 지역별 특성이 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는 잣을 넣은 백김치와 깍두기 등을, 전라도 지역에서는 들깨죽을 이용한 고들빼기김치, 갓김치, 죽순김치를 담가 먹는다. 또 경상도 지역은 늙은 호박죽과 보리밥을 이용해 콩잎김치, 깻잎김치, 우엉김치를 많이 담가 먹는다고 한다.

적문 스님은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진 일반인들이 오히려 담백하고 정갈한 사찰김치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27일 오후 2시 '사찰 청국장 배우기' 특별 강좌를 연다.(02)355-5961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지방과 충북, 전북, 경남 내륙지방의 김장 적기는 20~30일이고, 전남 내륙과 서해안 동해안 지방은 30일~12월 10일, 남해안 지방은 12월 10일 이후가 좋다고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특별한 김치 만들기

삼주불뚝김치



볼뚝상추 200g, 찹쌀풀 1/2컵, 감초물 1/2컵, 홍고추 2개, 풋고추 2개, 소금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통깨 1작은술, 생강 1쪽

①상추는 밑둥부터 껍질을 벗기고 방망이나 칼등으로 두드린 후 씻어서 쓴맛을 뺀다. ②풋고추와 홍고추는 씨를 빼고 썬다. ③찹쌀풀에 감초물, 다진 생강, 채썬 고추, 고춧가루, 소금을 넣어 양념을 만든 다음 손질해 둔 불뚝상추를 넣고 버무린다. 상추는 고갱이와 함께 통째로 담가야 아삭아삭하다.

연근물김치



연근 400g 미나리 500g 배1/4개 홍고추 2개, 대추 2개, 밤 2개, 감초물 8컵, 생강 1쪽, 고춧가루 3큰술, 잣 약간

①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1~2mm 정도로 얇게 썰어서 식초물에 3~4시간 정도 담가 아린맛을 우려낸 다음 소금물에 담가 약하게 간을 한다.② 미나리, 배, 대추, 고추는 채로 썰고 밤은 편으로 썬다. ③고춧가루와 다진 생강을 외올베에 싸서 감초물에 주물러 매운맛과 붉은색으로 우려내 국물을 만든다. ④국물에 준비한 야채를 넣고 잣을 띄운다.

통무소박이



통무 5개(4kg), 무 1kg, 묽은 쌀가루풀 1컵, 맑은 액젓 2/3컵, 고운 고춧가루 1컵, 김치용 고춧가루 1/2컵, 실고추 1/4컵, 다진 마늘 1/3컵, 다진 생강 1/3컵, 쪽파 6쪽, 미나리 3쪽, 당근 200g, 밤 4개

①하룻밤 숨죽인 무(잎도 함께 절임)를 찬물에 씻어 물기를 뺀 후 칼집을 넣다. ②쌀가루풀, 액젓, 고춧가루, 마늘, 생강을 넣고 섞은 다음 무, 당근, 파, 미나리를 넣어 버무린다. 실고추와 밤을 뿌려 넣는다. ③무 속에 양념을 집어넣는다. 속이 빠져나오지 않게 절인 무잎으로 둘레를 돌려 맨다. ④약간의 소금, 김치용 고춧가루를 섞어 무잎 위로 고르게 뿌린다.

무청김치



무청 1kg, 무 1/2개, 굵은소금 1/2컵, 대파 2대, 마늘 3통, 생강 2통, 고춧가루 1컵, 멸치젓 1컵, 설탕 1큰술

①무청은 씻은 후 소금을 뿌려 절인다. 다 절면 헹군 후 손으로 눌러 물기를 뺀다. ②무는 채 썰고, 대파는 어슷하게 썬다. 마늘과 생강은 곱게 다진다. ③멸치젓과 물은 1:1로 섞어 끓인 후 고운 체에 받쳐 맑은 젓국을 만든다. ④무채에 고추가루를 넣고 버무린 후 멸치젓국, 다진 마늘과 생강, 대파, 설탕을 넣는다. ⑤④에 무청을 넣고 골고루 버무린다. 마지막에 묽은 소금물을 약간 부어준다.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녹두빈대떡



불린 녹두 2컵, 표고버섯 6장, 도라지 50g, 고사리 50g, 김치 100g, 당근 30g, 숙주 50g, 시금치 1/2단, 소금, 집간장, 후춧가루, 생강즙, 식용류 약간씩

1. 녹두는 맷돌에 거칠게 갈아 하루 정도 물에 담갔다가 불면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긴 다음 믹서에 물을 조금 넣고 곱게 갈아 냉장고에 둔다.

2. 표고버섯은 물에 불려 꼭 짠 후 채썰어 소금을 조금 넣고 볶는다.

3. 도라지는 적당한 굵기로 자른 후 잘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 센불에서 살짝 볶는다.

4. 고사리는 집간장, 후춧가루, 생강즙을 넣어 볶는다. 김치와 숙주, 시금치는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당근은 곱게 채썬다.

5. 손질한 채소에 ①을 넣어 묽게 반죽한 다음 소금으로 간한다.

6.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붓고 은근한 불에서 반죽을 한 국자씩 떠서 익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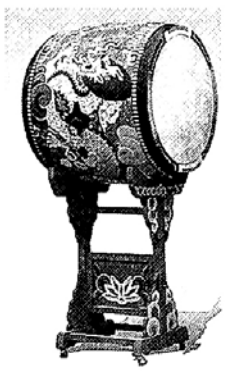
자료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소가죽 이용 견고… 독특한 음색

법고

예불이나 법회 때에 쓰이는 사물(四物)중 하나인 법고는, 북소리가 널리 퍼져 나가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모든 이에게 참다운 이치를 전해 준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울림 법고'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공동연구 개발한 제품으로, 1등급 판정을 받은 경기도 양평구의 한우 가죽만 엄선해 만들어 견고하고 탁월한 음색을 낸다. 기증자 이름은 무료로 새겨준다. 값 600만원(4자).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베이비시터·국 배달서비스·재활용품 이용 등

주부 취미·창업아이디어 만발

가사노동을 줄이는 아이디어 생활용품과 효과적인 자녀교육과 실버산업, 주부들의 생산적인 취미활동을 소개하는 '2002 워킹우먼 리빙페어'가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렸다.

115개 단체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0~12세 아이들을 시간제도 돌봐주는 베이비시터 서비스, 전업주부를 위한 대출 서비스, 매일 아침 집으로 배달해주는 '국 배달 서비스', 어지럽게 얽힌 가전제품의 전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동물 캐릭터 전선 홀더 등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선보였다.

또 신문지나 패트병 등의 재활용품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아름다운 공예'와 황봉자 할머니의 손뜨개 교실을 비롯해 리본공예, 선물포장, 구슬공예 등 여성의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43개 동아리의 작품이 전시됐다. 여성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무료 창업 상담과 여성창업인을 위한 금융상품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결혼 3년 차 주부인 김지연 씨는 손으로 만든 곰 인형인 '테디베어'를 이용한 아동치료법을 소개했다. 김 씨는 "집안일에만 얽매여 '나 자신'을 잃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미술치료과정을 수강하다가 인형을 통해 사람들과의 교감을 이루고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 '테디베어 치료법'을 알게 돼, 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참관객들이 뽑은 '최고의 가게'에는 '봉시의 손뜨개'가 가 선정됐다.

건강단신

임산부 교양강좌 개최

서울 중구는 12월부터 필동사무소에서 무료 '임산부 교양강좌'를 연다. 한국영유아보육인협회의 전문 강사가 총 18시간 동안 이론과 실기, 임신체조 등을 지도하고, 임산부 체조 비디오테이프와 태교 CD도 무료로 나눠준다.(02)2264-0426

'주걱턱과 얼굴성형' 강좌

서울대 치과병원은 28일 오후 3시 병원 지하 제2강의실에서 '21세기 치과에서의 주걱턱과 얼굴성형수술'이라는 주제로 일반인을 위한 치과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서울대 치과병원 서병무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진행한다.(02)760-2974.

'무료건강선식' 매주 특강

정세채음식환경연구소(소장 정세채)는 2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무료 건강 선식' 특강을 연다. 약초를 활용하는 음식 조리법과 환절기 건강관리와 다이어트, 자녀의 두뇌개발, 당뇨병예방 등을 주제로 건강 선식에 대해 강의한다.(02)733-1739

건강보험 사용안한 사람 위암 등 무료암검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올해 건강보험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한다. 위암, 결장 또는 직장암, 간암, 유방암 검진 중 하나를 선택해 검사받을 수 있다. 1588-1125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ㅁ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기계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ㅁ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흠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범패의식 비디오
"범패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됩니까?"
한번이라도 공부를 하신분은 아실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에 출시되는 범패의식 비디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 의식 되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범패가 이번 비디오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 제품가 달리 방송용 카메라(ENG) 조명장치, 크레인, 성우더빙 등을 사용하여 화면이 생동감이 있고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의 유명명승지를 화면에 이중영상처리하여 범패의식의 지루함을 보완하였습니다.
1. 안정사 전통범패의식(경남 통영)
해강 큰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보유자)
진하스님(준보유자 / 서울 금강선원 교수)
(1) 대령 / 관욕 (2) 지장청
(3) 전시식 (4) 삼신이운 / 삼보통청
(5) 범패작법무 따라하기(실습용)
2. 태고종 전통범패의식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제50호 전수자/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1) 대령/ 관욕 (2) 상주권공 지장불공의식
(3) 상용영반/ 산중작법 의식(4) 교재
3. 청화 대선사 비디오
(1) 순선법문 1, 2 (2) 서울길상사 천도재
(3) 철원심원사 보살계 (4) 변산실상사 천도재
구입처 : 다 원 미 디 어
[02)957-4886 / 016-240-3468]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2-606
계좌번호 : 외환은행 284-18-00208-7
※ 초파일, 사찰행사등에 이미 녹음된 TAPE나 촬영된 비디오를 선명하고 소음을 제거하여 재편집하여 비디오, TAPE, CD, DV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법성한장

모 제3회 집
국제 전문 자격사 취득 안내
"부처님의 극락 불탑의 나라 황금의 사원미얀마"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한국, 공용 국제자격증
국제 포교를 위해 증설한 미얀마 국제 아우미따지 성도 대학원에서 지식인들의 등용문이 되고자 다음 해당 학과 학생을 모집합니다.
국제전문자격취득과정
① 전통 침술 국제 자격증반
② 스포츠 지압 국제 자격증반
③ 비만 클리닉 백짐 자격증반
④ 명예 철학박사 학위반
지원 자격
① 남녀 만 27세 이상 60세 미만
② 현재 침술 또는 경력 1년 이상인자
③ 학력 제한 없음
④ 지원서, 등본1통, 사진6매, 이력서
(대학원 확장과 한국 분교 증설로 이번기회 전원 무시험 통과 자격 취득)
◆ 접수 및 문의 : 031)867-4131 / 팩스 031)867-4134 / 011)214-4135 / 018)370-4133
◆ 홈페이지 접수 : www.sukamony.or.kr
◆ 지원서 접수 마감 : 양력 12월 15일
◆ 출발일 : 양력 26일 ~ 30일 (4박5일 - 일정에 관광포함)

좋은 아버지 되는 방법

1. 자녀와 여행하는 아버지가 되자.
2. 자녀를 칭찬해 주는 아버지가 되자.
3. 자녀가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자.
4. 자녀와 함께 서점에 가보자.
5. 자녀의 학교에 가보자.
6. 가족에게 편지를 써 보자.
7. 부모님의 고향을 자녀와 함께 찾아보자.
8. 일주일에 한번은 가족의 날로 정하자.
9. 아버지는 자녀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는데 조력자임을 명심하자.
10. 아버지도 감정을 가진 인간임을 보여주자.
11. 교통신호를 지키는 아버지가 되자.
12.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가 되자.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문을 연 '좋은아빠' 카페 회원들이 주말 정기모임에서 자녀와 함께 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좋은아빠

아버지 위한 도서10권

〈좋은 아빠 자녀 교육법〉 설동광 / 청양
〈자식을 부모의 팬으로 만들어라〉 한두현 / 나남
〈아들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태호 / 명상
〈넘치게 사랑하고 부족하게 키워라〉 제인 넬슨 / 프리미엄북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떠나는 10단계 여행〉 레이 턴블 / 한올림
〈한 아이〉 토리 L. 헤이든 / (주) 샘터
〈딸 그리고 함께 오르는 산〉 제프리 노먼 / 청미래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1분 혁명〉 스펜서 존슨 / 동아일보사
〈현명한 부모들은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 신의진 / 중앙M&B
〈아들아 아빠 눈 보고 말해〉 임기원 / 동아시아 자료제공=한국가정경영연구소

나는 몇점짜리 아빠?

'아이사모' 등 바람직한 아버지상 찾는 모임 늘어

"자녀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키와 체중은 얼마이고,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자녀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들이 많다. 드물긴 하지만 아예 이런 의식조차 없는 아버지도 있다.

최근 들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나누고,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실천을 통해 찾아가려는 아버지모임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에 대한 아버지들의 관심이 활발해진 계기로 IMF 외환위기를 꼽는다. 경제난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남성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가장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다.

1992년에 창립한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www.fathers.or.kr)이나 아이를 사랑하는 모임인 '아이사모'(www.isamo.co.kr)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주말이면 '아빠와 함께 기차여행', '자녀와 함께하는 캠프'를 떠나기도 하고 '소년소녀가장 후원회'를 운영하기도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 '딸 사랑 아버지 모임'(02-2273-9535)은 서로의 경험담과 육아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한편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2년 전 문을 연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카페 '좋은 아빠'와 '좋은 아빠 모임'은 회원이 각각 3천명, 1천8백 명을 넘어섰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인 '좋은 아버지 교실'도 아버지들의 관심의 장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인터넷의 육아 포털 사이트에는 '아빠의 육아일기'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일부 유치원에서는 '학부모 참관 수업'을 '엄마 참관 수업'과 '아빠 참관 수업'으로 나누어 아버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본보기가 된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아버지의 사랑은 건강한 자녀를 만드는 토양이다.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아버지의 전화'(02-2208-0660) 정송 대표는 "무조건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욕심보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조금씩 익혀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사모'의 설동광 대표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로는 자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줘야 한다는 것. 80%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는 20% 정도가 되어야 한다. 아빠가 재판관이 되어 아이의 이야기를 판단하고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이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번 대화와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는 아빠와 나누는 대화에 흥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여수령 기자

행복한 소문

◆노인작품 전시회=용산재가노인복지센터는 28~30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 '은빛마을 노인작품 전시회 및 바자회'를 개최한다.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할머니들이 1년 동안 준비한 작품을 감상할 기회. (02)718-8887

◆노인 무료 진료=인천 서구보건소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 간염 간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등에 대해 진료한다.(032)560-4552

◆요실금 · 배뇨장애 강좌=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 경방필백화점 8층 문화센터에서 '요실금과 배뇨 장애의 진단과 치료' 강좌를 개최한다. (02)829-5089.

◆호스피스 교육=충북 청원 정토마을은 12월 8~15일 불교 의료복지에 관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16기 불교전문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다. 선착순 25명, 수강료 19만. (043)298-2258

◆노인 학대 상담 워크숍=방배종합사회복지관은 29일 오전 10시 복지관에서 미국 노인학대 전문 사회복지가 빌리 리 씨와 UCLA 사회복지학과 문애리 교수를 초청해 '노인 학대 상담 워크숍'을 개최한다. 노인학대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보는 방법을 알아본다.(02)522-6004

가벼운 선물, 생각날 때마다

선물! 주든 받든 기분 좋은 일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키지 않은 인사치레이거나 뇌물이기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 주고받기를 특별한 일로 여기는 듯하다. 생일과 같은 기념할 만한 날이나 연말연시와 같은 특별한 때에나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물 주고 받기를 지나치게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다 보니 상대의 격을 따지고 그에 걸맞는 것이 무얼까 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된다. 즐거워야 할 일이 골치아픈 일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런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가 쉽다.

생각 한번 바꿔보자. 몇천원밖에 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평소에 아끼던 것, 이를테면 색다른 모양의 볼펜 따위를 신기해하는 친구에게 즉석에서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때는 애지중지했지만 지금은 나에게 쓸모없어진 물건을, 지금 꼭 필요할 사람을 찾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선물 주고 받기. 일상 행위일 수 있지 않을까.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새로운 삶의 선택

오늘은 삶의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한 부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 하나를 데리고 혼자된 부인은 조그만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부인이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는 아버지 없는 딸을 잘 키우는 일, 그 것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고등학교 동창이 권하는 좋은 재혼 자리도 마다하고 오로지 딸을 잘 키우는 일에만 전념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중년부부가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산책하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딸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온 부인은,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딸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딸이 지금처럼 예쁘고 똑똑하게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자기만족 같은 것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부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딸의 결혼을 앞두고부터였습니다. 홀어머니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가 딸의 결혼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안 부인은 한순간 자신이 서 있는 땅이 균열이 가면서 깊게 꺼지는 것 같은 환각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알았다고 하면서 부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딸만보며 살아온 평생, 왜 이리 허전할까…

자신의 사위가 시골 종가의 종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종손이 어떻게 처가살이를 할 수 있느냐고 사돈댁 쪽에서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할 당시 사위가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시골 부모님이 보낸 결혼 비용과 신부가 준비한 혼수비용을 몽땅 빚 갚는데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걸국 딸 내외의 편의에 의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도, 사돈댁 쪽에서는 홀어머니 딸을 며느리로 봤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처가살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직후부터 딸도 남편 회사에 나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살림은 자신이 도맡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살림 뿐 아니라 외손자 키우는 일도 자신의 몫이 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건장한 사위가 집안에 있으니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든든함'도 있고, 손자 키우는 재미도 각별하지만 살림하면서 손자를 키우기엔 이제 자신의 체력이 팔린다고 하면서 부인은 지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기에다 일년에 한두 번 씩 시골 사돈이 올라오면 마치 죄인처럼 자신이 사돈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것도 괴로운 일 중의 하나라고 털어 놓았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뭔가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며칠 전 외손자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엎어져서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것입니다. 손자 얼굴에서 흐르는 피를 본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딸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포감 같은 전율이 느껴지더라는 했습니다. 부인은 부랴부랴 손자를 업고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한 후 딸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딸이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 왔는데 딸은 아이 얼굴을 세 바늘 정도 꿰매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애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엄마가 하는 일이 뭐냐?"하고 악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부인은 딸이 자신한테 내 뱉은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습니다. 속상하고 화가 난 상태니 무슨 말인들 못 하겠는가, 하고 이해를 하려고 애도 써 봤지만 마치 자신이 애한테 상처를 입힌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엄마가 하는 일이 뭐냐? 라는 말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딸이 어떤 마음에서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으로서는, 종으로서 충성을 바쳐야 하잖아, 하는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젠 딸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해가 바뀌면 60 살이 되는데 60부터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 왔는데 불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경전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면서 조용히 살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부인 말을 듣고 난 저는 일단 부인의 새로운 시도에 찬성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속으로는 부인이 말한 그런 도량을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化緣 (02)704-3577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彩'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사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붓자 용자)

수곡스승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신기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 (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특별보시!

사업심재,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 21. 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회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敎藝術文化院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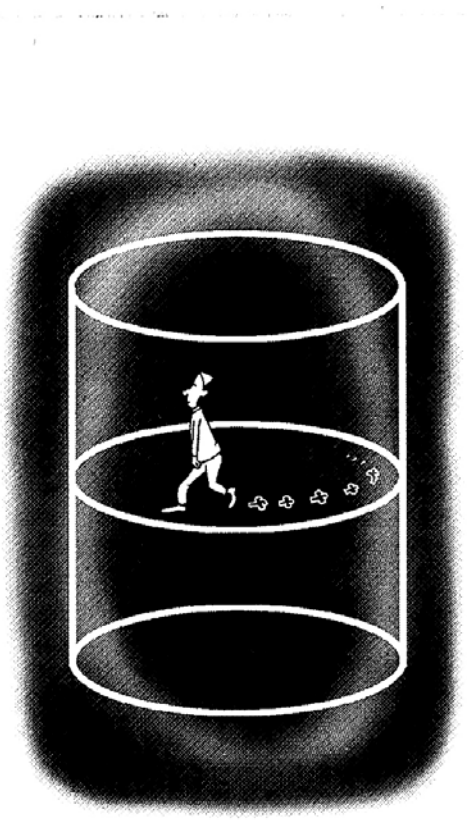
희소식 梵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 · P : 011-369-2732

수계는 각자 마음의 뿌리와 함께
일체제불·만물만생과 결부돼


그림 · 최주현

모든 생명·중생들 위해 한마음으로 행하면 꼭 성공

관하는 마음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용도가…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으로 진리는 끝없이 돌아가고 있어

▲스님: 여러분에게 오계를 설하겠습니다.

첫째, 불살생계이니 일체를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며 내 몸과 같이 아끼겠습니까?

▲대중 : 아끼겠습니다.

둘째, 불투도계이니 일체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대중 : 가지겠습니다.

셋째, 불사음계이니 일체 삿된 마음과 음심을 버리고 항시 마음을 청정하게 하겠습니까?

▲대중 : 청정하게 하겠습니다.

넷째, 불망어계이니 일체 거짓말을 하지말고 입을 조심하여 항상 진실되게 살겠습니까?

▲대중 :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다섯째, 불음주계이니 절대로 술을 과음하지 말며 자기와 남을 위하여 분수를 지키겠습니까?

▲대중 :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수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릴 게 있습니다. 신도님들이 수계를 언제 받았다 언제 받았다 하는 거를, 수계첩은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물 한 동이 떠놓고 왼손으로 들고 왼쪽으로 세 번 돌리고 네 번째, 즉 말하자면은 '두루 한도량에 전달이 되게 하소서.' 하고 주인공에 관하고선 태우시는 겁니다. 열 장이 됐든지 스무 장이 됐든지 단 한 장이 됐든지 말입니다.

고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도리천에 모든 게 통신이 돼서 거기서 다 차원이 주어져 갑니다. 그러니 그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냥 글자만이 아니라, 이름만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뿌리와 더불어 결부가 돼서 하는 거니까,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한마음으로서 결부가 되고 일체 만물만생과도 더불어 같이 결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철 살다가 이 모습을 없애고 다시 또 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다시 진화시키고 변화시켜서 다시 형성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상(上)세계의 차원이 주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모습을, 이 생명의 모습을 타고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왜, 은비까비라는 만화 보셨죠? 비슷하지만 그렇게 남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내가 나타나게 하려면 나타나게 하고, 또 나타나서 안 될 일이라면 안 되게 하고 그럴 겁니다.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위로는 부처님의 한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거를 해 나가신다면 우리가 꼭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계를 받았는데 뭘 또 하나 이러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자기가 한 것이 자기한테 모두 연관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러고 재차 말하지마는 이것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혼합해서 같이, 공법으로써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평등공법으로서 말입니다. 평등공법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입을 빌렸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또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철 살다가 죽으면은, 항상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상(上)세계의 차원이 되느냐, 하(下)세계의 차원이 되느냐, 중(中)세계의 차원이 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중세계란 상세계와 하세계의 교차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를, 그것을 누가 봐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 놓은 것이 자기에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정수, 누구나가 다 정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수에까지 도달한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변화해서 돌아가지만, 주장자를 쥐지 않고는 대뇌와 육신 속의 생명들과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대뇌하고 정신계 또는 물질계, 이 몸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의식들이 다 한데 합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게 하기 위해서 일거수 일투족을 다 거기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를 다 놓게 되면 정말, 즉 수억겁을 통해서 자기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되고, 진화되고 형성되면서 수 없는 그 세월을 거듭거듭 태어나면서 사람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내 부모 네 부모가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식 네 자식이 따로 없고, 내 생명 남의 생명이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나의 부모요 나의 자식이요, 나의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 내 모습 내 형제, 바로 부처님의 법이 우리들의 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진짜로, 진짜가 아니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고 상대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종교를 믿으니까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첫째, 내가 나왔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졌고 상대가 있고 부처님법도 있는 것이고 진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진정코 내 종자의 뿌리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도깨비장난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내 주처의 불성을 진짜로 믿어야겠다는 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자기 뿌리가 없이 그렇게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고 편안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편안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원력이, 예를 들어서 하늘이 무너지는데 손가락 하나로 받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평등공법에서 나오는 원력이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묘법이고 얼마나 보배력이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쭉 말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로 지금 얘기한 대로 믿고, 이 세상에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짜로 관하면 대뇌를 통해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됩니다. 그건 진짜로 믿으셔야 될 겁니다. 사람 사는 것도 모두가 과학이니까요. 그래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모든 말은 소임자가 다 연락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통일해서 모든 것을, 적은 거는 채우고 많은 거는 덜고 해서 고르게 작용을 해 준다면 몸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정수의 자동적인 컴퓨터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안 되면 어지께도 생각 못하고 오늘도 생각 못하고 내일도 생각 못합니다. 그렇게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습에 젖어서 항상 기복으로 한다든가 또는 바깥으로 끄달린다든가, 바깥의 형상과 이름을 보고 기도를 한다든가 해서는 안되는 거죠. 거기 연관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믿고 하면은 앞서 입력된 업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업보성이라든가 인과성이 모두 삭제가 되는 거죠. 앞서의 입력된 것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니까요. 그 구녘에서 업을 제하지 않으면은 딴 구녘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온 구녘에다가 바로 즉시 입력을 해야 그 구녘으로 들고날이 없이 들고나니까요.

그래서 수계를 받고도 한 번 받아, 두 번 받아, 세 번 받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제각각이겠죠. 허나 이것도 마음의 정성이죠. 그래서 보이는 거는 계첩이지만 안 보이는 거는 송두리째 다 입력이 돼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이 몇 번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더군다나 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면 지금 말로 그게 바로 '빽'이라고 할 수 있죠. 크나큰 '빽'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으니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 하나를 전부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길을 지나가다가 보이는 돌을 봐도 소중하고 나무 한 뿌리를 뵈도 소중한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내 어찌 공부를 했을까 하는 그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모두가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전부 내 스승 아닌 게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모두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그래서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으로서 진리는 끝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평등공법으로서 걸림 없이 나의 주장자를 쥐고 여여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소리를 마음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알아 듣지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여러분한테 수차에 말씀드렸지만 고정되게 보고 고정되게 듣고, 고정되게 말하고 고정되게 만나고,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상 생활에 움죽거리는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어요, 아시라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발자죽을 남기는가 하면 발자죽을 남기지 않고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없어지는 채로 그냥 떼어 놓습니다. 사실이죠?

▲대중: 예.

▲스님: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지구가 초월해서 돌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거 보면 저거 봐야 하고, 이 소리를 들으면 금방 다른 소리를 들어야 하고 연방, 연방 이렇게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를 여러분의 마음이 관습에 의해서 의식을 갖고 선 그거를 쥐고 오히려 매달려서 놓지 않기 때문에 업이 생기는 거고 고가 생기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지구가 쉴 사이 없이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병이 붙을 게 뭐 있으며, 업이 붙을 게 뭐 있으며 유전성이 붙을 게 뭐 있으며 생사에 걸릴 게 뭐이 있겠습니까?

삼천 년 전 진리와 지금 현재의 진리와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시대가 변하는 대로 우리는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용어와 지금 용어가 다르구요. 다르지 않으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연방연방 그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어디 여러분의 그릇에 담길 게 있어서 업이 됩니까?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듯 인생살이가 다 그러한데 어디 그렇게, 업보를 담는 그릇이 따로 있어서 업보가 되고 유전성이 되는 겁니까? 단,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이거 못해. 저거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분별하면서 반복해서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셈이에요. 끝없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이 중세계에서, 제일 첫번째 문제는 '네가 이 세상에 나온 줄 알아라. 네가 나온 줄을 안다면 수억겁으로 통해서 너를 진화시키고 형성시킨 너를 보배로 삼아라. 너부터 알아야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를 알 수 있느니라.' 하셨는데, 여러분은 봤으면 자기가 봤다고 그러지 바람처럼 도망갔단 말은 안해요. '내가 오늘 아무개를 보고 왔는데.' 이러거든요? 한 발짝 떼어놓고 왔다고 하는 거나 똑같죠. 한 발짝 떼어놓고, 놨으면 또 떼어놓게 되죠? 연방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도리를, 아주 흥겨운 도리를 모르고 항상 집착에 잠겨있고 관습에 잠겨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적을 해야 삼재가 안 생기고 애고가 안 생긴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가는데도 부적을 하고 날짜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여러분이 살기가 허득허득한데 거기에다 댓붙여서 그런 걱정까지 하면서 살게 돼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거를 몽땅 다 놓는다면 하늘을 보고 허허 웃어도 그냥 공법이고 평등하고 여여하게 살 수 있고, 사는 게 그렇게 여여하다는 걸 아신다면 모두 갖추어 있는 것도 알게 돼요. 갖추어져 있는 거를 알게 되면은 헤아릴 수 없는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도 손색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흐뭇하고 묘하고, 자기의 보배 구슬이 자기한테 제가끔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니깐 삶도 가난하구요. 혼자 무거운 거를 들려니 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부처님께선 안과 밖을 조복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생명들도 흡수해서 나로 만들고, 바깥의 것도 흡수해서 나로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안과 밖을 둘 아니게 조복 받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더 묘한 거는 자동적으로 정수에 물을 붓는다고 하죠? 부처님의 말씀이. 그런데 깨우친 사람에 의해서만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장자를 딱 쥐고 나가는 데는 항상 통신이 돼서 대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사대에서 통신이 되면서 바로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이 진리가 심성과학이 아니고 뭡니까? 꼭 연구해서 어떻게 내는 것만이 아니라 말없이 묵묵히, 농사를 지어서 밥을 해내는 것도 과학입니다. 꼭 어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달입니다. 그러니 일거수일투족이 다 심성과학이며 진리이며 여러분 앞에 보배가 있는 것이며, 그 보배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편리하게, 지금 세상에 내가 잘 살아야 요 다음 세상이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없다면, 살지 못한다면 요 다음 세상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도 오늘 볼 줄 알아야 하고 미래도 오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행동과 삶을, 또는 진실, 지혜로써 모든 거를 내 마음 내 모습 아님이 없이, 내 아픔 아님이 없이, 남이 아무리 벌레 짓을 하고 짐승같이 굴더라도 '저놈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전자에 모를 때에 저런 모습으로 행을 했겠지. 옛날의 내 모습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야 그쪽에까지도 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짐승 같은 놈이라고 마음으로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한다면 그 줄이 딱 끊어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알고 본다면 여러분 육신 속에 수억겁을 진화해서 형성된 장본인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신다면 우리가 한바탕 껄껄 웃게되죠. "참, 모두가 말은 할 수 없으나 너무 말을 할 게 많아서 말 할 게 없구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껄껄 웃을 거예요. 사람 살아나가는 게 우연히도 없고 또는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이 자기를 편안하게 해 줄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의 보다가드가 돼 줄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의 해결사가 돼 줄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의 의사가 돼 줄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요즘 가만히 보면은 위암이나 간암에 걸려서 앓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덤벙덤벙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보니까, 안 한 사람은 편안하게 그냥 살구요, 지금도 살고 있고, 수술을 한 사람은 그냥 죽도록 머리가 빠지고 구역질을 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왕 죽을 거라면 왜 그렇게 죽습니까? 이것도 내 생각인지는 몰라도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을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조복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같이 울면서 작용을 해 준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믿지 않아도 어느 정도 주인공 주장자를 쥐고 나가면서, 만약에 병원에 가서 무슨 뭘 보

☞ 26면으로 계속

☞ 25면에서 계속

상대의 그릇된 행동을 볼 때 '옛날 내 모습'으로 보세요

진짜로 믿는다면 되고 안 되고도 놓으세요



그림 · 최주현

는 거 뭐라 그러죠? 머리 빠지고 그러는 거,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도 마음도리를 쥐고 가는 사람은 구역질도 안 나고 편안하게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무수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역질을 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가 하나도 안 빠졌대요.

그게 어디입니까?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는 대로 자기의 주인공이 지켜주고 해결사가 돼 주고, 또 모든 걸 보호해 주고 나가니까, 자기의 보현신이란 말입니다. 이 몸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조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해서 바로 보현신으로 나툰다는 얘기죠. 생략해서 지금 현재 말로 한다면, 여러분의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보호하는 거나 똑같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 입문해서 다닌다, 또 다른 종교에 입교해서 다닌다 이거를 딱 떠나세요. 이 마음공부란, 갓난 어린애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응애' 하고 우는 겁니다. '응애' 하고 울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궁무진하고 광대무변하고 묘한 진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진리 안에 모든 생활이 있으니 이게 심성과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고, 자신을 믿지 않고 타인을 믿거나 타의의 이름과 형상을 믿는다면 도깨비장난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 똑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는 자기를 가리키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고만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로 몰려들었지만 그렇게 몰려들고 보니깐 갈 길이 막혔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각자, 네 나무는 네 뿌리부터 보아라. 각자 네 나무는 네 뿌리부터 믿고 찾아야 공덕이 있지 만약에 타의의 형상과 이름을 믿고 기도를 한다면 그 또한 도깨비 같고 귀신 같느니라." 그런 짓을 한다 이거죠. 그랬으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만사가 있는 거지 우리가 없다면 무효라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이치를 알아서 혹은 지구를 한 손으로 들든지 반쪽 손으로 들든지, 한 손가락으로 들든지 두 손가락으로 들든지, 들어야 지구의 수명도 길어지고 더 넓혀서 우리가 나누어서 살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고, 또는 생명이 안 산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꽉 찼어요, 생명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산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것처럼, 즉 말하자면 모든 혹성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상세계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화성에도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 꽉 차 있는 걸요. 그 모두가 살아나가는 모습이 다르고….

우리가 먹으면 똥 누죠? 자야 낮에 일을 하죠? 그것은 가운데 배 끈을 매야 되죠? 그래서 중세계예요. 우리가 나타나려면 그냥 나타나고 또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즐기다가 떠날 때는 없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세계로 지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옥과 천당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발로 땅을 딛고 다니듯이 땅속에 묻혀서 살고 있는 것도 있고, 질척한 데서 살고 있는 것도 있고, 알로 낳는 것도 있고, 태로 낳는 것도 있고, 모두가 차원에 따라서 차례 차례로 자기 삶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하면은 지금 주어진 채로, 더하면 하천세계로 떨어지고, 더 좋게 되면 상천세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자기의 차원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지 남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어떤 때는요, 길을 가다가 다리를 못쓰는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날은 추운데 손은 제대로 못 쓰고 한발한발 떼어놓으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은 불고 눈이 들이치고 그러는데 그 한 고개를 넘어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다리를 제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좀 그 사람이 쉽게 가게끔 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그만 일이 아니죠, 큰 일이 따로 없고 조그만 일이 따로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빠르겠습니까? 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해야 빠르겠습니까?

▲신도1: 주인공에다 관하면 안 됩니까?

▲스님: 하하하. 여러분이 '관(觀)이다' 하면 그 관하는 속에, 마음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용도가 나외요. 보이는 대로 용도가 달라지죠. 저걸 브면 저것대로 달라지고 이것을 보면 이것대로 달라지죠. 그러니까 관하는 그 한마음 속에는 헤아릴 수도 없는 크고 작은 거 용도에 따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용도에는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신도2: 그 사람과 저하고 둘이 아니니까 한자리가 돼서 잘 가게끔 이끌라고 마음자리에 관하는 거죠.

▲스님: 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혜를 좀 내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내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가까운 어느 집의 사람을 끌어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 몸이 오지 않겠소? 쏜살같이 와서 '어유, 추운데 어떻게 가시냐' 그러면서 여길 끼고 그냥 가더라구요. 언젠가 한번 또 여기 와서요, 저 아래 건물을 안 지었을 때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 가지고 엎드려서 오줌을 싸서 그게 얼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들창을 열고 내다보니까 그냥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뗄려고 하니 떼져요, 그게? 흔들흔들 하면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죠. 눈도 뜨지 못하고, 그럴 때 얼른, 예전부터 그런 때는 묘안이 생기더군요. 옆 집에 있는 누구라도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여러분한테 얘길 하려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급하니까.

그런데 웬 두 사람이 저 위에서 내려오더니만 왜 그쪽을 봅니까, 또? 하하. 보더니 그 사람이 흔들흔들 하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됐나 그러고선 둘이 와서 그냥 그 얼은 거를, 오줌을 싸서 얼은 거를 떼어 가지고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들쳐업고는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서 보더니만 '이 집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가는 걸 보고 문을 닫았어요.

사람사람이 어느 사람 쳐놓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잘산다고 하더라도 인생파도는 파도대로 치니까요. 그런데 그 파도가요, 아주 묘한 거죠. 파도가 치지 않고 소용돌이가 치지 않는다면 물밑의 생명들이 살 수가 없어요, 또. 그러기 때문에 양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가 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이, 몸이 배와 같은 거죠. 이 몸이 배라면 뱃속의 많은 생명들을 중생으로 비유한다면 선장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공 주장자죠? 그럼 선장이 몸인 배를 끌고 가는데 의식들이 그냥 이리 왈 저리 왈 끄달리고 온통 이리로 저리로 끄달리면서 죽겠느니 살겠느니 이러고 온통 난리들을 친다면 배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몸이 흔들려서 죽도 밥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선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항상 주인공에다 진짜로 믿고 맡겼으면 그대로 믿고 맡기라고 합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다 버리는 게 믿는 거다. 다 버리지 않고는 거기다 맡겨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진짜 믿는다면, 진짜 자기라면 그렇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고 죽는 것도 네 법이고 사는 것도 네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서 자기 주인공이 껄껄 웃으면 자기도 좋아서 껄껄 웃게 되는 거예요.

색경을 한번 보세요. 색경을 보면서 손을 들거나 또는 눈을 흘기거나 그러면 똑같이 따라서 그런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지금 현실에 색경을 보는 육신이 자기라면은 그렇게 색경을 보고 하는 대로 따라하는 그 그림자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마르게 가르쳐 드리는데도 이 뜻을 모르신다면 아니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이것도 그냥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돌아가고 있구요. 지금 내 말도 돌아가고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화엄경에 '머물러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머물러 찰라찰라 화해서 나툰다' 이렇게 해야 원칙이죠 머무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좌선이라든가 입선이라든가 행선, 또는 와선이 드러눕고 앉았고 섰고 일하고, 이러는 것이 몽땅 다 끊어지지 않고 참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네 개의 참선이 하나의 참선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한도량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여러분보다도 더 곱쟁이, 여러분의 곱쟁이가 내면으로 듣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혼자만, 이 껍데기 나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자부처들이 듣고 있어요. 그 참, 볼 수만 있다면 멋지죠, 하하하.

하여튼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연비를 받는 것이 보기에는 우스울지 모르지만, 이건 부처님 한도량에서 내려서, 오방천으로 하여금 사방천에서 모두 여러분을 응시하면서 찍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크라고 합시다.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지금 말로 청와대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표시, 마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을 버리고 가도 '너는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려느냐,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삶의 권리는 얼마나 가지고 나가려느냐.' 하는 거죠, 자기 원대로. 그러고 '어떠한 자식이 너한테 필요하다고 보느냐' 하고, 다 자기 스스로가 알게 해서 스스로 받아 가지고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다시는 생명으로 받지를 않겠소' 한다면 '그럼 넌 천상으로 가거라' 이럴 테죠, 하하하….

※위 법문은 1997년 12월 21일 수계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실시(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최면수입외 대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천도 및 제령

※ 나노-파동 명상최면요법

인체내에는 특별한 에너지 중추가 있다. 이 미묘한 에너지 중추는 육체의 내분비선과 주요 신경중추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 장 속으로도 확장되어져 있다.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chakra)라고 하는데, 사람의 인체에는 일곱가지 차크라가 있다.
이 차크라들을 「나-노 파동요법」을 통하여 수련하게되면 사람에 따라 우주에너지와 연결되어 神通이 열리게 된다.
한 예로, 정수리 차크라는 두뇌 꼭대기에서 비롯되어, 영적인 깨달음과 관련된 차크라인데, 이 차크라를 열게되면 시공을 초월하는 투시가가 될 수 있다.

※ 특강내용

나-노 파동 요법을 알게 되면 일주일만에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적 존재는 저마다의 고유한 주파수 (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파수에 「나-노 파동 요법」으로 공명을 일으키게 하면 자신이나 타인이깊은 명상 상태에 빠지거나 몸속에 숨어 있는 영가들이 나타나게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영혼적 현상들을 바르게 인도(제령) 하고 정리(천도)하는 기법「나-노 파동 요법」입니다.

동방명상전생연구소
◆ 문 의 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원리를 아는자 미래를 지배한다

피부와 체형을 보고 정확한 건강, 미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리적인 기법을 공개 습득케하여 몸과 마음이, 자연과 사람이 절대 둘이 아니며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 미용은 물론 상대와의 조화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성이 좋은 직업전환, 창업자를 찾습니다.
수암 프랜차이즈점 행정구역별 모집 (소규모 창업)

◆ 수암 프랜차이즈 종류 ◆
수암 아카데미 – 음양체형 관리사, 두피관리사 교육기관
수암 갤러리 – 코스메틱(화장품), 관리
수암 SB 갤러리 – 두피건강
수암 관광 갤러리 – 외화획득

수암 선생의 오감만족 기열순환 마사지 "열기왕성"
케이블 육아 TV , 10/7~ 11/30 40회분 방영(1회 30분 방영)

방송시간 안내
오전 11시(본방) 오후 4시 25분(재방)
새벽 2시 15분(재방) 오후 10시 25분(재방)

음양피부체형연구회[주]
연락처 02-582-1069, 3487-1069
http://www.suarm.com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스님의 예불독경 CD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대구해인선원을 방문하시어 칠보 삼존불도 친견하시고 무료CD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법 회 안 내
▷ 매월 음력 18일 – 지장재일법회
▷ 화요일 오후 2시, 7시 – 기초교리반
▷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 참선반
▷ 일요일 오전 10시 – 금강경반

찾아오시는 길 ▶


해인선원은 불교중압복지연수원 건립을 위해 한불자 한 평 불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국민은행 : 682-0251-628 / 예금주 : 해인선원)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352-9 ☎ 053)741-8788

해인사 말사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 합장

불교 이래서 좋다

임동일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4년

"나"라는 존재 알게해 줘



나에게는 친어머니와 같은 스님엄마가 계신다. 내가 지금도 어머니처럼 따르고 찾아뵙는, 나에겐 어머니라기보다 아직도 엄마같으신 분이다. 스님엄마의 다정함으로 인해 어렸을적 보통 꼬마들이 무섭게 느끼는 사천왕상이나 신중도 등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고, 스님엄마와 놀겠다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 갈 때 절에 가곤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청소년 법회에 나가면서 내가 왜 불교를 알아야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를 차츰 알게되었다. 그 때부터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법문이 졸리게 느껴지지 않았고 예불이 끝나고 왜 "성불하십시요"라는 말을 하며 그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내가 학생신분에서 해서는 안될일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불교라는 단어가 나를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항상 불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라는 존재를 알게해주었으며 지금의 나의 전공인 불교미술을 택하게 해주었던 것 같다. 내가 불교미술을 알게된 것은 오래전, 어렸을적부터이지만 그 색채와 정교함에 끌리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때 우연히 가게된 전시회였다. 그 당시 나는 디자인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불화의 색채와 정교함, 불교 공예품의 우아한 멋과 수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작품들은 나의 진로를 단번에 바꿔버리기에 충분했다. 불화는 시간을 두고 오래 하는 규칙있는 작업인지라 보통의 인내심을 갖고는 이루기 힘든 분야이지만 어렸을적부터 익혀온 불교는 나에게 있어서 마냥 편안하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머니같은 존재라 지금까지 큰 난관없이 잘 해내게 되었다.

올해 나는 졸업을 한다. 이제 개인전도 준비할 것이고 이제껏 바라왔던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큰 어려움도 많이 만나겠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항상 불교와 함께 올바른 일을 한다면 나의 바램처럼, 부모님의 바램처럼, 스님엄마의 바램처럼 올바른 "나"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담배를 끊읍시다

길거리흡연 금지

앞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옥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 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 이근진 위원은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태.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나라가 된다. 이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또 담뱃갑 포장지에 암세포가

건강증진법 통과땐 세계 최초
개정안, 흡연 유해 그림 삽입 규정

리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의원 5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일본 도쿄의 치요다구가 번진 폐사진 등 흡연의 인체 유해성을 부각시키는 그림을 넣도록 규정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담배의 해악을 알릴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 교사대학

특수교육기관 1호 인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11월 11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대한불교교사대학의 특수교육기관 1호 인가를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종단 차원, 체계적 교육 이뤄질 전망
어린이 포교, 교사양성, 큰 역할 기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설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이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특수교육기관 1호로 인가되면서 어린이 포교 활성화와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수교육기관 1호로 인가된 대한불교교사대학은 1999년 동련불교대학으로 문을 연 이후 기본교리, 불교예절, 포교방법론, 수업지도 및 교수방법, 법회 운영방법, 레크레이션 및 찬불가 등의 이론 교육과 현장학습, 연수, 실습 등으로 어린이 포교의 최일선에서 뛰는 교사 양성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종단차원의 지원과 인정이 없는데다 사찰의 관심 부족으로 어린이 포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대한불교교사대학은 특수교육기관 인가로 지도교사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개선, 어린이 법회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수교육기관 인가의 가장 큰 의미는 종단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이 되었다는 것과 지도교사 교육에서 종단차원의 일관된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 이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중심의 지도자 연수나 대한불교교사대학의 교육에만 의존해 왔던 어린이 법회 지도 교사 양성이 종단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계종 포교원과 대한불교교사대학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학사관리, 졸업생 자격증 지급, 졸업생 보수 교육 규정 마련 등과 함께 종단차원에서 어린이 포교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세우고, 어린이 포교방법론, 지도교사 교육 내용과 방향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16~17일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에서 300여명의 지도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지도자여! 무소의 뿔처럼 쉼없이 '포교하라'는 주제로 34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포교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주)부영, 정광고에 기숙사 기증

기업이윤 사회 환원 전국 50여곳
"교육환경개선 및 발전에 도움될 것



◇(주)부영 이중근 회장(오론쪽)이 정광고 정인영 교장(가운데)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병태 광산구청장(왼쪽)에게 기숙사 기증 약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중견 건설업체 (주)부영이 종립학교인 정광고에 기숙사를 지어 기증키로해 화제다.

광주 광산구 소재 정광고등학교(교장 정인영)는 (주)부영(회장 이중근)측이 건설비 12억원을 들여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우정학사'를 지어 학교에 기증키로 하고 11월 7일 송동창회장 송병태 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정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생활관 '우정학사'는 다음달 초 착공해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25실 규모의 기숙사와 탈의실, 휴게실 등을 갖춘 시설로 건립된다.

(주)부영은 지난 91년부터 전국 50여곳에 학교와 생활관, 도서관 등을 지어 기증하는 등 기업이윤을 교육사업으로 사회에 환원해 왔다.

정광고등학교 이동배 교법사는 "학교가 광주지역 신흥 명문고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숙사가 낡아 학생들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주)부영의 기숙사 기증은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학교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동국학원 합동 수계법회 봉행

한글의식 진행, 1044명 계 받아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오녹원 스님)은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동국학원산하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합동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동국학원 이사장 오녹원스님이 전계사로, 원로회의 의장 배도원 스님이 교수사로 학생 976명, 학부모 68명 등 총 1044명이 계를 받았다. 특히 수계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통의식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에게 맞는 현대식 한글의식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단신

겨울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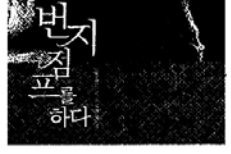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레이션협회(회장 운광)는 12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송파구 불광사에서 제 30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습회는 '새로운 찬불동요로 겨울을 따뜻하게', '도구제작 및 놀이체험 - 성불도 놀이', '전래놀이'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일반인 40,000원, 회원 30,000원, 군종 및 도서벽지 20,000원이며 온라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수 있다. (02-738-7860)

우리는선우, 청소년 위한 그룹홈 운영

(사)우리는선우는 최근 청소년그룹홈인 선재동산을 개설하고 위탁청소년을 모집하고 있다. 선재동산에서는 부모의 불화·이혼 가정폭력 가난 질병 등으로 인해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위기가정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하며 위기를 극복하도록 가족관계를 지원해준다. 문의는 2649-6641.

명작 비디오 파일 번지점프를 하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왔지."

"아냐.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마워."

약속시간에 두어 시간가량 늦은 연인들의 대화가 아니다. 20여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환생해 다시 만난 연인의 마지막 대화다. 그들은 영화 말미에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들의 사랑을 위해 번지점프를 한다.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는 한눈에 반하는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1983년 여름 첫 눈에 반하는 일 따위는 믿지 않는 국문학과 82학번 서인우는 적극적이고 사랑스런 여자 인태희를 만난다. 인우의 마음은 자신의 우산 속에 뛰어들어온 여인 인태희로 가득 차 버린다. 그들에게 다가온 군입대라는 짧은 이별의 순간은 영원으로 이어진다.

시간을 훌쩍 흘러 2000년 봄. 어엿한 가장이고,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된 인우 앞에 태희처럼 새끼손가락을 펼치는 비룻이 있고 그녀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그녀의 얼굴이 새겨진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천친보살이 지었다는 〈업성취론(業成就論)〉에서는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의업(意業)을 설명한다. 인우를 사랑하는 태희의 마음이 마지막 순간 다른 생애의 생명을 잉태했고, 인우의 사랑은 모습이 다른 태희를 알아보게, 다시 한번 더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모두 업연의 결과다. 그들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은 아마 다음 생에서도 사랑이란 이름을 가진 업의 굴레로 나타나지 않을까.

강지연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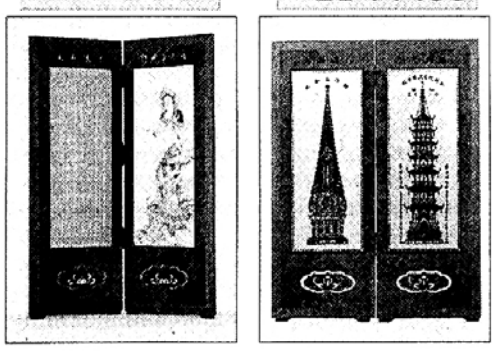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품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무위사 극락전 내부. 연화문의 우물천장과 장엄미 넘치는 벽화가 서방정토를 우리 눈 앞에 펼쳐놓는다.

망상도 참됨도 다 내려놓은 '무위(無爲)의 땅'



◇무위사 극락전(국보13호). 맞배지붕에 주심포식 건물로 조선초기의 대표적 건축물이다.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배움이 끊어진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君不見 絶學無爲閑道人 不除妄想不求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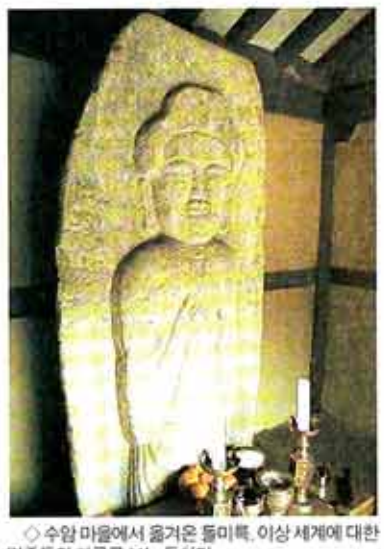
영가 현각(永嘉玄覺, 665~713) 스님이 육조 혜능의 회상에서 깨달은 바를 노래한 '증도가(證道歌)'의 첫부분입니다. 무위사(無爲寺) 가는 길, 호남선 기차에 흔들리며 '하릴없음(無爲)'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잠시나마 맛보았습니다.

한반도 남서쪽 끄트머리의 갯마을 강진. 이름만 떠올려도 영랑의 시와 포구의 갯내음이 귀와 코에 그이는 땅. 근심 걱정과는 1만 8천리나 떨어진 듯 견안히 누운 산과 텅 빈 들을 배경으로 불꽃처럼 솟아오른 월출산을 돌아드니 그곳에 무위사가 있었습니다. 월출산 남쪽 자락, 산과 들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곳에 없는 듯 우뚝했습니다.

무위사의 창건 연대는 현년 훨씬 저쪽입니다. 사적기에 의하면, 신라 진평왕 39년(617)에 원효 스님이 관음사로 창건하였고, 통일 신라 때인 헌강왕 1년(875)에 도선 스님이 중창하여 갈옥사(葛屋寺)라 했다 합니다. 오늘의 이름을 얻게 된 때는 조선 명종 5년(1550) 태감(太甘)이 4번째로 중창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바람을 쫓아다니는 낙엽 몸에 쉬여 절 마당을 돌았습니다. 아직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은 단풍 곁으로 동백잎은 천연덕스럽게 푸르렀고, 드문드문 매달린 팽나무 연록색 잎은 신록인양 고왔습니다. 한 순간 계절감이 사라지면서 시간 밖의 세계로 들어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직선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무위사는 극락전 하나만으로도 견줄 데 없는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흉내낼 수 없는 단 하나. 그렇다고 주변의 것들을 초라하게 하는 법이 없는 우뚝함. 최고 행위로서의 무위(無爲)란 이런 경지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 수암 마을에서 옮겨온 돌미륵. 이상 세계에 대한 민중들의 희구를 보는 듯하다.

그 절에 가면

월출산 무위사

정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배흘림 기둥 위에 하나씩 지붕을 받치고 있는 공포. 건물의 외양은 이렇듯 간명합니다. 하지만 선 굵게 흘러내린 맞배지붕은 단순히 비바람을 가려주는 구조적 기능을 넘어 또 다른 하늘이 되고, 드러내 놓고 멋부리지 않은 부재들은 꾸밈없는 당당함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오만해 보이지 않고, 예스러우면서도 투박하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단지 우리 것이고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으로 입에 발린 찬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위사 극락전 앞에서는 국보 13호 또는 조선초기의 대표적인 건물이라는 설명이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한편 이 건물의 내부는 외양과는 또 다른 공간을 펼쳐 보입니다. 연화문으로 장식된 우물천장,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좌우로 협시한 아미타불과 후불벽화, 후불벽 뒷면의 수월관음도, 동쪽벽면의 아미타내영도(모작) 등은 서방 정토에 대한 중생들의 희구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에는, 건물이 완공된 뒤 한 늙은 거사가 찾아와 49일 동안 들여다보지 말 것을 당부하고 그렸다고 하는 전설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49일이 되면 남 궁금증을 참지 못한 주지가 문에 구멍을 뚫고 보니 파랑새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다가 관음보살의 눈동자를 미처 그리지 못하고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빼어난 벽화가 있는 절에는 이와 유사한 전설이 많습니다. 인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겠지요. 현재 후불 탱화와 그 뒷면 벽의 수월관음도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보존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천도는 그 필선에서 회화적 분방함을 강하게 드러내며 바라보는 눈길을 아득한 하늘 저편으로 끌어올려 주는 듯했습니다.

극락전 옆으로는 자그마한 두 채의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산신각이고 다른 하나는 돌미륵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연석 그대로를 광배로 삼아 미륵부처님을 돋을새김해 놓았습니다. 수수하다 못해 투박할 정도인데, 미륵을 향한 보통사람들의 정성이 살갑게 다가옵니다. 이 미륵불은 본디 인근의 수암마을에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무위사는 '마을 절'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이곳 사람들이 돌미륵을 만들었듯이 불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벽화 보존각 공사가 한창인데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보수로 일을 하는 마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삼천 배 만 배에서 느낄 수 없는 순수한 믿음을 봤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미륵눈을 만들고 있었고 돌 속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햇살이 감나무 가지에서 꽃으로 피어나는 남도 길, 내 마음 속 좋은 그림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글=윤체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민족사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E-mail: minjoksa@chollian.net ♣법보시 주문을 받습니다.

문수기도공덕
문수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지혜가 총명해지고 맑아진다.
문수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가피를 입은 이야기(영험담)와 부록으로 문수보살경전이 실려 있습니다.
참념스님 엮음/ 4×6판 양장/ 208쪽/ 값 6,500원

관음기도공덕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난 이야기(영험담)와 부록으로 '관음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윤창화 엮음/ 4×6판 양장/ 208쪽/ 값 6,500원

지장기도공덕
지장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지옥고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지장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죽은 자의 원한을 씻어 주고 지옥고를 면한 이야기와 부록으로 '지장경'이 실려 있습니다.
한상부 엮음/ 4×6판 양장/ 224쪽/ 값 6,500원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왕초보, 불교박사되다
신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불교에 대한 상식과 예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석지현·일지·윤창화 지음/ 4×6판 양장/ 320쪽/ 값 7,500원

경전속에 들어 있는 불교명언 300가지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석상우·석지현 엮음/ 4×6판 양장/ 180쪽/ 값 6,000원

부처님께서 남기신 주옥 같은 명구!
마음을 열어주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탐욕은 꿈과 같은 것이다.
탐욕은 날카로운 칼과 같은 것이다.
탐욕은 독을 품은 벌레와 같은 것이다.
탐욕은 바람과 같고 어둠과 같고 감옥과 같은 것이다.
청휴스님 엮음/ 4×6판 양장/ 170쪽/ 값 6,000원

죽은 이를 위하여 49재를 지내는 까닭
영가천도와 49재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49재를 지내면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책은 매우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하사 율주 정천 큰스님 감수/ 박연진 지음/ 4×6판 양장/ 216쪽/ 값 6,000원

불교최초의 경전!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신국판/ 값 8,500원
법구경
석지현 옮김/ 신국판/ 값 6,500원
대반열반경
장기희 옮김/ 신국판/ 값 6,500원
아함경
돈연스님 옮김/ 1권,2권 각각 값 7,500원